

나를 사랑하여라

- 예수님과의 내적 대화 -

거룩한 사랑의 다윗 프란치스코
(David Francisco de Santo Amor)

목 차

1995 년 12 월, 콜론.....	3
1996 년 1 월, 콜론 / 에콰도르.....	10
1996 년 2 월, 콜론.....	18
1996 년 3 월, 콜론.....	27
1996 년 4 월, 콜론.....	34
1996 년 5 월, 콜론.....	38
1996 년 6 월, 콜론.....	43
1996 년 7 월, 콜론.....	48
1996 년 8 월, 콜론.....	61
1996 년 9 월, 콜론.....	65
1996 년 10 월, 콜론.....	72
1996 년 11 월, 콜론.....	78
1996 년 12 월, 콜론.....	83
1997 년 1 월, 콜론.....	90
1997 년 2 월 - 3 월, 콜론.....	93
1997 년 4 월, 콜론.....	100
1997 년 5 월 - 6 월, 콜론.....	104
1997 년 7 월, 콜론.....	106
1997 년 8 월 - 9 월, 콜론.....	118
1997 년 10 월, 콜론.....	127
1997 년 11 월, 콜론.....	133
1997 년 12 월 콜론.....	139
1998 년 1 월, 콜론.....	146
1998 년 2 월, 콜론 / 콜롬비아.....	156
1998 년 3 월, 콜롬비아.....	164
1998 년 4 월, 콜롬비아.....	169
1998 년 5 월, 콜롬비아.....	173
1998 년 6 월 - 7 월, 콜롬비아 / 콜론.....	177
나가는 말.....	185

1995 년 12 월, 콜론

예수님: 내가 나에게 표현하는 이 모든 것 가운데에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나타나 있다.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내게 호감을 가진 사람들에게 대한 내 애착을 허락할 수 없다고 하신 다음이었다.) 계속하여라. 이 길에서 너는 그 아름다움으로 무척 네 주의를 끄는 꽃들을 만날 것이고, 심한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맹수들 (곧 유혹과 시험들) 도 만날 것이다. 이러한 것은, 애야, 네가 모든 꽃들 위에 나를 사랑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고, 내가 착한 목자인 만치, 네가 어떤 맹수를 만나더라도 무서워하지 않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이제 평안히 가거라.

1995 년 12 월 3 일, 콜론

예수님: 더욱더 인내하면서 네 모든 고통과 싫어하는 일들을 다 내게 봉헌하면 기쁘겠다.

호세: 예수님, 당신께서는 만족하실 줄 모르십니다.

예수님: 그렇다, 애야, 아직은 만족할 수 없다. 네가 내게 바치는 행동과 일들만으로는 넉넉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라. 더 많은 사랑의 행위들로 내 사랑을 청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제 내 평화를 가져라.

1995 년 12 월 4 일, 콜론

예수님: 내가 도와주기를 바라느냐? (이때 나는 ‘가난을 사는 방법을 원하는가?’ 라는 질문이 담긴 책을 읽고 있었다.)

호세: 예.

예수님: 네가 장상들에게 순명하고, 말대꾸하지 않고 배정 받은 활동을 하고, 논쟁을 피하고, 평화를 증진하고, 의사 표현이나 생각이나 다 단순한 방식으로 하면, 이것이 가난을 사는 것이다. 이제 평안히 가거라.

1995 년 12 월 6 일, 콜론

밤에.

예수님: 애야, 네 마음을 바꾸었느냐?

-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신 것은, 내가 신학교를 비판하는 말들을 들었기 때문이었다.

호세: 아닙니다, 예수님. 사제가 되고 싶은 제 열망을 주님께서 키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마. 이제부터 내게 더욱 충실하여라. 그리고 평안히 쉬어라.

1995년 12월 7일, 콜론

호세: 저에게 시간 좀 주시겠습니까?

예수님: 그래, 가져라.

호세: 예수님, 날마다 제 마음 안에 계시어, 저로 하여금 제 안에서 행동하지 않고 당신 안에서 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그러면, 애야, 기도하고, 내게 충실하며, 내가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고 네 하느님이 혐오하는 것을 혐오하여라. 나는 네가 순종하며, 정신과 몸과 영혼이 맑고 깨끗한 사람이 되는 것으로 내게 영광이 되게 하기 바란다. 이 날빛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이느냐?

호세: 예, 예수님.

예수님: 저 아름답던 밤이 기억나느냐?

호세: 예, 예수님.

예수님: 이 낮과 저 밤의 아름다움은, 맑고 깨끗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영혼의 아름다움에 비하면 추함에 불과하다. 이제 내 평화를 가져라.

1995년 12월 8일, 콜론

예수님: 이 봉헌된 상태의 너를, 애야, 내가 환히 비추며 인도해 주겠다. 내가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고, 내 마음에 드는 것을 행하는 것으로 행복해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이제 우리 평안히 가자.

1995 년 12 월 10 일, 콜론

호세: 오, 예수님! 저는 이토록 나약합니다.

예수님: 그 때문에 괴로우냐?

호세: 제가 아직도 세속적인 것에 마음이 동요되는 것을 알기에, 심한 괴로움을 느낍니다.

예수님: 애야, 그것은 네가 전보다 더 나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이제 평안히 가거라.

1995 년 12 월 11 일, 콜론

호세: 주님, 당신께서 제 마음 안에 뿌리신 그 씨앗을 보존하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사제가 되려는 내 소망을 말한다.)

예수님: 그래, 호세야. 또다른 것이 있느냐?

호세: 그리고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더 강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 애야, 나를 믿고 의탁하여라. 이제 평안히 가거라.

나중에

예수님 : 인내로운 사람이 되려는 네 의지에 충실하지 못했다고 애태우지 말아라. 그렇게 되도록 내가 너를 도와 줄 것이다. 지금은, 애야, 나를 기쁘게 해주는 태도를 지니려고 네가 계속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단다. 더구나, 내가 싫어하는 것은 피하고 있는 너를 볼때 느끼는 내 기쁨이 얼마나 큰지 너는 상상도 하지 못할 것이다. 이제 내 평화를 간직하여라.

1995 년 12 월 13 일, 콜론

밤에

예수님: 내가 너에게 나를 위해 너를 원한다고 하는 것은, 너를 주변에 있는 영혼들과 분리되어 있게 하려는 목적에서가 아니란다. (형제회의 형제들을 말씀하신다.) 그보다도 오히려, 내가 너를 대하는 것처럼, 다시 말해, 사랑과 이해와 인내로 너를 대하는 것처럼, 너도 그들을 그렇게 대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란다. 나는 네가 모든 것 위에 나를 사랑하고, 네 마음의 중심에 내가 있기를 바란다. 이제 평안히 가거라.

1995년 12월 15일, 콜론

예수님: 애야, 우리가 너에게 맡겨진 일을 하려고 했을 때, 자기 사업의 성공을 위해 온갖 애를 다쓰던 그 사람들을 보았던 것을 기억하느냐?

호세: 예, 예수님.

예수님: 만일 그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기업과 자신들이 하는 사업을 성공시키려고 그렇게 애를 쓴다면, 하느님은, 하나의 기업 그 이상인, 네 영혼을 어떻게 대하시겠느냐?

호세: 주님,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예수님: 내 사랑아, 걱정도 하지 말고 애태우지도 말아라. 나는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겨두고 있단다. 이제 평안히 가거라.

1995년 12월 17일, 콜론

오후에.

예수님: 애야, 너처럼 기도함으로써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너에 대한 나의 계획을 분명하게 알게 되고, 어떤 무기나 나라가 갖고 있는 힘도 기도 중에 있는 한 영혼이 지닌 힘과 비교할 수 없음을 아주 명백하게 알게 된단다. 오 나의 사랑아! 분명히 말하거니와, 오늘날의 사람들이 기도 안에 들어가 기도 안에서 그들의 피난처를 찾는다면, 어느 날 내가 한 일들보다 더 큰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이제 평안히 가거라.

1995년 12월 18일, 콜론

아침에.

호세: 주님, 제가 해야 할 일들을 할 때, 주님을 제 안에 모시고 그 일을 한다면, 주님의 마음에 드시겠습니까?

예수님: 애야, 자기를 잊지 않고 있다면 좋아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이제 평안히 가거라.

1995년 12월 19일, 콜론

예수님: 이 꽃을 나에게 주겠느냐? (어떤 사람이 나에게 야기 시킨 피로운 상황을 말씀하신다.)

호세: 하느님!

예수님: 이 상황 자체가 네가 더욱더 나처럼 되기를 바라는 것이란다. 이제 내 평화를 간직하여라.

1995년 12월 20일, 콜론

예수님: 여기에 두 집이 있단다. 이 중에 도둑 맞을 염려가 적은 집은 어느 집이겠느냐? 많은 것을 소유한 집이겠느냐, 아니면 아무 것도 가진 것이 없는 집이겠느냐?

호세: 가진 것이 아무 것도 없는 집입니다.

예수님: 너도 바로 이와 같아야 하는데, 네 안에 도둑들의 관심을 끄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한다는 말이란다. 이제 평안히 가거라.

1995년 12월 22일, 콜론

예수님: 애야, 이 영혼이 너의 집에 들어갈 때, 너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것을 알아두어라. 이제 우리 평화로이 함께 가자.

1995년 12월 23일, 콜론

새벽에.

예수님: 네 휴식 시간을 나에게 잠깐 내어주겠느냐?

호세: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예수님, 당신은 왜 저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까?

예수님: 그러면 너는 왜 물을 마시느냐?

호세: 물은 제 육신에 활력을 주는 그 무엇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관계도 그와 같은 것이라. 나는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을 하려고 가만있지 못하는 네 마음을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제 평안히 쉬어라.

아침에, 성당에서.

호세: 오 하느님! 제가 당신을 멀리 떠나 있었던 그 해들을 기억하면 얼마나 슬픈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당신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나니 마음이 너무나 아픕니다.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주시고, 저를 당신께서 꿈꾸셨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예수님: 애야, 너에게 한 가지만 요청하고 싶구나. 나를 사랑하여라. 그리고 내 평화를 간직하여라.

1995년 12월 26일, 콜론

호세: 주님, 책이 마음에 드십니까? *(많은 오류 중에서, 특히 인쇄에 실수가 많았던 '나를 - 사랑하여라'의 첫 출판물을 말한다.)*

예수님: 애야, 자신의 작품이 완성된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않을 작가가 어디에 있겠느냐?

호세: 인쇄할 때 잘못된 것들, 특히 책 표지부터 잘못된 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슨 묘안이 있으십니까? 저희가 어떻게 손을 보면 되겠습니까?

예수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희가 *(내 영적 지도자와 나를 말씀하신다.)* 책임지도록 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그 방법을 알려주겠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지겠다. 다시 말해, 나의 작품인 이 일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영혼을 비추는 일은, 비록 이 일의 일부는 네 손에 맡긴다 하더라도, 내가 맡아서 할 것이다. 이제 평안히 가거라.

예수님: 왜 그런 태도를 하고 있느냐? *(나는 어떤 사람을 경멸스런 눈으로 보고 있었다.)*

호세: 당신은 입을 다문다는 것이 저한테는 아직 힘들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순종적인 사람이 되기에는 아직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예수님: 애야, 낙심하지 말아라. 지금으로써는, 나처럼 되려는 너의 노력만으로도
나는 만족한다. 이제 평안히 가거라.

1995년 12월 30일, 콜론

1996 년 1 월, 콜론 / 에콰도르

예수님: 애야, 어제보다 더욱더 나를 바라고,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 곧 내가 기뻐하는 것에 어울리는 모든 것을 나에게 청하여라. 너는 내 손을 떠나지 말고, 불충실함 없이, 나와 더욱 깊게 일치하여라. 더구나, 우리의 관계는 성장해야 하는 것임을 깨닫고, 더욱더 충실해지려는 너의 소망, 내가 사랑하는 것을 너도 사랑하고 내가 미워하는 것을 너도 미워하려는 그 소망도 마찬가지로 커가야 함을 깨달아다오. 오 나의 사랑아! 내가 너와 너의 형제들이 그들의 일, 그들의 생각과 마음 속에서 나의 현존을 잊지 않기를 얼마나 간절히 바라고 있는지, 너는 상상도 하지 못할 것이다. 나는 네가 맡은 일들을 내 안에서 행할 때, 또 그 일들을 (육탕 청소와 설거지) 통해 나를 기쁘게 하려고 애쓸 때 만족함을 느낀단다. 너는 왜 나에게 기쁨을 주는 그 꽃들 외에, 더 아름다운 다른 꽃들은 주지 않느냐?

호세: 주님, 그 꽃들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너는 왜 더 많이 나의 인도에 따라 행하지 않고, 네 욕정의 충동에 따라 행동하느냐?

호세: 그 꽃은 당신을 아주 기쁘게 해드립니다까?

예수님: 그렇단다. 나에게 그 꽃을 주겠느냐?

호세: 어쨌든 그 꽃을 드리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이제 평안히 가거라.

1996 년 1 월 4 일, 콜론

예수님: 애야, 왜 낙담하느냐?

호세: 지는 것도 지겠습니다. (나는 공동체의 한 형제와 운동을 하고 있었다.) 오 하느님! 당신은 저를 너무나 잘 아시고, 항상 이기려는 제 안달과 욕심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호세야! 네가 더 많이 잃거나 너 자신을 더 많이 버릴때, 너는 나를 더 많이 소유하게 될 것이다.

호세: 예수님,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예수님: 낙심하지 말아라. 너는 아직 너 자신에게서 이탈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것이란다. 나는 말이다, 네가 시작한 이 길에서 많은 실패도 하겠지만, 많은 승리도 하리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구나. 더구나, 시험을 당할 때, 너는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바치신 그분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해야 할 것이다.

호세: 주님,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예수님: 오 애야! 이미 사랑이 승리했음을 깨닫는 그날, 너는 이기려는 염원과 욕심 또는 패배할까 두려워하는 마음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실망하게 만드는 인간적인 헛된 욕망에 지나지 않을 때가 많음을 알게 될 것이다. 무엇 때문에 너는 내가 너에게, 너 자신 안에서가 아니라 나의 빛 가운데서 행동하기를 요청한다고 생각하느냐? 그 욕망이나 그 두려움들이 너를 나의 영광에 이끌어주기라도 한다더냐?

호세: 하느님, 무슨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여라.

호세: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너는 이 생활 안에서 네가 이기든 지든 항상 나를 사랑하겠다고 약속하여라.

호세: 약속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 내 사랑아, 이제 평안히 가거라.

1996년 1월 7일, 콜론

예수님: 애야, 우리의 관계 안에서 내가 더욱 간절히 바라는 것은 너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란다. 네 안에서도 이 소망이 커지게 해달라고 나에게 청하여라. 이제 평안히 가거라.

1996년 1월 10일, 콜론

예수님: 애야, 호세야, 내 곁에 더 가까이 오너라. 너는 나날이 더욱더 나를 닮기를 원하여라. 끊임없이 내 눈에 드는 선한 행동을 하도록 노력하여라. 그리고 내가 너의 삶 안에 개입했을 때부터 나는, 네가 네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나를 기쁘게

하는 일들을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그 일들이 무엇인가를 너에게 말해주는 것밖에 다른 일은 아무 것도 한 것이 없음을 깨달아다오. 오 나의 사랑아!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내 마음에 드는 일들은 행하지도 않고, 내가 즐기는 것을 만족시켜주지도 않고, 또 내가 그 큰 사랑으로 그들에게 베풀어준 은총들을 내쳐버리는지, 그로 인해 당하는 나의 고통과 탄식을 네가 상상만이라도 할 수 있다면, 너도 나처럼 탄식하며 울텐데 말이다. 나를 기쁘게 하는 일들을 하고, 저항도 남김도 없이 너 자신을 나에게 바치고, 아무 것도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 뜻을 행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단 하루도 낭비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이유 때문이란다. 이제 평안히 가거라.

1996년 1월 12일, 콜론

호세: 주님, 당신 작품의 초판본에 오류가 많아 걱정입니다.

예수님: 애야, 아직도 써야 할 것이 많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이제 평안히 가거라.

1996년 1월 13일, 콜론

예수님: 왜 그런 태도를 하고 있느냐? (나는 어떤 한 사람을 관대하게 받아들여가기가 매우 어려웠기 때문에 차라리 그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선호했었다.) 사랑하기 쉬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만일 네가 네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계속 사랑한다면, 그것은 결국 너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 되고 말 것이다.

호세: 그러나, 하느님.... (예수님께서 내 말을 막으셨다.)

예수님: 그 영혼들은 너에게 진정으로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고, 더욱더 나와 같이 되는 법을 가르쳐주는 영혼들이란다. 이제 평안히 가거라.

1996년 1월 15일, 콜론

밤에,

예수님: 애야, 호세야.

호세: 주님,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 만일 네가 기도하며 나를 믿고 의탁하려고 노력한다면, 나를 닮고 내 뜻에 순종하려고 노력한다면, 분명히 말하거니와, 가장 그럴싸한 무기로 무장한 그 어떤 군대라도, 너의 나라 *(내 마음을 말씀하신다.)*가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방어력이 없다하더라도, 결코 너를 파괴하지 못할 것이다. 이제 평안히 가거라.

1996년 1월 16일, 콜론

아침에,

예수님: 애야, 네 마음 안에 나를 얼마나 소유하느냐에 따라, 너에게 매력을 주는 것들과 습관들이 너에게는 다 부질없는 것으로 보이게 될 것이다. 사랑만으로 족하단다. 애야, 너는 그것을 이해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느냐? 사랑은 모든 것을 끌어안는데, 피조물 안에 그와 닮은 것은 아무 것도 존재하지 않는단다.

호세: 오 하느님!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당신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사랑하는 호세야, 네 입으로 항상 그 말을 하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라. 네가 그렇게 말할 때는, 네가 나를 보지 못하고 네 방식대로 나를 느끼지 못한다 하더라도, 네 하느님은 언제나 거기에 계시실 것이다. 이제 평안히 가거라.

1996년 1월 17일, 콜론

예수님: 애야 호세야.

호세: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나는 네가 두 가지만 나에게 청하기를 바란단다. 네가 나의 은총에서 떨어지지 않을 것, 내 어머니의 사랑에서도 떨어지지 않을 것, 그 두 가지의 청을 나는 결코 거부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평안히 가거라.

오후에, 성체를 영하기 전에.

호세: 오 예수님! 저는 이곳에서 *(내가 후에 입회한 형제회를 말한다.)* 습관적인 일상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똑같은 일에, 새로운 것은 아무 것도 없고, 제 잘못들도 고쳐지지 않습니다.

예수님: 애야, 너는 사랑하는 것, 그리고 네가 보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느님께 충실하는 것이 습관적인 일상이라고 생각하느냐? 네가 느끼고 있는 것은 네가

인간적으로 새로운 것을 계속 추구하거나 기대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구나. 그리고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것을 따분한 상태라고 생각하는 것 같단다. 그 모든 것은 헛되고 부질없는 것이며, 내가 너를 살게 하고, 너를 사랑하고, 너는 생각 할 수도 없을 만큼 너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사실이 네가 매일 발견할 수 있는 가장 큰 새로움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겨두어라. 네가 맛보는 이 권태로움 또는 지루한 일상은 매일 더욱더 나를 사랑하면서 넘어서야 하는 너의 장벽들이다. 왜냐하면, 네가 나를 사랑하기 시작할 때, 그리고 네 마음 안에 나를 더욱 깊이 소유하기 시작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너는 일상적인 것이 새로운 무엇으로 변함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란단다.

1996년 1월 19일, 콜론

예수님: 애야, 네가 만일 믿음을 갖고 유순하게 행하지 않으면, 너는 나의 뜻을 결코 알아듣지 못할 것이다. 너는 무언가가 너의 방식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데 너의 그 희망과는 전혀 다르게 이루어질 때, 그것은 내 방식에 따라 실현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라. *(나는 내가 참여했던 한 성소 피정이 더욱 체계적이기를 바라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 너는 어떻게 하면 일들이 보다 잘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너의 방식에 따라서겠느냐 아니면 내 방식에 따라서겠느냐?

호세: 당신의 방식에 따라 할 때입니다, 주님.

예수님: 네가 나를 신뢰하고, 너에게는 어긋나는 일 같아 보이더라도, 네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들을 평온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네가 나의 언어와 표징들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될 것이다. 실망하지 말고 네 자신을 너의 하느님께 의탁하여라. 하느님께 맡기지 않고는 어떤 영혼도 나의 뜻, 오직 인간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나의 뜻을 알아듣지 못할 테니 말이다. 이제 평안히 가거라.

1996년 1월 20일, 콜론

예수님: 기다려라. 분노에게 문을 열어주지 말고 무관심에게는 더더욱 문을 열어주지 말아라. 그때가 바로 내가 너에게, 너 자신 안에서가 아니라 내 안에서 행동하기를 바라는 바로 그 순간들이란다. 이제 평안히 가거라.

- 예수님은 내가 논쟁으로 변하는 것을 피하면서 어떤 사람과 말을 주고 받고 있을 때 개입하셨다. 다시 한 번 더 사랑이 승리했다.

1996년 1월 21일, 콜론

예수님: 이 시대에, 인간은 사랑으로 행하는 것을 잊어버렸는데,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너는 너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바치신 하느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 되므로, 사랑은 너에게 <나를 사랑하여라>고 말하기 위해 네 곁에 머물러있단다.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먼저 생각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잊어야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눈에 사랑이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님은 확실하단다. 오 나의 사랑아! 만일 너와 네 형제들이 참된 사랑으로 사랑한다면, 위대한 일들이 일어날 터인데, 이제 평안히 가거라. 그리고 너는 나의 피조물들 가운데서 가장 미소한 것까지도, 그것이 마치 나인 듯, 사랑하도록 노력하여라.

1996년 1월 22일, 콜론

예수님: 무엇 때문에 너는 세상과 세상 사람들이 너를 잊을까 걱정하느냐? 너는 그들을 위해 세상을 떠나 왔음을 깨닫지 못하느냐?

호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런데 그것이 마음 아쁩니다.

예수님: 그 사실이 너를 고통스럽게 하느냐?

호세: 예, 주님.

예수님: 세상이 너에게 치유되지 않은 상흔들만 남겨주었다면, 그 세상이 어떻게 네가 고통을 느끼는 원인이 될 수 있겠느냐? 네가 나의 세상과 나의 사람들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때 너는 내가 이런 태도를 취하는 이유를 알게 될 것이다. 이제 내 평화를 간직하여라.

1996년 1월 23일, 에콰도르

호세: 무슨 일이십니까, 예수님? 왜 저를 불러놓고 침묵하십니까?

예수님: 내가 너에게 더욱더 나처럼 되고 싶어하는 마음을 불러 넣어주려고 이렇게 있을 때가 많으리라는 것을 네가 깨달아주기를 바라서란다. 너는 아무 준비도 하지 말아라. 내가 말을 하게 해다오. (나는 한 무리의 사람들에게 <나를 사랑하여라>에 대해 말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네가 불신을 당한다 하더라도, 너 자신에게서 더욱 이탈하여 말할 수 있을 때까지 말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 내가 더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으니까 말이다. 너는 알고 있느냐?

호세: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 내가 여기 머무는 동안 나는 너에게 많은 선물을 줄 것이다. (나는 큰 불안과 초조를 느끼기 시작했다.) 그러나 초조해 하지 말아라. 너는 마치 내가 너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고 마음 졸이지 말아라. 이제 평안히 가거라.

오후에.

예수님: 애야, 만일 내가 참새 한 마리도 주려서 죽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꽃들도 그들의 그 아름다움을 마음껏 자랑하게 해주려고 한다면, 어떻게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는 애쓰지 않겠느냐? 사람이 내 모상대로 나를 닮도록 만들어진 작품이라면, 어떻게 내가 그들을 먹이고 기르지 않을 수 있겠느냐? 나는 너의 안위와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을 깨달아다오. 나를 믿고 의탁하여라. 그리고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여라. 이제 평안히 가거라.

1996년 1월 26일, 에콰드로

예수님: 내가 너에게 나의 눈으로 보고, 나의 손으로 행하고, 나의 발로 걷고, 나의 입술로 말하고, 나의 정신으로 이해하고, 나의 마음으로 사랑하라고 요청하는 것은 이 이유 때문이다.

호세: 주님, 이것은 사람들이 말하는 그대로 일어나게 됩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과장해서 그냥 하는 말일 뿐입니까? (나는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놀라워하고 있었다.) 주님, 왜 아무 말씀도 않으십니까?

예수님: 내가 침묵한다면, 그것은 그때 일어날 처참한 광경을 너에게 말해주거나 또는 확신시켜줌으로써 네가 무서워 떠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란다. 그리고 나는 길이며, 진리며, 생명임에도, 내 안에 있지 않는 영혼을 위해서 침묵하는 것이란다. 지금은 왜 네가 침묵하느냐?

호세: 슬퍼서요, 주제를 바꾸고 싶습니다.

예수님: 오 애야! 너는 그 때에 대해 듣는 것만으로도 슬프다면, 나는 네가 그것을 경험하게 될 순간은 생각조차 하고 싶지 않구나.

호세: 하느님!

예수님: 두려워하지 말아라.

호세: 이것은 혼돈 상태가 될텐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빛의 자녀들이 무엇때문에 어둠의 자식들을 두려워해야 하느냐? 빛이 암흑을 흠어버리지 못하고 사랑이 악을 이기지 못한다더냐? 이 시대에는, 너는 더욱더 믿음으로 살고 너를 위해 생명을 바치신 그분을 모든 것 위에 사랑해야 할 것이다. 이제 평안히 가거라.

1996년 1월 27일, 콜론

예수님: 그 비관주의는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나는 내 의지가 너무 약해서 지나치게 힘을 잃고 있었다.) 너는, 내 아버지께서는 옛 예언자들을 대하신 그대로 너를 대하실 것이며, 내가 너의 일을 잘 되게 해주리라는 것은 왜 생각하지 않느냐? 너는 왜 내 손이 권능을 쥐고 너를 위해 움직이리라는 것을 알아듣지 못하느냐? 아니면 지금까지 한 것처럼 내가 개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의심과 두려움으로 황폐하게 되도록 내버려두리라고 생각한단 말이더냐? 이제 평안히 가거라.

1996년 1월 28일, 콜론

호세: 제가 열다섯 살이었을 때 왜 이 계획을 밝혀주지 않으셨습니까? 왜 지금 알려 주십니까? 만일 그때 알려주셨더라면, 많은 것들이 달라졌을 것이고, 저는 지금 그렇게 큰 자비를 청해야 하는 잘못들은 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 애야 호세야, 만일 내가 그때 너에게 이 계획을 밝혀주었다더라면, 너는 오늘 존재하지도 못했을 것이다.

호세: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나는 내가 함께 일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있다. 나는 너를 잘 알고 있고, 세상이 너에게 주는 매력이 얼마나 큰지도 알고 있단다. 그래서, 나는 너를 위해 이 계획을 비밀에 부치기로 했었다. 왜 말이 없느냐?

호세: 저를 위해 당신이 하신 모든 일과 당신이 하실 모든 일에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예수님, 저를 축복해주시시오.

예수님: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너를 축복한다. 이제 평안히 가거라.

1996년 1월 29일, 콜론

1996 년 2 월, 콜론

예수님: 애야.

호세: 예수님,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 지나가는 하루 하루, 너와 나는 더욱더 하나가 되고 있구나.

호세: 예수님, 말씀 중에 끼어드는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아직도 저는 당신의 일들에 아주 무관심하니까 말입니다.

예수님: 호세야, 네가 계속 나를 사랑하고 갈수록 더 내 안에서 행하는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일치는 계속 유지될 것이다. 현재로서는, 네가 나에게 자주 바치던 행위들과 잊어버리고 있었던 일들을 실천하려고 힘을 내는 것이 나를 기쁘게 한다. 이제 평안히 가거라.

1996 년 2 월 2 일, 콜론

아침에.

- 이날 나는 예수 마리아 성심의 자비 형제회에 입회했다.

예수님: 애야, 어느 날 내가 너의 영혼을 위해 꿈꾸었던 것들을 네가 실행하도록 이 순간부터 나의 은총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깨트려야 할 많은 장벽들과 극복해야 할 많은 장애물들이 너를 기다리고 있지만, 너는 그것을 네 힘이 아니라 너의 하느님의 힘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호세: 그 장벽들과 장애물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예수님: 너의 취향들, 너의 안락함, 네 자아, 결국 네가 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모든 것이 네가 내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극복해야 할 장애물들이고, 또 나를 생생하게 드러내는 사람이 되기 위해 깨트려버려야 할 장벽들이다. 이로 인해 너는 분명 많은 눈물을 흘리게 되겠지만, 네가 더욱더 내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 되려면, 그것은 반드시 거쳐야 할 일이 될 것이다. 이제 평안히 가거라.

1996 년 2 월 3 일, 콜론

예수님: 무엇이든 나에게 청하여라. (이것은 내 생일을 생각하여 말씀하셨다.)

호세: 하느님!

예수님: 그래, 애야.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무엇이든 나에게 청하여라. 오늘은 네가 더욱더 나와 가까워질 수 있도록 내 마음의 문을 열어두었으니, 두드리지 않아도 된다.

호세: 좋습니다. 주님! 당신께서 저를 위해 준비해 두신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저에게 건강을 주시고, 거룩한 사제가 되어 온 세상에 당신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십시오.

예수님: 애야, 너에게 이것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들도 주겠다.

호세: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 내 영으로 권능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은총을 너에게 줄 것이다. 지금은 쉬지 말고 기도하여라. 그렇게 함으로써 너는 내 눈 앞에서 은총 안에 성장할 것이다. 이제 평안히 가거라.

1996년 2월 8일, 콜론

호세: 만일 그 영혼이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안다면 기뻐서 울 것입니다. 주님, 제가 바치는 이 고통을 받아주십시오.

예수님: 너의 고통이 너를 나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도록 이끌어주니 기쁘구나. 나에게 더 작은 십자가들을 달라고 청하여라! 그리고 너에게 주어지는 그 십자가들을 나에게 봉헌하여 나의 고통을 덜어다오.

호세: 예수님, 지금은 이것들을 참고 따르겠습니다. 이것들이 저한테는 큰 십자가들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 낙심하지 말아라. 나는 네가 말한 것 때문에 슬퍼하지 않는다. 오히려 기뻐하여라. 작은 십자가들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실과 바늘보다 더 가까이 너와 일치해 있으니까 말이다. 넌 알고 있느냐?

호세: 듣고 있습니다, 주님.

예수님: 너는, 사소한 상황과 역경 안에서라 하더라도, 나를 위해 고통당하려는 주립과 목마름을 달라고 나에게 청하여라.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 결심하였느냐?

호세: 그러나 사소한 상황들, 그리고 사소해 보이는 상황들 안에서부터 먼저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제가 이 점을 강조하는 것은, 당신은 매우 현명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내가 말하는 방법을 보니 기쁘구나. 그리고 내가 그렇게 부르니 말인데, 이 현명한 분은, 내가 생각지도 못할 만큼 너를 사랑한다. 오 애야! 너에 대한 나의 사랑은 새롭게 되고 또 애덕 행위를 요구하기에, 네가 악을 행하게 될 일은 그 어떤 것이라도 너에게 하라고 명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로 인해 영광받기를 원한다. 이제 평안히 가거라.

1996년 2월 9일, 콜론

호세: 나에게 잘못된 사람에게 화를 내지 않는 것, 의식도 못한 채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에게 미소짓는 것,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태도 앞에서 조용히 침묵하는 것, 이것이 제가 당신께 드리는 단식입니다. 받아주시겠습니까?

예수님: 마음으로 바치는 봉헌물을 어떻게 받아들이지 않겠느냐? 애야, 슬퍼하지 말아라. 너는 나중에 내가 너에게 부여하는 것이, 너는 생각지도 못할만큼, 우리를 일치시켜 주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호세: 주님, 무언가 좀 청해도 되겠습니까?

예수님: 말해 보아라.

호세: 사람들이 저에게 주는 고통과 슬픔들 안에서도 기쁨을 반사하고 싶습니다. 제 감정이 꼭 차 올랐다고 느낄 때, 제 성질을 자제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오 하느님! 당신을 사랑하는 것, 당신께 대한 열렬한 사랑에 빠지는 것, 제 마음의 중심에 당신을 모시는 것, 당신을 가장 훌륭하고 충실한 나의 친구로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해야 할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 이젠 저를 축복해주십시오.

예수님: 내가 너를 축복한다. 이제 평화로이 가자꾸나.

1996년 2월 11일, 콜론

예수님: 애야, 내 평화를 간직하여라. 나는 나의 자애로 너를 채워 너의 무관심을 비워내고, 내 사랑으로 너를 채워 너의 인간적인 본성들을 비워내고, 나의 빛으로 너를 채워 너의 두려움을 몰아내고 싶단다. 나는 네가 사랑하고 봉사하려고 노력하기를 원한다. 결국 나는, 네 안에 살아계시는 분이 곧 나이기를 바란다.

호세: 예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그렇게 하마, 애야, 나는 너를 도와주고, 네가 온 힘을 다해 나를 영광스럽게 하려고 나에게 청하는 은총을 너에게 내려줄 것이다. 나는 너를 목말라 하고 있단다. 애야, 이런 나의 갈증을 씻어주겠느냐?

호세: 제가 할 수 있다면 기꺼이 하겠습니다.

예수님: 네가 행할 수 없는 덕들을 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라. 나는 더한 사랑으로 너에게 상을 줄 것이다. 오 호세야! 나는 네가 나를 영광스럽게 하려고 대단한 일을 하기를 원하지 않는단다. 오히려, 일상적인 너의 임무 안에서, 그것이 가장 간단하고 단순한 일들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나를 잊지 않기를 바란다. 이제 평안히 가거라.

1996년 2월 12일, 콜론

예수님: 애야, 만일 네가 너의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중의 하나인 그 시간을 생각한다면, *(공동 기도인 아침 성무일도와 저녁 성무일도, 그리고 끝기도를 말씀하신다.)* 네가 구속당하고 있다는 느낌은 사라질 것이라고 믿는다.

호세: 오 예수님! 저는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이 왜 그렇게 피곤한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애야, 너의 영혼은 아직도 헤매고 있고, 사랑 안에 들어가 자리하지 않는 한, 내 영의 활동을 막는 다른 장소로 *(제으름과 나태를 말씀하신다.)* 옮겨갈 가능성이 아주 크단다. 오 나의 사랑아! 머뭇거리지 말고 나에게 더욱 큰 힘을 청하여라. 비록 너는 그것을 네 방식에 따라 느끼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너에게 그 힘을 주겠다. 이제 평안히 가거라.

1996년 2월 13일, 콜론

예수님: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형제회의 한 자매의 건강 때문에 매우 걱정하고 있었다.)*

호세: 그 자매가 죽을 것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걱정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걱정하지 말아라, 죽지 않을 테니까. 게다가, 그 나무는 (그 자매를 말씀하신다.) 더 성장해야 하고, 더 우거져야 하고,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한단다. 이제 마음이 평온해지느냐?

호세: 예, 주님.

예수님: 이제는 네가 내 마음을 평온하게 가라앉혀주고 내 갈증을 없애주면 좋겠구나.

호세: 어떻게요, 주님?

예수님: 내가 너와 함께 있음을 잊지 않으면서 말이다. 너는 그 영혼이 결심했던 것을 행하지 않았을 때 내가 취했던 태도를 기억하느냐? (나는 그 사람을 도와주는데 관심을 갖고 있었다.)

호세: 예, 기억합니다.

예수님: 애야, 내가 너를 대하는 것도 마찬가지란다. 너는 네 삶 안에 나의 현존과 이 작품을 진지하게 받아들여라. 자신이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기 싫어하는 영혼이 어디에 있겠느냐? 네가 사랑하고 있었을 때, 너는 그들이 너를 중요한 사람으로 여기지 않기를 바랐었느냐? 만일에, 네가 경험한 그 느낌들을 너도 이야기했었다면, 내가 소중히 여기는 그 영혼에게 나는 왜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사랑은 너로부터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아다오. 너는 너의 온 영혼과 온 마음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며 섬기겠다고 약속하겠느냐?

호세: 예.

예수님: 애야, 이제 평안히 가거라.

1996년 2월 14일, 콜론

예수님: 애야, 나는 오늘 네가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을 하도록 너를 초대한다. 너의 한계와 나약함으로 인해 의기소침해지지 말아라. 나는 그 무엇보다도 너의 한계와 나약함 때문에 나의 힘을 너에게 주고, 너의 영혼을 향해 나를 열어두고, 너를 위해 항상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단다. 나의 사랑아...

호세: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 나에게 기쁨을 줄 뭔가를 하고 싶지 않느냐?

호세: 예,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기꺼이 하겠습니다.

예수님: 인내로운 사람이 되어라. 모든 것이 너를 위해 있음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네 마음과 너의 모든 활동 안에 항상 내가 있게 해다오. 네가 어디에 있든 그 장소는 중요하지 않단다. 오 애야! 내가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고, 내가 싫어하는 것을 싫어함으로써 나를 기쁘게 해다오.

호세: 예수님, 제가 당신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제 영적 프로그램에 계획되어 있는 것을 완수하려면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오 주님! 저는 당신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 마음이 탐니다. 저에게 더 요구할 것은 없으십니까?

예수님: 아니다, 애야. 지금은 이것으로 족하단다. 이제 평안히 가거라.

1996년 2월 15일, 콜론

예수님: 불안해하지 말아라. 네가 너를 깨끗하게 할 것이다. 너는 네 하느님의 손 안에 들어있고,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나는 너를 너의 불완전함 속에 영원히 놓아두지 않을 것이다. 내 사랑아...

호세: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것이 너를 평온하게 해 주느냐?

호세: 예, 예수님

예수님: 그러면, 내 평화를 간직하여라.

오후에.

예수님: 애야, 네가 이렇게 그 영혼을 보호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있는 것처럼, 그와 마찬가지로 너는 내가 더 큰 가치를 두고 있는 것(정결: 깨끗한 마음)을 보호해야 한단다. 그 덕에 이르기 위해 노력하고, 무엇보다 나의 성체로 그 덕을 살찌우도록 노력하여라.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돈이라면,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은 정결이란단다.

호세: 오 하느님! 당신을 거슬러 잘못된 것들이 얼마나 저를 짓누르는지요! 정결이 얼마나 가치있고 중요한가를 알았더라면, 다른 식으로 행동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나의 사랑아, 한탄할 시간이 없단다. 남은 시간을 더욱 정결한 사람이 되어 너의 잘못을 고치는데 사용하여라. 이제 내 평화를 간직하고 행하여라.

1996년 2월 22일, 콜론

예수님: 애야, 나에게 이 기도를 바쳐라. “주 예수님, 당신의 기도가 당신이 꿈꾸셨던 모습의 제가 되게 하시고, 제가 지니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덕들이 성장하게 하시며, 제 들레에서 만나는 수많은 영혼들을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 평안히 가거라.

1996년 2월 23일, 콜론

예수님: 이 행위들은, *(회개와 보속을 말씀하신다.)* 애야, 영혼에 힘을 주고, 네가 지닌 덕들을 굳건하게 해주며, 네가 지니지 않은 덕들이 생겨나게 한단다. 이 행위들은 마음으로 해야하는 것이란다. 사랑하는 호세야, 그렇게 해서 한 영혼이 그의 하느님과 친해지면, 이길 수 없는 죄는 존재하지 않는다.

호세: 어떻게요?

예수님: 네가 그것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를 들어본다면, 그것은 불이 타기 쉬운 어떤 물질이나 물체를 만났을 때와 같단다.

호세: 그것은 제가 상상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까? *(나는 불이 가연성 물체와 합쳐져 큰 불꽃을 일으키며 타오르는 횃불을 생각하고 있었다.)*

예수님: 그렇단다, 애야. 불이나 열기가 가연성 물체와 만났을 때 그것이 큰 불이 되어 타오르게 한다면, 너의 하느님께서서는 자신이 갖고 있는 지향과 소망을 끈기있게 이행하려는 영혼에게는 얼마나 더 많은 불을 꺼지지 않고 타오르게 하겠느냐? 어떤 폭발을 그와 비교할 수 있겠느냐? 이길 수 없는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애야, 내 평화와 함께 가거라.

나중에.

호세: 주님, 그 영혼은 어떻게 그렇게 빨리 성덕에 도달했고, 다른 영혼들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나는 아주 젊은 나이에 죽은 한 성녀의 생애에 대해 들었다.)*

예수님: 성화는 그렇게 시간에 달린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란다. 오히려, 성화는 결심한 것을 실행하려는 그 영혼의 마음 가짐과 그것을 완성하려는 소망에 달려 있다. 내 사랑아, 한 영혼이 하느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자기도 완전한 사람이 되려는 원의를 느끼고 있으면, 하느님께서도 그것을 아시고, 그 영혼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진지하게 그가 회심하는 것을 도와주신다. 이제 평안히 가거라.

1996년 2월 24일, 콜론

예수님: 애야, 정결한 사람은 내 손에서 어떤 은총이든 이끌어 낸다.

호세: 하느님!

예수님: 왜 이상하게 생각하느냐? 나는 네가 정결함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내 성심에서 모두 가져가기를 원한다.

호세: 주님, 무엇이든지요?

예수님: 오 애야! 나는 너의 지향들을 알고 있고, 정결한 사람, 곧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개인적인 구미에 따라 청하지 않고, 내 뜻에 따라 청한다는 것을 기억하여라.

호세: 아 하느님! 저는 물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너무 많아 그렇습니다.

예수님: 나는 무엇보다 먼저 너에게 영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채워왔단다, 그것을 잊지 말아라. 다른 것들은, 이차적인 것이고 나한테는 중요한 것이 아닐 때가 많이 있다. 낙심하지 말아라. 너도 내가 너를 무척 사랑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니, 그러나 그 (사랑) 마음이 너의 견딜 수 없는 욕망과 요구들까지 수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너는 영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으면서도 무엇 때문에 인간적인 요구들을 걱정하느냐? 네가 그렇게 행동한다면, 그것은 네가 영적인 요소보다 인간적인 요소에 더 많이 기울어지기 때문이란다. 아니라면, 내가 잘못 생각한 것이더냐?

호세: 아닙니다, 주님, 잘못 생각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애야, 인간적인 안락함이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너에게 무슨 가치가 있겠느냐? 너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보화들을 찾아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이제 내 평화를 간직하여라.

호세: 예수님, 가시기 전에, 제가 세상에 기울어져서 슬프십니까?

예수님: 애야, 나는 네가 너의 마음을 하느님이 아닌 세상에 둘 때, 너무나 슬프단다. 이제 평안히 가거라.

1996년 2월 25일, 콜론

예수님: 애야, 왜 사랑 안에서 행하는 것을 그만 두었느냐? 나는 봉헌생활을 하는 사람이 냉랭하고 미지근한 것은 싫어한다는 사실을 네가 알았으면 좋겠구나.

호세: 오 하느님, 저를 용서해주십시오!

예수님: 내 사랑아, 내 평화를 간직하여라, 나는 너를 슬프게 하려고 이 말을 한 것이 아니다. 그보다도, 네가 그에 대해 반응하고 사랑하려고 노력할 때 내가 느끼는 기쁨을 깨닫게 해주려고 말한 것이란다. 이제 평안히 가거라.

1996년 2월 26일, 콜론

예수님: 애야, 나는 네가 깨끗한 영혼과 정신, 몸을 지니도록 노력하기를 바란다. 내 눈에는 봉헌물과 속죄보다 정결한 사람이 더 큰 가치가 있으니 말이다.

호세: 오 예수님, 저는 너무 나약합니다!

예수님: 내가 너의 힘임을 기억하여라. 사람들이 바치는 제물 중에 내가 가장 기뻐하며 즐기는 제물은 곧 정결임을 알아 두어라. 정결은 성덕으로 인도하고, 성덕은 나의 얼굴을 보게 할 것이기 때문이란다. 이제 평안히 가거라.

1996년 2월 27일, 콜론

예수님: 애야, 나는 미지근한 것들을 싫어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완덕에 이르는 모든 덕들을 실천하도록 노력하여라.

호세: 하느님!

예수님: 내가 너에게 이 요청을 하는 것은, 너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온 힘과 온 마음을 다해 나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란다. 이제 평안히 가거라.

1996년 2월 29일, 콜론

1996 년 3 월, 콜론

예수님: 애야, 너의 그 열망 때문에 실망하지 말아라. 그 열망은 나의 것이기도 한단다. 내가 너에게 했던 말을 잘 알아들었으면 좋겠구나,

호세: 혹시라도 제가 그 말씀을 잘못 이해했습니까?

예수님: 무엇을 알아들었느냐?

호세: 저는 사제가 안 될 겁니다. 저한테는 그럴 시간이 없을 테니까요. 제 믿음이 증가하고, 성체 성사 안에서 당신의 몸과 피를 저에게 내어주시는 그 순간에 감동으로 떨리기만을 바랍니다. 예수님...

예수님: 듣고 있다.

호세: 제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이 아직도 더 있습니까?

예수님: 애야, 나는 너에게 신학교에 가지 말라는 말은 하지 않았단다. 신학교에 가면, 네가 나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사람으로 형성되기까지, 우리의 계획이 이루어질 때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리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무엇보다 사랑을 실천하고 행동과 음식을 절제하면서, 나와 일치하여 이 시간, 곧 현재를 살아라. 내 안에 잠겨들어 나의 수난을 묵상하고, 끊임없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버리는 것을 말씀하신다.)* 내 성령을 청하여라. 오 나의 사랑아! 이것이 나에게 큰 위로가 됨을 네가 헤아릴 수만 있다면, 너는 매순간 그렇게 할 터인데, 이제 평안히 가거라.

1996 년 3 월 첫날, 콜론

예수님: 애야, 용기를 내어 그렇게 행하여라. *(모든 것을 평온하게, 그분께 대한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씀하신다.)* 그 순간들 안에서 어느 날 너에 대한 사랑 때문에 내가 당했던 고통들을 느껴보아라.

호세: 하느님, 이것은 지나친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게 하리라고는 한번도 생각하지 않았습시다.

예수님: 호세야, 사랑이 있을 때, 이 사랑은 많은 사람들에게 과도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는, 그러나 더욱더 나를 닮게 만드는 것들을 행하게 하는 영감을 준다는 사실을 깨달아다오. 이제 평안히 가거라.

1996년 3월 3일, 콜론

예수님: 내 자비에 의탁하여라, 이미 그 죄들은 사해지고 없단다. 너는 내가 이미 너를 용서했다는 사실을 믿지 않느냐?

호세: 저를 용서하셨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죽을 때 당신께서 제 죄의 더러움을 헤아리실까봐 두렵습니다.

예수님: 애야, 나에게 의탁하여라. 그리고 이제부터 내 계명을 지켜라, 내가 너에게 넘치는 생명을 줄 것이다. 더 나아가, 나는 너를 사랑하고, 내 사랑은 시들하게 죄를 사하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씻어버린다는 것을 기억하여라. 이제 평안히 가거라.

1996년 3월 6일, 콜론

예수님: 애야, 네가 행하는 일로 나를 영광스럽게 해다오. 그리고 네가 시련을 당하도록 허락하는 것은 나의 한없는 사랑 때문이며, 네가 보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느님께서서는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주러 오셨음을 너에게 알려주기 위해서라는 것을 깨달아다오. 이제 평안히 가거라.

1996년 3월 8일, 콜론

예수님: 애야, 너 자신을 사랑하여라! 이 시간들은 *(공동 기도 시간을 말씀하신다.)* 너의 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내 나라에 들어오도록 너를 도와주리라는 것을 명심하면서, 그 시간들에 충실히 임하여라.

호세: 저를 도와주시고 더욱더 제 마음을 준비시켜 주십시오! 그 기도 시간에 대한 제 마음은 충분치가 않습니다.

예수님: 내가 너에게, 내 어머니께서 나의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어머니 위에 내려오신 그 성령께 간절히 청하라고 한 것은 바로 그 이유 때문이란다. 성령께서는, 너의 나약함에도 불구하고, 너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할 수 있는 영감을 줄 것이다. 애야...

호세: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 적어도 나와 일치해 있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의 마음, 그의 정신과 그의 영혼을 이 지상보다 나의 나라에 더 두어야한다는 것을 깨달아라. 내 사랑아, 이 경지에 도달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헛됨을 알고 밤낮으로 내 현존 안에 머무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은 하나도 없음을 알게 된단다. 이제 평안히 가거라.

1996년 3월 9일, 콜론

예수님: 애야, 그 태도가 야기시키는 것을 눈여겨 보아라! (나는 화가 나는 대로 행동했다.) 사람은 어린이들의 순진무구함을 닮고 그 천진스러움을 배울 때, 나의 가르침, 내 마음과 내 복음을 더욱더 잘 알아듣는단다. 이제 평안히 가거라.

1996년 3월 10일, 콜론

예수님: 네가 해야 할 일을 서둘러 하여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더욱 열심히 작업하여라. (이 책을 말씀하신다.)

호세: 하느님, 저는 이 공동체 안에서 살고 있고, 저에게 아주 힘든 일이 맡겨졌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 애야, 만일 네가 그 일들 안에 함께 하도록 나를 초대한다면, 네가 맡은 가장 무거운 책임도 깃털처럼 가벼워질 것이다. 사랑하는 호세야, 누구든지 나 없이 그 일을 하는 습관을 가질 때, 자신이 맡은 그 임무가 무겁게 느껴진단다. 예전에 이미 너에게 말한 것처럼, 가장 작은 일이라 하더라도, 너에게 맡겨진 모든 임무들을 수행할 때 나를 초대하여라. 이제 평안히 가거라.

1996년 3월 11일, 콜론

예수님: 왜 불평하느냐? (나는 병이 났었다.) 나와 일치해 있고 싶은 마음에 고통을 좀 달라고 네가 나에게 청하지 않았단 말이냐? 너는 내가 청한 것을 받고 있으니, 그 괴로움을 기꺼이 받아들여라.

호세: 하느님, 당신은 모든 것을 참 진지하게 받아들이십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사실이지만, 제가 견딜만한 고통을 달라고 말씀드린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애야, 내가 너의 능력은 생각지도 않고 주는 것은 아무 것도 없음을 기억하여라. 이제 평안히 가거라.

1996년 3월 12일, 콜론

예수님: 애야, 시간 좀 내어주겠느냐?

호세: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예수님: 내가 그 덕을 (신중함) 실천하고 싶다면, 너의 친구들 중 가장 훌륭한 친구인 (나와) 함께 실천하여라. 이제 평안히 가거라.

1996년 3월 13일, 콜론

예수님: 애야, 내가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을 왜 말하지 않느냐? 그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말해주지 않겠느냐?

호세: 예수님, 제가 성체성사를 살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저를 당신께서 꿈꾸셨던 그런 젊은이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것은 왜 물으십니까?

예수님: 이제부터 앞으로는, 네가 미사 중에 나를 받아 영할 때, 그때 그 소원들을 말해주기를 바라기 때문이란다. 이제 내 평화를 간직하여라.

나중에.

예수님: 만일 네가 네 안에서 그런 판단을 한다면, 그것은 아직도 네가 나를 사랑하기 시작조차 하지 않았음을 말하는 표시이다. 이 경우는, 네가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내 사랑아, 네가 인간적인 면에서 출발하여 행동할 때가 있다면, 그것은 네 마음의 왕이 아직도 내가 아니기 때문이란다. 그리고 네 마음 안에 다른 신들이 살고 있는 한, 너는 내가 너에게 주는 평화와는 아주 다른 평화를 체험하게 될 것이다. 이제 평안히 가거라.

밤에.

호세: 예수님, 피곤합니다. 당신을 기쁘게 해드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십시오.

예수님: 이 말을 들으니 얼마나 기쁜지 너는 상상도 하지 못할 것이다. 오 애야! 너의 선한 의지가 이루어지도록 내 성심이 너에게 은혜를 내려주리라는 것을 기억하여라. 이제 내 평화를 간직하여라.

1996년 3월 14일, 콜론

예수님: *애야, 이것이 너를 몹시 아프게 하느냐? (나는 한 친구의 딸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호세: 예, 예수님. 무척이요! 당신은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 *그건 좋은 것이란다. 너에게 그렇게 상처를 주는 그것은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분을 닮도록 너를 이끌어줄 테니까 말이다. 오 나의 사랑아! 분명히 말하거니와, 만일 단죄받은 봉헌된 한 영혼이, 영원한 별을 받는 곳에서 탈출한다면, 그는 그의 생애가 끝나는 날까지, 나에게 대한 사랑 때문에 모든 고통을 참아 받으려고 노력할 것이다. 이제 평안히 가거라.*

1996년 3월 30일, 콜론

예수님: *이것이 너를 몹시 아프게 하느냐? (나는 더 많은 시간동안 기도 안에 머물고 싶었으나 공동체에서 맡은 일들 때문에 그럴만한 시간이 없어 힘들어 하고 있었다.)*

호세: 예, 속에서 피가 흐릅니다.

예수님: *오 애야! 내 기쁨이 아주 크구나.*

호세: 하느님!

예수님: *그렇단다, 애야. 네가 내 현존 안에 머물러 있기를 그토록 갈망하니, 정말 기쁘단다. (나는 오랫동안 기도를 조금 등한시켰고, 일을 핑계 삼아 게을리했었다.)* 낙심하지 말아라. 지금 나는 나와 함께 머물려는 너의 원의만으로도 족하단다. 이제 가서 너 자신의 도움에 축배를 들어라.

호세: 주님, 저는 다른 사람들이 해도 되는 일들 때문에 당신과 함께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아직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예수님: *애야, 지금 이 순간에 네가 해야 할 일들을 하기 위해 기도를 멈춘다 해도, 성화의 길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란다. 내 사랑아, 네가 원하는 것이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네가 평온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다른 일들도 생길 수 있으니까, 너의 그 소망들을 다 이룰 수 없는 때가 많다는 것도 배우고 받아들여야 한단다. 그것 또한 기도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애덕 실천은 언제나 하나의 기도이다.)*

호세: 오 하느님! 이걸 허락하지 마십시오. 전 참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 내가 너에게 경험하도록 허락하는 모든 것은 너의 능력을 고려하면서, 또 네 영혼의 안식을 위해 하는 일임을 기억하여라. 애야, 이것이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것은 네 성화 과정의 일부분이다. 이것을 받아들이겠느냐 아니면 말겠느냐?

- 나는 입을 다물고 있었다.

예수님: 나는 몇 년 전부터 너의 취향 또는 네 인간적인 본성에 따라 나를 사랑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었다. 너는 나를 사랑하기 시작하되, 나의 방식대로 사랑해야 한다.

호세: 나의 주님, 당신은 너무 냉혹하십니다. 주님께서 그 불쌍한 영혼에게 허락하셨던 것을 보십시오. 그 영혼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을지, 저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한 성녀가 당했던 굴욕과 수모를 말한다.)

예수님: 만일 네가 나에 대한 참된 사랑을 이해하거나 체험한다면, 분명히 말하거니와, 지금 막 네가 한 말은 찬양으로 변할 것이다. 너는 나를 사랑하고 싶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하기 위한 것은 하나도 하지 않는다. 너는 내가 너의 길잡이가 되어주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나를 따라오지는 않는다. 너는 언제 “나를 사랑하여라”는 그 말로 살기 시작하겠느냐? 언제 내가 하라는 대로 나를 따르기 시작하겠느냐? 어느 정도까지 나를 사랑하고 싶느냐? 애야, 대답해 보아라. 병어리가 되지 말고.

- 나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예수님: 내 아이야, 너를 울게 하려고 이 말을 한 것이 아니란다. 나는 네가 내 방식에 따라 사랑하기 시작하고, 나를 기쁘게 하려면 기도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네 책임 아래에 있는 일들을 잘 수행하고, 이웃이 필요로 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도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를 바란다. 내가 아주 기뻐하는 제물은 바로 이것이란단다.

호세: 예수님, 당신은 저에게 고통을 주시는군요...

예수님: 네가 내 영의 인도를 따라가지 않고 너 자신의 힘을 믿고 갈 때, 너 또한 나를 아프게 한단다. 네가 나에게 한 약속을 기억하느냐? (내가 수도 봉헌때 했던 서원들을 말씀하신다.)

호세: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 약속은 어디로 갔느냐? 그것은 단지 소망일 뿐이었던 말이더냐? 말해 보아라. 너는 어느 정도까지 정결하기를 원하고, 가난하기를 원하고, 순명하기를 원하느냐? 입다물고 있지 말고, 말해 보아라.

호세: 예수님!

예수님: 애야, 나를 사랑하여라. 고개를 들고 나를 보아라.

호세: 왜 당신은 멀리 계십니까?

예수님: 너는 내 집에 살고 있고, 지금은 매일 나의 몸을 받아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와 나 사이에 이만큼의 거리가 있기 때문이란다.

호세: 예수님, 슬프군요.

예수님: 너는 나를 보고 있으니 이 거리를 그렇게 슬퍼해서는 안된다. 만일 네가 나를 보지 못한다면, 그때는 네가 슬퍼할 뿐 아니라, 근심도 해야 할 것이다. 오 나의 사랑아! 네 육신의 욕망을 따라가면 갈수록, 너는 그만큼 나로부터 멀리 있게 됨을 깨닫도록 하여라.

호세: 아무 도움도 없이 혼자인 것 같습니다. 저를 도와 주십시오!

예수님: 그러면, 네 하느님의 이끄심에 따라 가거라. 이제 평안히 가거라.

1996년 3월 31일, 콜론

1996 년 4 월, 콜론

- 3 월 26 일, 나는 예수 마리아 성심의 자비 형제회 안에서 <거룩한 사랑의 다윗 프란치스코 (David Francisco de Santo Amor)> 라는 수도명을 받았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서는 나를 <다윗>이라 부르기 시작하셨다.

아침에.

예수님: 애야, 내가 여기 있단다. 나에게 네 마음의 문을 열어다오. 그리고 내 평화를 간직하여라.

다윗: 오 나의 하느님! 문은 항상 열려 있어서 다시 열 필요가 없는데, 그 문들이 닫혀있기라도 했었습니까?

예수님: 분명히 열려 있었단다. 내 방식이 아니라 네 식으로 말이다. 만일 네가, 나의 사랑아, 사랑때문에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너를 슬프게 하는 모든 행위들을 큰 기쁨으로 받아들일 마음을 갖는다면, 그때 너는 네 마음의 문들만 아니라 창문들까지도 열어둘 것이다. 애야, 내가 침묵하고 있었던 이 모든 시기는, 내가 나를 잊지 않고 나와 함께 하면서 행동하도록, 내가 너와 더 가까이 있었던 때임을 알아두어라.

다윗: 나의 하느님, 이 시간 동안 저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당신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당신 없이 저는 정말 아무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애야, 네가 소중히 여기는 영혼들 때문에 떨시당하고 이해받지 못할 때, 그때 너는 더욱더 나와 같아지는 법을 배우게 됨을 깨닫기를 바란다.

다윗: 예수님, 제 상처들을 낫게 해주십시오. 제가 조금만 더 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그러마, 애야, 내가 너의 상처들을 낫게 해주고, 나의 사랑으로 모든 폭풍우를 견딜 수 있도록 너를 도와주겠다. 내 사랑아...

다윗: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련들을 사랑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이 우리를 더욱 일치시켜준다는 것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기 시작했느냐? 너를 구원하기 위해 내가 당했던 떨시와 물이해가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상상할 수 있겠느냐? 만일 네가 이 모든 것을

꼼꼼히 새긴다면,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악한 결과를 맺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다윗: 예수님!...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중간에 끊었다.)

예수님: 왜 놀라느냐? 나는 네가 이런 단식을 하기를 원한다. 다시 말해, 기뻐하여라, 네가 기뻐하면 할수록 너는 나에게 더 많은 기쁨을 주게 될 것이다. 이제 너를 향한 무한한 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평안히 가거라.

1996년 4월 첫째 날, 콜론

예수님: 애야, 네가 나를 거슬러 범한 죄와 잘못들을 기억할 때, 낙심하지 말아라. 오히려, 다시는 잘못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나에게 네 영혼을 위한 자비를 청하여라. 이 자비는 언제나 너를 위해 움직일 것이다. 이제 평안히 가거라.

1996년 4월 2일, 콜론

아침에.

예수님: 만일 네가, 너의 성화를 위해 내가 시도하는 것들을 잊지 않았더라면, 너는 너의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일들을 평온한 마음으로 받아들였으련만. (욕탕 청소와 설거지를 말씀하신다.) 오 나의 사랑아! 네가 하는 잘못이 많으면 많을수록, 너에게는 사랑해야 할 이유도 많아진단다. 이제 평안히 가거라.

1996년 4월 3일, 콜론

예수님: 그 잘못들에 유의하여 힘들다 하더라도 유순하고, 겸손하고, 순종적인 사람이 되어라. 그렇게 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이란다. 이제 평안히 가거라.

새벽에.

예수님: 너의 그 피곤함을 나에게 다오.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쉴 수 있도록 말이다.

다윗: 하느님, 저에게 당신의 힘을 주십시오.

예수님: 오 나의 사랑아! 나는 너에게 그것도 주고, 더 많은 것도 주고 싶어한다는 것을 깨달아다오. 이제 평안히 가거라.

1996년 4월 5일, 콜론

예수님: 애야, 넌 알고 있느냐?

다윗: 주님, 말씀하십시오.

예수님: 사랑으로 그 일을 함으로써 나를 영광스럽게 해다오. (세차를 말씀하신다.) 이제 평안히 가거라.

1996년 4월 6일, 콜론

예수님: 애야, 결코 너에게서 내 은총이 떠나지 않게 하고, 네 믿음을 증가시켜 달라고 나에게 청하여라. 그리고 너를 측은히 여겨달라고 나에게 청하여라. 이제 평안히 가거라.

1996년 4월 16일, 콜론

다윗: 예수님, 그 젊은이처럼, 저도 정결하고, 고행적이고, 관대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저는 당신이 저를 매우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아주 행복합니다. 저에 대한 바로 그 사랑 때문에 저를 가없이 여기시고, 제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달라고 당신께 청합니다.

예수님: 애야, 네가 이웃들을 더욱 선하게, 더욱 마음 넓게, 더욱 관대하게 대하는 것을 볼 수 있다면, 나 또한 더 큰 행복을 느낄 것이다. 이제 평안히 가거라.

나중에.

예수님: 애야, 너는 여기 이 땅에서 멸시와 괴로움, 무관심을 통해서 네 자신이 정화되는 것과 연옥에서 더 긴 시간을 보내는 것, 둘 중 어느 것을 택하겠느냐?

다윗: 하느님, 저는 이 땅에서 정화되는 것을 택하겠습니다.

예수님: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너를 알아주지 않고, 더더구나, 네가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너에게 무심한 태도를 보일 때, 그것을 아주 평온하게 받아들여라. 이제 평안히 가거라.

1996년 4월 18일, 콜론

1996 년 5 월, 콜론

다윗: 하느님, 만일에 제가 거룩한 사제가 되지 못한다면, 당신이 원하시는 것처럼, 이웃을 선으로 대하고, 봉사하고, 이해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그렇게 될 것이다. 이제 평안히 가거라.

1996 년 5 월 6 일

다윗: 나의 주님, 당신께서 원하시는 대로요 제가 되도록 도와주시겠습니까?

예수님: 그렇단다, 애야. 네가 나를 닮도록, 그리고 아무리 힘든 것이라 하더라도 내 뜻을 받아들이도록 도와줄 것이다. 그러나 너의 성화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져가는 과정이며, 오늘 아니면 내일로 미룰 수 있는,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명심하여라. 네가 내 마음에 드는 것을 행하려고 노력하는 만큼, 내 사랑아, 내 은총이 네 온 존재를 감쌀 것이다. 오 애야! 네가 정결한 사람이 되어 내 마음을 사로잡아주기를 내가 얼마나 바라고 있는지 네가 상상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내가 사랑하는 것을 너도 행하고 사랑하기로 결심한다면, 너의 삶에 대한 나의 개입을 더욱 분명하게 이해하고, 내가 너를 그토록 사랑하는 이유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제 평안히 가거라.

나중에.

예수님: 애야, 이 길에서 내가 너에게 정험하게 해줄 성공은, 네가 네 주변의 사람들에게서 칭송받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을 버리고 내어주라고 하는 것이다.

다윗 : 오 예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그래,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이제 평안히 가거라.

1996 년 5 월 10 일, 콜론

예수님: 나는 네가 하고 있는 이 일들을 네 자신의 성화를 위한 단순한 수단으로 생각하기 바란다. 성화는 위대한 일들을 하는데 있지 않고, 오히려, 가장 단순한 일들을 사랑으로 행하는데 바탕을 두고 있단다. 애야...

다윗: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늘 너에게 슬픈 현실 하나를 보여주고 싶단다.

- 그 순간에 예수님은 비가 쏟아지듯 지옥의 나라에 떨어지는 많은 영혼들을 보여주셨는데, 그 수가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불에도 타지 않는 인간 석탄들 같아 보이는 남자, 여자, 젊은이들이었는데, 그것에서 받는 인상은 견딜 수가 없었다. 어떤 영혼들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 내가 다시 살아날 수만 있다면! 이라고 하면서, 소리지르고 탄식하고 있었다. 어떤 영혼들은 저주하고, 신성을 모독하고 있었다. 그곳의 불꽃은 꺼지지 않는 것 같았다.

다윗: 예수님! 당신은 아무 것도 할 수 없으십니까? 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으십니까?

예수님: 오 애야! 그 영혼들이 그 나라에 떨어지지 않도록 이미 수많은 일을 하지 않았더니! 그들의 생활 태도를 바꾸라고 수없이 많은 주의도 주지 않았더니! 오 다윗아! 전적으로 나에게 귀의하라고 수많은 기회를 그들에게 주지 않았더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아무 것도 없단다. 내게 남아 있는 것은 오로지 내가 미워하는 것을 미워하지 않는 사람들과 자신의 욕망에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고통에 대해, 너와 세상 사람들에게 끈덕지게 알려주는 것 뿐이란단다.

다윗: 그 영혼들은 죽을 죄를 많이 지었습니까? 내적인 판단을 했었습니까?

예수님: 그런 잘못도 범했고 더 많은 잘못들도 범했단다. 다윗아...

다윗: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 내가 너에게 이 모습을 보여준 것은, 네가 미지근한 태도에 대한 대가는 무엇이며, 죄값은 무엇인지 깨달으라고 보여준 것이란다. 그러나 그보다는, 내가 사랑하는 것을 너도 사랑하고, 내가 미워하는 것을 너도 미워하도록 노력하라고 보여주었던단다. 이제 나를 사랑하여라. 그리고 평안히 가거라.

1996년 5월 15일, 콜론

예수님: 그 성인들은, 내 사랑아,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이었고, 어떤 성인들은 너와 똑같은 나약함을 지닌 사람들이었던단다. 그러나 그들은 내가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고 내가 미워하는 것을 미워하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란다. 더구나, 그들이 지니고 있었던 덕들은 나의 은총과 내 어머니의 도움 없이는 쌓을 수 없는 것들이었던단다. 너는 우리의 도움 없이 어디에 도달할 수 있겠느냐? 나 없이, 애야, 너는 아무 것도 아니란다.

다윗: 오 하느님! 당신의 도움 없이 저는 아무 것도 아닙니다. 제 곁에 계셔주십시오. 그리고 생각으로라도 당신과 멀어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그러마, 애야. 그렇게 될 것이다. 이제 평안히 가거라.

1996년 5월 20일, 콜론

예수님: 애야, 낙심하지 말아라. (나는 예수님께 충실하지 못했고 나의 형제들도 인내롭게 대하지 못했음을 괴로워하고 있었다.) 내가 예전에 말한 것처럼, 끊임없이 노력하고, 너의 힘이 다하거든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는 나의 힘을 사용하여라.

다윗: 주님, 그러나... (주님이 가로 막으셨다.)

예수님: 다윗아, 내 사랑아,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네가 항구하고 끈기있게 끊임없이 나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란다. 나는 내 어머니와 함께, 너를 위해 일할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다. 이제 평안히 가거라.

1996년 5월 21일, 콜론

다윗: 오 하느님! 저는 더욱 비참해지고, 전에 했던 착한 일들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우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 그렇다 하더라도 내 마음은 너를 사랑하고,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영원히 내 성심 안에 피신하라고 너를 초대할 것이다. 그 마음 안에서, 애야, 너는 너의 모든 결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만날 것이고, 또 분명히 말하거니와, 네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오직 나, 너의 하느님만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으니까 말이다.

다윗: 예수님, 사랑하되 사랑받기를 원하지 않도록 제발 저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그래, 애야. 사랑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러나 네가 사랑받지 못하고, 이해받지 못하고, 위로도 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너는 내 성심에게 달려오거나 아니면 너 자신의 성화, 또는 네가 범한 잘못들을 용서받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하기 위해, 너의 그 상태를 나에게 봉헌할 수 있겠느냐?

다윗: 예, 예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 이제, 애야, 평안히 가거라.

1996년 5월 22일, 콜론

다윗: 예수님, 저는 성인이 되고 싶고 제 영혼이 구원받고 싶기 때문에, 사랑받기 전에 사랑하고, 섬김을 받기 전에 섬기고, 화를 내는 대신에 침묵을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 결심을 온전하게 실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무엇보다도 제가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제 안에 살아계신 당신의 현존을 드러낼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애야, 내 도움이 필요할 때는 언제나, 가장 가볍고 무의미한 일을 하기 위해서라 하더라도, 네가 있는 곳에 나도 함께 있을 것이다. 네가 인내롭고 끈기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내가 원하는 유일한 것이란다. 그것은 특별하게 어떤 날만 실천에 옮겨야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실천해야 하는 것이란다. 이제 평안히 가거라.

나중에.

다윗: 예수님, 시간 좀 주시겠습니까?

예수님: 그래, 그렇게 하자. 그런데 무슨 일이 있느냐?

다윗: 예수님, 큰 부탁이 있는데요.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수님: 말해 보아라.

다윗: 제 존재가 사랑, 정결, 섬김, 친절의 원천이 되게 해주시고, 당신께 드리는 봉헌의 샘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그래, 애야, 네가 그렇게 되도록 나는 항상 너에게 나의 영을 보내주었다. 이제는 네가 내 부탁 하나를 들어다오.

다윗: 제가요, 예수님!

예수님: 그래, 너란다, 애야.

다윗: 좋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 온 힘을 다하여 내가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고, 내가 미워하는 것을 미워하도록 노력하여라. 나머지는 내가 책임질 것이란다. 이제 평안히 가거라.

1996년 5월 25일, 콜론

예수님: 애야, 실망하지 말아라. 그 시련 중에서도 나는 네가 인내심을 훈련하고, 견고함을 유지하기를 바란다. 다시 말해, 너의 하느님께 의탁하면서 말이다.

다윗: 그러나, 하느님... (예수님께서 내 말을 끊으셨다.)

예수님: 내가 너의 곁에 있단다, 의심하지 말아라. 그리고 네가 나를 느끼지 못하는 때가 많다 하더라도, 그 때는 내가 너의 영혼과 더욱 깊게 일치해 있는 때란다. 더구나, 네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시련은 너를 성화시키고, 내 안에서 행하도록 도와 줄 것이다. 오 나의 영혼아! 내가 너에게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은총을 주었으니, 그 힘이 아무리 세다 하더라도, 그 어떤 것도 너를 지배하지 못하리라는 것을 깨달아다오. 이제, 나에게 의탁하고, 나를 사랑하여라. 그리고 평안히 가거라.

1996년 5월 27일, 콜론

1996 년 6 월, 콜론

예수님: 그래, 애야, 너를 성화시키고 정화시키는데 도움되는 것은 아무 것도 무시하지 말아라. 나는 네가 나를 본받기를 바란다. 따지지 말고 무조건적으로 네 들레의 사람들을 섬기고 결국에는 모든 상황, 아무리 단순한 것이라도, 사랑으로 행한 모든 일은 공로가 있음을 명심하여라. 넌 알고 있느냐?

다윗: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 네가 할 수 있었는데도 하지 않은 것들이 있었음을 깨닫게 되면, 너는 양심의 가책을 많이 받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너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을 행하고, 또 네 이웃의 결점들을 나에 대한 사랑으로 평온하게 받아들임으로써 나를 기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바로 그 이유 때문이란단다. 이제 평안히 가거라.

1996 년 6 월 2 일, 콜론

예수님: 애야, 낙심하지 말고 실망은 더더구나 하지 말아라. *(나는 예수님을 위해 많은 것을 하고 싶다는 내 욕심 때문에 몹시 초조함을 느끼고 있었다.)* 네가 해야 할 일들을 제때에 하고, 내가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거나 또는 행하려고 노력하고, 내가 미워하는 것을 너도 미워하려고 노력한다면, 너는 이미 나에게 기쁨을 주기 시작한 것이란다.

다윗: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 우리 의견에 일치를 보아야겠구나. 어떻게 생각하느냐?

다윗: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 너에게 이미 말한 것부터 시작해 보자. 그러면 너는, 내가 네 안에서 보기를 원하는 다른 모든 것들은 덤으로 받게 되리라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제 평안히 가거라. 그리고 모든 것 위에 나를 사랑하여라.

1996 년 6 월 4 일, 콜론

다윗: 오 예수님, 제가 얼마나 많은 잘못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그러나 애야, 누가 너를 비난하더냐? 나는 너의 불충실함을 잊어버렸는데, 너는 그 사실을 잊었던 말이나?

다윗: 그러나, 하느님, 제가 지금 막 읽은 책에서 말하기를, 당신은 모든 악행을 심판하시거나 그에 대한 셈을 요구하실 것이라 합니다. 그리고 만일에 제가 죽는다면, 당신께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당신 앞에 섰을 때, 아직도 생각날 때마다 슬퍼지는 잘못들에 대해 제가 어떻게 변명하겠습니까? 이 잘못들 때문에 그렇게 공포스러운 곳으로 가지 않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지옥을 말한다.) 저는 나약합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애야, 내 평화를 간직하여라. 네가 읽은 그 책이 너를 그렇게 떨게 만들었다면, 그것은 너에게 겁을 주려고 그런 것이 아니란다. 곧바로 너는 네 삶을 지금 상태보다 더 낮게 변화시킬 수 있고, 그렇게까지 너의 잘못들이나 불충실함 때문이 아니라, 너 자신을 정화하고, 지옥을 믿지 않고 또 사랑 안에서 심판받게 될 그날을 믿지 않는 영혼들이 범한 많은 허물들을 속죄하기 위해, 너는 지금까지 네가 개선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개선할 수 있단다. 자비심이 없는 영혼에게는 정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으니 말이다.

다윗: 예수님, 저는 아직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아직도 제 자신을 구원할 수 있고, 다른 많은 사람들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오 예수님! 왜 말씀을 안 하십니까? 오 하느님! 왜 웃으십니까?

예수님: 너에게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어서 기뻐서 그렇단다. 아직도 너와 네 들레의 사람들은 구원 받을 수 있단다. 애야, 여기에 주목하여라.

다윗: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 내가 내 어머니와 깊은 친교를 맺고 있다면, 고백성사와 성체성사에 자주 참여한다면, 적어도 나를 위해 그리고 나와 내 어머니에 대한 사랑 때문에 많이 사랑하려고 노력한다면, 악행과 악한 생각을 멀리하고 내가 사랑하는 것을 사랑한다면, 분명히 말하거니와, 심판의 날에, 너는 나의 자비와 내 어머니의 한없이 자애로운 사랑의 도움을 받을 것이다.

다윗: 저는 하늘나라에 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행하고 나의 영에 따라 산다면, 분명히 너는 네 하느님의 나라를 상속 받을 것이다. 그러나 육신에 씨를 뿌린다면, 그때는 너는 부패와 죽음을 거두게 될 것이다. 이제 내 평화를 간직하여라.

1996년 6월 7일, 콜론

다윗: 오 예수님! 저는 참으로 불쌍하고, 불순한 지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 애야, 내가 너를 거룩한 산 제물로 만들기를 원하는 것 때문에 그런다면 낙심하지 말고 더욱 노력하여라! 내가 네 안에 깨끗한 마음을 불어넣어 주겠다.

다윗: 저는 너무나 나약합니다.

예수님: 나는 너의 나약함 안에서 내 권능을 떨칠 것이다. 용기를 내어라! 실망하지 말아라.

다윗: 주님, 주님은 제가 범한 잘못들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으십니까?

예수님: 애야, 너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잊었느냐? 자기 자식이 어머니를 가장 필요로 하고 있을 때, 그 자식을 못 본척하는 어머니도 있다더냐? 나는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겨두고 있단다. 이제 평안히 가거라.

1997년 6월 10일, 콜론

예수님: 애야, 나에게 아주 필요한 그 젊은이들에게 네가 말해주면 좋겠구나, 내가 그들을 위한 매우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이다.

다윗: 예수님,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제가 그들에게 그 말씀을 전할 때, 저와 함께 계셔주십시오.

예수님: 애야, 그렇게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제 평안히 가거라.

1996년 6월 11일, 콜론

새벽에.

예수님: 애야, 일어나거라, 나와 함께 기도하자. (그 순간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입고 성당에 갔다.)

다윗: 예수님, 졸린데요, 자러 가야겠습니다. (나는 성당에서 이 말씀을 드렸다.)

예수님: 조금만 더 머물러다오, 그리고 너의 잠을 나에게 바쳐라.

다윗: 예수님, 제 잠을 받으십시오. (예수님은 밤시간에 당신과 함께 하는 것을 목말라하고 계시는 것 같았다. 나는 15 분만 예수님과 함께 있으려고 생각했다가 한 시간 반동안 함께 머물렀다.)

예수님: 고맙다, 애야,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한다. 이제 평안히 가거라.

1996년 6월 12일, 콜론

예수님: 애야, 내 평화를 간직하여라.

다윗: 주님, 저는 너무 화가 납니다!

예수님: 내 평화를 간직하여라. 그 화가 다음 날까지 가지 않게 하여라. 나는 네가 나를 기쁘게 해주기를 바란다. 사람들이 어떤 수고를 해달라고 너를 부를 때만 아니라, 관대하고 무조건적으로 봉사할 때에도 나를 기쁘게 해주기를 바란다.

다윗: 오 하느님!

예수님: 이제 평안히 가거라.

1996년 6월 18일, 콜론

예수님: 애야, 너의 수호천사가 초대하는 모든 것, 영감을 주는 모든 것에 유의하여라. 그러면 그가 어디서 오는지 알게 될 것이다.

다윗: 오 하느님! 제 수호천사를 무시하는 것이 얼마나 마음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당신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당신의 길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것도 저에게는 얼마나 큰 고통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내 사랑아, 만일 네가 체험하는 그 고통으로 인해 너의 천사에게 순종한다면, 광포한 유혹이 너를 내리친다 하더라도, 네 천사가 너의 발걸음을 아주 잘 지켜주리라는 것을 온전히 믿어도 된단다. 애야, 이 길동무가 갖고 있는 유일한 목적은 너를 지켜주고, 그들의 본성상 그들은 실행하기 어렵지만, 그러나 그것이 나를 기쁘게 하는 일임은 잘 알고 있는 것을 네가 행할 수 있도록, 너에게 영감을 불어 넣어주는 것이란다.

다윗: 예수님,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 애야, 너는 이 은총을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친구로도 대신할 수 없는 보화로 받아들여라. 아무리 훌륭한 친구라 하더라도, 그것은 인간 본성에 따른 것이며, 오늘은 너와 함께 있다가도 내일은 너의 가장 큰 적이 될 수도 있는 것이란다.

다윗: 예수님, 제 수호 천사를 사랑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하겠습니다.

예수님: 네가 하는 말을 들으니 얼마나 기쁘는지, 너는 상상도 하지 못할 것이다.

다윗: 예수님, 이 감미로운 길동무에 대해 계속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 감미로운 길동무는 어떤 불순함도, 불완전함도, 결점들도 지니지 않은 피조물이란다. 그는 인간을 인도하고 보호할 사명을 지닌 천상의 피조물이며, 악마의 군대가 그의 수호를 거슬러 공격한다 해도, 그는 그 전투를 무사히 피하도록 그가 지켜주는 사람의 방패와 도움이 되어준다. 애야 호세야, 매우 천상적인 이 길동무는 완전한 존재, 모든 덕의 모범인 그들을 어떻게 하면 닮을 수 있는지, 사람들에게 그 비밀을 쉴 새 없이 알려준다. 이제 평안히 가거라.

1996년 6월 30일, 콜론

1996 년 7 월, 콜론

다윗: 오 예수님! 말씀 좀 하십시오, 언제까지 침묵하시렵니까?

예수님: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했으면 좋겠느냐?

다윗: 예수님, 저는 너무나 나약하고 부서지기 쉬워서, 당신이 싫어하시는 것들에 쉽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당신께 대한 제 사랑을 증가시켜 달라고 청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그러면 나는, 네가 온 힘을 다해 나를 기쁘게 하는 것들을 행하도록 노력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더욱더 나를 잊지 말고, 나처럼 되도록 내가 너에게 제공하는 수단들을 아주 평온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를 바란다.

다윗: 오 하느님! 저에게 당신의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는데 필요한 것을 주십시오.

예수님: 애야, 내 몸인 빵과 내 피인 포도주를 네가 받아먹는 그 순간에, 나의 힘을 너에게 주지 않았고, 네가 필요로 하는 것을 주지 않았단 말이더냐?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거기에 있단다. 더구나, 너는 그 어느 때보다 더욱더 나를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한단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분명히 말하거니와, 나를 상처입게 하는 일은 피할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은 화낼 줄을 모르기 때문이란다.

다윗: 예수님, 저에게 원하시는 대로 제가 당신을 사랑하도록 가르쳐주십시오.

예수님: 그러면, 내가 기뻐하지 않는 것을 하게 만드는 악한 생각, 너무나 인간적인 행동과 지향들을 멀리하여라. 오 애야! 오 내 영혼의 사랑아! 사랑하고, 기도하고, 봉헌된 자로서, 내 안에서 살기보다도 네 자신 안에서 살게 만드는 그 행동들, 그 생각과 태도를 고치고 내 성심 안에 더욱 깊이 들어오너라.

다윗: 하느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그래, 애야, 너를 도와주겠다, 나도 네가 나를 도와주기를 바라는 것처럼 말이다.

다윗: 제가 어떻게 당신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 세상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박혀라. 다시 말해, 나만을 소유하고, 다른 모든 것은 하찮은 것으로 여겨라. 나머지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질 것이다. 이제 평안히 가거라.

1996년 7월 5일, 콜론

예수님: 네가 나에게 와서 네 마음을 바칠 때 나는 참 기쁘단다.

다윗: 오 예수님! 제 마음을 받으시고, 겸손하고, 인내롭고, 무엇보다 깨끗한 마음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예수님: 애야...

다윗: 말씀하십시오, 예수님.

예수님: 네 마음을 내가 말한 그대로 만들어주겠다. 그러려면 너는 더 많이 기도하고, 온전히 나의 것이 될 만큼, 다시 말해, 이해심을 가지고, 친절하고, 섬기고, 희생하여라.

다윗: 부탁드립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그래, 내가 도와줄 것이다. 이제 평안히 가거라.

1996년 7월 9일, 콜론

다윗: 예수님, 제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한테서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님: 애야, 나에게 충실하여라. 네가 나에게 충실한다면, 너는 내외적으로 성장하여 내가 기뻐하는 일들을 더 많이 하게 될 것이다. 마음이 약해지고 나의 일들에 대해 민감해질 때, 너는 하느님이 커지시도록 작아져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지혜와 식별력을 얻을 수 있게 된단다.

다윗: 예수님, 저는 확실히 제 나약함이나 의지 부족 때문에 쉽게 죄로 기울어집니다. 저를 도와 주십시오!

예수님: 오 다윗아! 나는 너를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는데, 너는 나에게 대항할 준비가 되어 있단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너를 도와줄 수 있겠느냐? 네가 노력하고 또 노력한다면, 너의 나약함에 네가 막 넘어지려하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네가 하고 있는 그 노력을 알고 있으면서도 내가 너를 구하지 않고 그냥 두리라고 생각하느냐?

다윗: 아닙니다, 그렇게는 못하실 것입니다.

예수님: 그러면, 내 곁에서 나와 함께 걸어라.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내 발자국을 따라가거라.

다윗: 주님, 당신의 발자국을 따라 걸으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내 영의 인도를 받아 행하라는 말이란다. 내가 성령 안에서 걷는다면, 이 영은, 그에게 너 자신을 여는 정도에 따라, 너를 살라버리고 태워버리는 불처럼 너에게 불을 지필 것이므로, 네가 다시 냉랭한 마음을 갖기란 매우 어려울 것이다. 성인들의 생애를 잘 살펴보면, 이 사람들은 모두 성령의 활동을 통해 나와 너무나 깊게 일치해 있었음을 알 수 있단다.

다윗: 예수님, 저도 당신의 성령 안에서 움직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 기도를 통해 너 자신을 성령께 열어라. 다시 말해, 더욱더 성령께 간구하고 함께 해주시기를 갈망할 때, 성령께서는 나와 하나가 되기 위해 오시고, 너를 내 안에 용해시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깨달을 수 있는 빛을 주실 것이다.

다윗: 오 주님! 당신의 생각을 저에게 표현하실 때, 저는 그럴만한 자격도 없으며, 그리고 언젠가는 당신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그만 둘 수도 있으시다는 생각에 두려워합니다.

예수님: 애야, 다윗아, 나는 너에게 말하는 것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네 주변을 살펴보아라., 이 모든 피조물들이 나를 말하고 있단다. 내 손으로 만든 작품인 자연을 관찰해 보아라, 공중을 나는 새들,形形色색의 아름다운 꽃들,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나를 말해 준단다. 네가 해야 할 일은, 이 피조물 앞에서 내가 너에게 말하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물어보는 것이란다. 예를 들면, 풀잎과 나뭇잎들 위에 아침 이슬이 내릴 때나 또는 태양이 지는 것을 바라볼 때, 하느님은 이것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 하고 말이다. (예수님은 내가 아름다운 경치를 보고 있을 때 이 말씀을 하셨다.)

다윗: 저는 예수님께서 저와 제 비참함에 지쳐서 말씀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예수님: 다윗아, 너는 누구와 친교를 맺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너에게는 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 너의 비참함도 알고 있으면서, 어떻게 내가 싫증을 느껴 너에게 말도 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너는 참 그렇구나! 그런 일은 감각이 무딘 하느님만 할 수 있단다.

다윗: 오 하느님,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 그러지 말아라, 애야, 슬퍼하지 말아라. 나는 네가 진실을 볼 수 있게 하려고 이 말을 한 것이니까 말이다. 더구나,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에 대한 내 사랑은 화낼 줄도 모르고, 너에게 해를 끼치지도 않을 것이다.

다윗: 예수님, 제 부탁 하나 들어주시겠습니까?

예수님: 말해 보아라.

다윗: 저에게 말씀 하시지 않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말하자면, 당신과 대화하기 위해, 오랫동안 저를 부르지 않고 가만 계시지 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내 사랑아, 네가 먼저 나를 부르기도 하겠다는 약속을 하면, 네가 말한 대로 하겠다. 나도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도 완전한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기 위해 너와 함께 이야기하고 싶으니까 말이다.

다윗: 예수님, 그 약속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예수님: 그러면, 네가 가는 곳에는 나도 함께 동행함을 잊지 말고, 평안히 가거라.

1996년 7월 10일, 콜론

예수님: 나는 하늘에서 내려 온 살아있는 빵이다. 나는 너에게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게 할 것이다.

다윗: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님: 애야, 왜 놀라느냐?

다윗: 저한테서 어떻게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올 수 있습니까? 더구나, 저는 그 말씀의 뜻도 모르겠는데요.

예수님: 오 애야! 내 안에 항구하게 머물러라. 나는 네가 매일같이 너 자신을 버리고 나를 믿고 또 내가 너에게 밝혀주는 것을 믿기를 원한다. 그것은 한 영혼이 나와 일치하거나 결합하면, 더 이상 예전과 같이 살 수 없게 되기 때문이란다. 다시 말해, 나의 존재는 그 영혼을, 나의 거처로 삼기까지 온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버리기 때문에 자신의 본성에 뿌리를 두고 살 수 없다는 말이란다. 나는 그 처소에서 빛과 평화, 넘치는 은총이 샘솟게 할 것이다. 나의 사랑아.

다윗: 듣고 있습니다, 하느님.

예수님: 내 계명을 지키면서, 나를 믿고 나에게 의탁하는 사람은 마르지 않는 선의 샘물이란다.

다윗: 하느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당신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은총, 적어도 당신께 의탁하도록 노력할 수 있는 은총만이라도 주십시오.

예수님: 사랑하는 다윗아, 이것은 나보다는 네 손에 달린 문제란다. 나의 은총이나 나의 도움은, 네가 필요한 양 만큼의 물이 나오도록 하기 위해 꼭지를 틀어야 하는 수도물과 같단다.

다윗: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예수님: 살아계신 하느님의 손에 너를 맡기고, 너 자신을 나에게 더 많이 열라는 말이란다. 이제 평안히 가거라.

1996년 7월 11일, 콜론

예수님: 애야, 불안해하지 말아라. 오히려, 그것은 너의 성소나 너 자신을 나에게 봉헌하려는 결정을 강화시키는데 꼭 필요한 것임을 깨달아라. *(내가 떠나온 삶으로 되돌아가려는 유혹을 말씀하신다.)*

다윗: 예수님, 아직도 저는 세상에 매력을 느끼고 있습니다. 전에는 이렇지 않았는데요.

예수님: 예전에는 네가 이 세상에 있었고, 지금은 나와 함께 있기 때문이란다. 네가 나와 함께 하는 동안, 너의 원수는 끊임없이, 지금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아직도 그렇게 나를 사랑하고 있지 않았을 때 네가 주로 했던 일들을 너에게 상기시켜 주면서, 그 일들을 하고 싶은 유혹을 느끼게 할 것이다.

다윗: 예수님, 제가 당신을 사랑합니까?

예수님: 네가 그 순간에 나를 떠나지 않았다면, *(내가 겪었던 힘든 시련 하나를 말씀하신다.)* 애야, 그것은 나에게 충실하려고 한 때문이었고, 충실한 것은 사랑하기 때문이란다.

다윗: 오 하느님!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당신을 더욱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그러면 이 훈련을 하여라. 내가 네 안에서 활동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행위들과 지향들을 삼가는 것이다. 이제 평안히 가거라. 그리고 나를 잊지 말고 더 많이 생각하여라.

1996년 7월 12일, 콜론

예수님: 네가 그렇게 행동한다면, (나는 어떤 일을 애써했지만 아무도 그것을 알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씁쓸해 하고 있었다.) 그것은 네가 다른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싶어하기 때문이란단다. 나는 네가 하게 될 모든 일들을, 아무리 무의미한 것이라 하더라도, 나의 관심을 기대하고,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 하기를 바란다. 그렇게 하면 너는 나에게 제물 하나를 바치는 것이 되니까 말이다. 이제 평안히 가거라.

1996년 7월 14일, 콜론

밤에.

예수님: 애야, 너는 너의 인간 본성 안에 얼마나 간혀 있는지 알고 있느냐? 자유로운 존재는 네가 행동한 것처럼 하지도 않고, 더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는단다. (나는 뜻밖의 사건 때문에 인내심을 잃고 나 자신에 대해 많은 판단을 하고 있었다.)

다윗: 주님, 도와주십시오. 저는 너무나 불쌍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애야, 다윗아, 네가 나한테 여는 정도만큼 나도 너를 도와주겠다. 다시 말해, 네가 나를 부르지 않는다면, 나는 그 거대하고 파괴적인 야수로부터 (분노를 말씀하신다.) 너를 구하려고 너에게 귀를 기울일 수가 없단다.

다윗: 예수님, 어떻게 하면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까?

예수님: 내 사랑아, 나처럼 행하고 생각하면서란다. 더구나, 나는 길이며, 진리며, 생명이고, 진리만이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것을 기억하여라. 진리를 사랑하여라, 진리를 찾아라, 진리와 더불어 행하여라. 이 진리가 인간적인 무거운 사슬에서 너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제 평안히 가거라

1996년 7월 15일, 콜론

예수님: 애야.

다윗: 말씀하십시오, 예수님.

예수님: 너는 왜 내가 너에게 허락한 그 상태를 견디지 못하느냐? (나는 병이 나서 침대에 누워있었다.) 너는 왜 그 정도도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은총 하나를 주겠는데, 네 옆을 보아라.

다윗: 하느님 맙소사! 저 사람은 누구입니까? (내 옆에 소름끼치는 모습을 한 사람 하나가 있는 것을 보았다.)

예수님: 가장 깊은 연옥에 있는 영혼이란다. 그 영혼이 무엇 때문에 그곳에 갔는지 알고 싶으냐?

다윗: 알 필요가 있습니까?

예수님: 그래,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단다.

다윗: 왜 거기에 갔습니까?

예수님: 악습, 무관심, 애덕 부족,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그 영혼의 둘레에 있는 다른 사람들, 특히 그를 필요로 하고 있던 영혼들에게 베풀어 주었어야 할 자비심이 부족했기 때문이란다.

다윗: 예수님, 제발,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나는 너무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예수님: 아니다, 애야, 아직 충분하지 않단다. 나는 그 영혼들에게는 없지만 너는 갖고 있는 큰 이점 하나를 알려주고 싶단다. (예수님께서서는 그 영혼에게 그 이점이 무엇인지 나에게 말해주라고 명하셨다.)

연옥 영혼: 우리, 여기 있는 영혼들은, 하느님께 대한 충실함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을 행할 수도 없고, 건강이 나빠져서 고통을 받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그 괴로움을 하느님께 드릴 수도 없고, 우리의 형제 또는 외국인 형제가 우리를 필요로 할 때 하느님께 대한 사랑으로 우리 자신을 희생할 수도 없고, 더더구나 당신이 자주 참석하는 잔치, 곧 성체성사 (미사) 에 참석할 수도 없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다윗: 다윗 프란치스코.

연옥 영혼: 이곳은 큰 고통과 슬픔입니다. 하느님께서 제가 하느님을 향해 더욱더 마음을 열고 충실하기를 기다리고 계실 때, 저는 제 온 생애를 절제 없이 살았습니다. 하느님께 마음을 여는 것과 충실함을 보여드리는 행실을 통해

하느님을 사랑하십시오. 이것은 제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은 오로지, 하느님을 위해 훨씬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던 그 순간들을 떠올리는 극심한 고통을 겪는 것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 당신에게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다윗: 이름이 뭐예요? (그 영혼은 예수님께 자신의 이름을 말해도 되는지 물어보았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래도 좋다고 대답하셨다.) 당신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주면 좋겠어요?

연옥 영혼: (그는 나에게 자신의 이름을 말했다.) 당신은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지존하신 우리 하느님께서 허락만 하신다면, 저는 당신에게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다윗: 물론이죠, 하느님께서 허락하실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예수님: 그래, 허락하겠다.

연옥 영혼: 저는 당신과 협정을 맺고 싶습니다.

다윗: 무엇에 바탕을 두고요?

연옥 영혼: 당신이 참석하는 모든 성찬례를 바치십시오. 우리 모두를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바치십시오. 저는 하느님께서 저를 위해 당신 나라에 마련해 두신 곳에 올라갈 때,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하느님께서 당신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도록 중재할 것을 약속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제안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다윗: 예수님,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예수님: 그것은 합당한 제안이란, 그러나 결정은 네가 하여라.

다윗: 좋습니다. 받아들여겠습니다.

예수님: 애야, 이제 평안히 가거라.

1996년 7월 17일, 콜론

예수님: 애야, 내 얼굴을 마주 보아라. (나는 현시된 성체 앞에 있었다.) 너의 목마름을 씻어주고, 아직 네 마음이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주려고 여기 있는 마르지 않는 이 샘물을 보아라.

다윗: 예수님, 저는 당신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날마다 더욱더 당신이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애야, 조바심치지 말아라, 네가 체험하는 그것은 네 마음이 성장하고 있음을 말하는 좋은 표시란다. 더구나 그것은, 네가 친절과 인내와 포용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열매를 맺게 하려고 내가 너를 더욱더 내 곁에 두고 싶어서 그런 것이니까 말이다.

다윗: 예수님, 오 예수님! 제 눈에, 제 입시울에, 제 지향에, 제 행동에, 제 귀에, 그리고 특히 제 마음에 당신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다시 한 번 말해 보아라.

다윗: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 마음에.

예수님: 하느님의 집아, 나는 어제 보다 훨씬 더 많이 네 몸의 각 부분, 특히 네 마음 안에 있고 또 있을 것이란다. 넌 알고 있느냐?

다윗: 듣고 있습니다, 주님.

예수님: 나를 네 마음 안에 모시려고 네가 얼마나 원하고 또 노력하는지 알고나니 너무나 기쁘단다.

다윗: 예수님, 저는 가끔 제가 받는 유혹들 때문에 당신이 제 마음에서 멀어지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오 하느님! 제가 충실하게 머물렀다면, 그것은 당신의 은총 때문입니다.

예수님: 오 애야! 소심해지지 말아라. 오늘까지 네가 많은 전투에서 승리했다면, 그건 분명히 너를 따라다닌 내 은총 때문이니까 말이다. 더구나, 네 영혼의 원수들은 (교만, 탐욕, 음란, 질투, 과식, 분노, 나태의 일곱 가지 근원적인 죄를 말씀하신다.) 네가 그들이 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이다. 다시 말해, 그 원수들은 너를 쓰러트리지도 못하고, 언제나 그리고 또 네가 그 원수들에게 허락하지 않으면 네 마음과 나를 분리시키지도 못하리라는 말이란다.

다윗: 예수님, 저는 나약하다는 것을 기억해주십시오.

예수님: 사랑하는 다윗아, 나는 너의 나약함을 명심하고 있단다. 그러나 너는 내가 주는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도 명심하지 않고, 내가 너의 힘이라는 것도 너무 빨리 잊어버린단다.

다윗: 하느님, 용서해 주십시오! 당신은 제가 어떤 사람인가를 잘 알고 계시니까요.

예수님: 내가 너를 위해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은 그 이유 때문이란다. 네가 승리를 거두어야 할 다른 전투들 안에서는 더더구나 그러한데, 너는 이기기 위하여 기도와 회개와 보속으로 무장하고 싸워야 할 것이다. 이제 평안히 가거라.

나중에, 성체 현시 동안.

예수님: 애야.

다윗: 나의 주님, 말씀하십시오.

예수님: 비속에 서있거나 햇빛 아래 있으면, 너는 어떻게 되겠느냐?

다윗: 비에 젖거나 아니면 햇볕에 탑니다.

예수님: 그러면 이제 너는, 몸과 피, 영혼과 신성으로 내가 그 안에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성체를 흠송하며 관상하고 있을 때, 너에게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나는지 생각해 보았느냐?

다윗: 하느님, 아닙니다! 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 애야, 너에게 일어나는 일은 너무나 커서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없지만, 연상할 수 있는 것 하나는 줄 수 있단다. 너는 조금 전에, 비 속에 있으면 비에 젖고 태양 아래 있으면 그 별에 탄다고 대답했었지. 네가 성체 거동 아래 있을 때는, 그것과 매우 비슷하면서도 그것을 능가하는 일이 일어나는데, 나는 내가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했을 때와 똑같은 권능과 영광으로 그 안에 현존하고 있단다.

다윗: 예수님! 너무나 놀라워서, 생각도 못하겠습니다.

예수님: 매일 아침 풀과 꽃들을 적시는 이슬을 생각해 보아라.

다윗: 그것은 커다란 자연 현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렇단다. 네가 나의 신적 본성인 성체 앞에 엎디어 경배하며 관상하고 있을 때 일어나는 기묘하고 위대한 현상을 설명해 주는데 도움이 되는 커다란 자연 현상이란다.

다윗: 오 예수님! 당신을 현시하거나 감실 안에 계시실 때, 당신을 경배하고 관상하려는 제 소원과 열망을 아무쪼록 증가시켜주십시오.

예수님: 원하는 것이 그것 밖에 없느냐?

다윗: 예, 하느님, 지금은 이것만 청하겠습니다.

예수님: 그러면 나를 사랑하여라 그리고 평안히 가거라.

1996년 7월 22일, 콜론

예수님: 애야, 내 평화를 간직하여라. 그리고 포도주의 형상 아래 네가 받아마시는 가장 적은 양의 내 피 한 방울이라도, 많은 양의 포도주 (성혈) 안에 들어있는 모든 구원 행위가 거기에도 똑같이 포함되어 있음을 깨달아라. (나는 성체와 성혈을 함께 받아 모실 때, 사제가 주님의 몸인 성체를 주님의 피인 포도주에 적시는듯 만듯 하게 했기 때문에 실망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네가 바다에서 물 한 방울만 뜬다 하더라도, 그 물방울은 그것을 떠낸 바다가 지닌 성분과 똑같은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과 같단다. 이제 평안히 가거라.

1996년 7월 24일, 콜론

다윗: 예수님, 당신은 제 고통을 느끼십니다! (나에게 일어난 돌발적인 사건때문에 이 말씀을 드렸다.)

예수님: 그렇단다, 애야. 나도 그것을 느끼고 있단다.

다윗: 오 하느님! 그것을 사랑의 제물로 받아주십시오. 당신께서 저를 시험하시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내 사랑아, 내가 오로지 너의 인내와 충실함을 시험해 보려고 한 일임을 깨달았느냐?

다윗: 그렇습니다, 예수님. 그러나 더욱 인내로워지고, 당신께서 저에게 기대하시는 온유와 충실함을 지닐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그래, 애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러나 이것은 너 자신의 뜻에 따라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닮게 하려고 하는 것이란다. 이제 평안히 가거라.

1996년 7월 26일, 콜론

예수님: **애야, 너는 지금 내 고통을 느끼고 있느냐?** (나는 성체성사 안에서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모욕에 대해 말하는 것을 들었다.)

다윗: 예, 예수님, 그 이야기는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애야, 많은 것을 할 수 있단다.**

다윗: 그러나, 하느님, 제 한계가 너무 큽니다.

예수님: 나를 너무나 기쁘게 하는 그 행위들과, 네 주변의 사람들이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도록, 그들에게서 경험하는 많은 괴로움을 더욱더 자주 나에게 봉헌해다오. 오 애야! 그들의 실수나 잘못들은 염두에 두지 말고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사랑하면서, 나를 사랑하여라.

다윗: 예수님, 그건 너무 어렵습니다!

예수님: **애야, 너는 소란을 떨어서 무엇을 얻느냐? 그렇게 하기 어렵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보다도 기도하지 않고, 개선하지 않고, 자신의 구원을 위해 회개하지 않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일 것이다. 너는 판단할 책임이 아니라, 이 일을 할 책임을 맡아라. 이제 평안히 가거라.**

나중에.

다윗: 예수님.

예수님: **애야, 말해 보아라.**

다윗: 매일같이 저는 당신의 사랑에 더욱더 이끌리고 있음을 느낍니다. 얼마 전부터는 당신이 좋아하시는 것을 행하고, 당신의 사랑에 대한 증거자가 되고 싶은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수님: **애야, 다윗아, 네 마음이 갈수록 더욱 내 성심에 이끌리는 것은 내가 더욱 깊게 너와 일치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란다. 더구나, 이것 때문에 놀라지 말아라. 오히려, 너 자신은 사라지고, 다시 말해, 다른 사람들이 네 존재를 알아주기를 바라지도 않고, 거대한 은총이나 자리를 탐하지도 않고, 오직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만을 추구할 정도로 너 자신은 갈수록 더욱더 작아지면서, 나와 같이 되기를 추구하여라.**

다윗: 예, 하느님, 당신의 은총이 저를 따른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 애야, 내 은총은 언제나 그리고 모든 순간에 너와 함께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은총이 작용하려면, 너는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렇게
은순해야 함을 기억하여라.

1996년 7월 31일, 콜론

1996 년 8 월, 콜론

아침에.

다밧: 저한테 당신의 자비가 얼마나 필요한지 아셨습니까? (나는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것에 낙심하고 있었다.)

예수님: 그래, 그건 알고 있었단다. 그러나 그건 네가 유혹에 빠지지 않게 깨어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기도뿐인데 너는 아직도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납득하지도 못하고 있어 그런 것 같단다. 너는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에 보화를 담고 있는데, 그 질그릇은 바로 너의 마음이란단다. 이 질그릇이 내 얼굴을 마주보게 하는 덕, 곧 정결 (깨끗한 마음)에 대항하는 사탄의 공격 앞에서도 견고하게 부서지지 않도록, 이미 말했듯이, 너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하고, 내 어머니를 통해서 나의 영에 일치해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단다. 이 인류가 많은 악을 겪고 있는 원인은, 그들이 내 어머니를 그들의 참된 어머니로, 그리고 나를 하늘에서 내려온 참된 빵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잊어버리고 무관심한데 있으니까 말이다.

다밧: 예수님, 저는 제가 말할 수 없이 비참한 사람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너는 내가 너를 도와주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느냐? 너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내가 해 주기를 바라지는 말아라. 나는 청빈과 정결, 순명을 지키기 위해 네 의지에서 나오는 모든 힘이나 자질을 다 사용한 후에나 내 이름을 부르는 네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아다오.

다밧: 예수님, 저는 이런 질책을 받아 마땅함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 옛날에 하느님의 백성은, 그들의 잘못, 곧 그들의 항구하지 못한 지조의 산물로 인한 내 아버지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 속죄를 바쳤단다. 나는 너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하겠는데, 이것은 더 나아가 너를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함이란단다. 이제 평안히 가거라.

1996 년 8 월 18 일, 콜론

예수님: 애야, 지난 두주 동안 내가 말한 모든 것을 기억하고 묵상해 보았느냐?

다윗: 예수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당신은 저한테 아무 말씀도 안 하셨고, 오히려 침묵하고 계셨는데요.

예수님: 내 사랑아, 바람 한점 없는 날 고요하게 서 있는 나무들 사이로 흐르는 그 정적이 네 주목을 끌었던 그날을 기억하고 있느냐?

다윗: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 아이의 잘못을 고치려고 따스하고 연민이 가득한 마음으로 그 아이를 꾸짖었던 그날은 기억하고 있느냐?

다윗: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비가 올 때마다 땅이 젖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느냐?

다윗: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나는 그때마다 너에게 말했었다. 너는 나와 일치하고 더욱더 나를 찾도록 이와 같은 경험을 많이 할 것이다. 이제 평안히 가거라.

1996년 8월 19일, 콜론

다윗: 예수님, 모든 것을 다 잃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두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애야, 너의 나약함을 생각하지 말고, 나의 전능을 생각하여라. 너는 나에게 의탁하는 사람들을 내가 저버렸다는 것을 한 번이라도 들어본 적이 있느냐?

다윗: 없습니다, 예수님.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예수님: 그러면 두려워 말고 나에게 너를 맡겨라, 나는 네 발이 걸려 넘어지게 하지 않을 것이니 말이다. 이제 평안히 가거라. 그리고 어제보다 더 나를 사랑하여라.

나중에.

예수님: 네가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그 영혼들은 (성인들을 말씀하신다.) 너와 똑같은 보통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의지가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내 이름에 대한 경외심으로 더욱더 노력한 사람들이었다. 너도 그와 같이 하여라. 그러면 네 모습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다윗: 오 예수님! 저는 얼마나 나약한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그건 알고 있단다, 내 사랑아. 게다가, 나는 포도나무이고 너는 그 가지이기 때문에, 네가 나약하다고 해서 무엇을 두려워해서는 안된단다.

다윗: 나의 주님, 당신의 힘은 얼마나 크신지 모르겠습니다. 당신께 잘못된 이들에 대한 당신의 자비는 끝이 없습니다. 오 나의 하느님! 제가 당신에게서 멀어져 있었던 그 해들처럼, 더 이상 당신에게서 멀어지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님: 애야, 그렇게 될 것이다. 이제 내 평화를 간직하여라.

1996년 8월 20일, 콜론

예수님: 저 모습을 보아라. (어떤 사람이 정성스럽게 자기 개를 돌보고 있었다.)

다윗: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것입니까?

예수님: 너도 저렇게 정성스럽게 네 영혼을 돌보아야 한단다.

1996년 8월 22일, 콜론

예수님: 애야, 저 옷 색깔을 보아라.

다윗: 흰색입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 화해성사를 볼 때, 그리고 나의 몸인 빵과 나의 피인 포도주를 영할 때 너는 저 옷보다 훨씬 더 희어진단다. 이제 평안히 가거라.

1996년 8월 24일, 콜론

예수님: 애야, 그 벌레들이 나뭇잎들을 어떻게 괴멸시키는지 잘 살펴보아라.

다윗: 몽땅 다 갉아 먹고 있습니다! 나무잎들이 다 사라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애야, 나무들도 체념하지 않았단다. 벌레들이 잎사귀를 다 갉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때가 되면 다시 새 나뭇잎들이 움트게 할테니까 말이다. 그 불굴의 인내가 감동적이지 않느냐? 오 나의 사랑아, 끈기있고 항구하게 인내하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한지! 불완전함이라는 벌레들에게 걸려 넘어진 후에 다시

일어나 새로운 싹을 틔우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한지! 분명히 말하거니와, 내일 다시 역병이 그의 모든 의지와 활동을 괴멸시키려 온다 하더라도, 끈기있고 인내로운 사람, 포기하지 않는 사람,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은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다.

다윗: 예수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당신의 자비로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는 얼마나 비참한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애야, 나도 알고 있단다. 그러나 노력하는 사람들만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끊임없이 노력하여라. 게다가, 네 마음이 나에게 그토록 매력을 주는데, 내가 어떻게 너를 도와주지 않겠느냐?

다윗: 예수님... (예수님께서 내 말을 끊으셨다.)

예수님: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어린이가 아버지 품에 안기듯, 너도 너 자신을 나에게 맡기기만 하여라. 이제 평안히 가거라.

1996년 8월 26일, 콜론

다윗: 하느님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제 믿음이 약해지는 것만 같습니다.

예수님: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단다. 더구나, 이 일을 불신의 눈으로 보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느님이니 내가 너에게 힘을 주고, 내가 너의 도우미니 영광스런 나의 오른손으로 널 떠받쳐 줄 것이다. 내가 누구를 저버린 적이 있었더냐? 분명히 말하거니와, 너도 그에서 예외가 아니란다. 내가 먼저 너를 사랑했는데, 네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리고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나는 이미 너를 사랑하고 있었단다. 오 애야, 나를 사랑하여라! 이제 평안히 가거라.

1996년 8월 31일, 콜론

1996 년 9 월, 콜론

예수님: 애야, 나를 기쁘게 하려는 마음을 먹는 너를 볼 때 내가 얼마나 큰 즐거움을 느끼는지 너는 상상도 하지 못할 것이다. 마음의 준비는 덕은 아니지만, 온유와 깊은 관계가 있음은 사실이란다. 다시 말해, 온유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버리고 주어지는 십자가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사람이란다. 나는 너를 사랑하고, 나의 영으로 너를 유도한다.

다윗: 하느님, 오 예수님! 저는 그것을 원합니다. 저를 당신의 성령 안에 잠기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너의 그 소원을 들어줄 것인데, 그 소원은 곧 나의 소원이기도 하단다. 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생명의 영, 사랑의 영, 성화의 영이 싫어하는 일은 하지 않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데려 가겠다. 내 사랑아.

다윗: 말씀하십시오, 예수님.

예수님: 하늘을 보아라, 너무나 넓지 않느냐?

다윗: 예, 예수님, 너무나 넓습니다.

예수님: 초록잎들의 다양한 색조를 살펴보아라. 같은 초록색임에도 흐리고 진한 정도가 다 다른 것이 신기하지 않느냐?

다윗: 신기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이제 어제 보았던 벌레들을 생각해 보아라.

다윗: 그 벌레는 놀라울 정도로 너무나 작았습니다. (나는 그 작은 벌레가 내 손바닥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고 놀랐었다.) 그러나 하느님,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겁니까?

예수님: 너도 그 벌레처럼 내 시선을 끌었다. 나도 너의 미소함 때문에 너를 내 손바닥에 올려놓고 네가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단다.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우리의 거처로 삼을 수 있도록 작은 자가 되어라. 이제 평안히 가거라.

1996 년 9 월 3 일, 콜론

예수님: 애야, 나에게 의탁하여라. (나는 지금 내가 속한 이 공동체가 내가 있어야 할 자리인지 고민하고 있었다.) 나는 너의 평안과 행복을 추구한다.

다윗: 오 하느님!

예수님: 오 사랑하는 다윗아! 나의 길이 너의 길보다 더 풍요롭고, 내 뜻을 행하는 영혼과 내 뜻을 행하려고 노력하는 영혼만이 행복을 누리게 되리라는 것을 명심하여라. 애야 다윗아, 내 뜻을 행하는 것이 곧 너의 음식이며 너의 음료가 되기를 바란다. 이제 평안히 가거라.

1996년 9월 4일, 콜론

예수님: 애야, 너는 오늘 내가 원하는 것들을 내 방법과 내 스타일에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아무 것도 원하지 말아라. 분명히 너는 어떤 일들이 네 맘대로 되지 않아 낙심하고 있을 것이다. 네가 유순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된 것이 오히려 다행이란다. 이것이 사람을 그의 하느님의 모상이 되게 하는 열쇠란다. 이제 내 평화를 간직하여라.

1996년 9월 6일, 콜론

예수님: 받기보다 주는 것이, 사랑받기를 원하기보다 사랑하는 것이 더 큰 기쁨을 주기 때문에, 네가 이런 것을 경험하는 것과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여겨지기를 바라는 마음이나 욕망을 떨쳐 버리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다. 내 사랑아, 너 자신을 버려라, 그러면 너는 겸손에서 성장할 것이다.

다윗: 겸손한 사람이 되고 싶지만, 그러나 무척 어렵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너에게 나의 은총이 충분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이제 평안히 가거라.

1996년 9월 9일, 콜론

예수님: 애야, 자기 장상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뜻도 즉시 행하려는 것은 그 사람이 든든한 바위이신 하느님 안에 그의 마음을 두고 있음을 말해주는 명백한 증거란다. 너도 그렇게 하여라. 그러면 네가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윗: 당신의 도움으로요?

예수님: 그래, 나의 도움으로 말이다. 이제 평안히 가거라.

1996년 9월 11일, 콜론

예수님: 애야, 상처받은 내 마음을 위로해다오.

다윗: 어떻게요, 예수님?

예수님: 네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나의 말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해다오. 이제 평안히 가거라.

1996년 9월 12일, 콜론

예수님: 네 형제들의 결점을 보게 되면, 나는 네가 그들을 더 많이 사랑하고 나에게는 이렇게 말하기를 바란다. <주 나의 하느님, 저는 그런 일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말이다. 이제 평안히 가거라.

1996년 9월 14일, 콜론

예수님: 그 불쾌함을 나에게 바쳐라. 그리고 연옥 영혼들에게 큰 유익이 되는 이 순간을 허비하지 말아라.

다윗: 그러면 이 불쾌함을 받아주십시오, 예수님. 사랑으로 당신께 드립니다.

예수님: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여라. 침묵하거나 사랑하거나 또는 사랑 때문에 그리고 사랑 안에서 고통을 당하거나,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여라. 이제 평안히 가거라.

1996년 9월 15일, 콜론

예수님: 애야, 네가 작아지려면 가장 낮은 자가 되어라. 그렇지 않고서는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 죽음,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당신 자신을 낮추신 그분을 닮지 못할 것이다. 이제 평안히 가거라.

1996년 9월 16일, 콜론

다윗: 예수님, 어쨌든 그 은총을 저에게 주십시오! (정결한 마음, 곧 깨끗한 마음을 말한다.)

예수님: 나에게 더욱 충실하여라, 그러면 너에게 그 은총과 다른 은총들도 줄 것이다. 이 계약을 받아들이겠느냐?

다윗: 그러나, 하느님 저는... (내 말을 막으셨다.)

예수님: 애야, 나에게 충실하도록 노력하여라. 나는 네가 노력하기를 바라는 것 외 다른 것은 요구하지 않는단다. 나머지는 내가 책임질 것이다. 이제 평안히 가거라.

1996년 9월 17일, 콜론

예수님: 애야, 하느님의 은총은 자기 자신을 비운 사람들 안에서만 작용한다.

다윗: 예수님, 무쇠같은 제가 온순하게 복종할 수 있도록 당신의 성심이 불처럼 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내 사랑아, 너는 그렇게 되기를 원하면서도 내가 하는 대로가 아니라 인간적인 네 본성에 순종할 때가 더 많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에게 어떤 상처도 주지 않을 것이다.

다윗: 주님, 저는 두려움이 많습니다. 제발이지 그런 것은 보지 마시고 당신을 기쁘게 해드리려는 제 지향만 보십시오.

예수님: 네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들으니 무척 흐뭇하구나. 자기 자신을 버리기가 두려울 때, 나는 네가 더욱더 나를 믿고 의탁하기를 바란다. 다른 사람을 위한 자리가 되어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러나 겸손은 사탄이 싫어하는 덕이라는 것을 깨달아다오. 겸손한 사람은 하느님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다윗: 예수님, 제가 어느 정도까지 겸손해야 하고 또 변화시킬 수 없는 것들은 평온한 마음과 사랑으로 받아들여야 합니까?

예수님: 끝까지란다, 애야. 네가 온갖 덕을 다 실천한다 하더라도, 완덕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뿐이므로, 십자가의 길을 통해 가는 덕이 아니라면 오히려 위험한 것이 될 수 있다. 이제 평안히 가거라.

1996년 9월 19일, 콜론

예수님: 지금 막 들은 이야기를 (공동체의 형제들이 한 성인이 지냈던 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마음 속에 간직하고, 묵상하고 실천하여라.

다윗: 예수님, 제가 순명의 덕을 실천하기를 그렇게도 원하십니까?

예수님: 그렇단다, 애야, 나는 네가 자기를 버리는 사람은 죽지 않고 오히려 살리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란다. 이제 내 평화를 간직하여라.

1996년 9월 22일, 콜론

예수님: 애야...

다윗: 말씀하십시오, 예수님.

예수님: 너에 관한 일들을 내가 맡겠다는 것, 너의 가족이 내 가족이며 네가 가진 문제가 곧 내 문제라는 것을 납득했느냐?

다윗: 예, 예수님.

예수님: 그러면 왜 걱정하느냐? (나는 우리 가족이 처해 있었던 힘든 순간 때문에 근심하고 있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왜 네가 하느라고 그렇게도 애를 쓰느냐? 내 사랑아, 근심과 걱정은 실망을 야기시키고, 실망한 영혼은 성난 악마보다 두 배나 더 위험하단다. 나를 믿고 의탁하여라. 너의 가족 중에서 가장 냉담한 사람이라도 나는 그가 그냥 죽게 버려두지 않을 테니까 말이다.

다윗: 주님, 이 상황 앞에서 제가 평온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 그렇단다, 너의 일들은 내가 맡을 것이니까 말이다. 이제 평안히 거거라.

다윗: 예수님, 가시기 전에 청할 것이 있습니다. 그 영혼을 너무 엄중하게 다루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내 친척 한 사람을 말한다.) 저를 대하시는 그 자비로 그를 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수님: 애야, 내 뜻에 맞게 행하려고 노력한 영혼을 단죄하는 것이 옳은 일이겠느냐?

다윗: 옳지 않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너는 누가 단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느냐, 노력하는 사람들이냐 아니면 두 주인을 섬기면서 아무에게도 충실하지 않은 사람들이냐?

다윗: 두 주인을 섬기면서 아무에게도 충실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왜 그렇다고 생각하느냐?

다윗: 두 주인을 섬기면 두 주인을 다 성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주인에게, 내일은 저 주인에게 충성해야 하니까요. 예수님, 제가 말씀드린 것과 이것이 무슨 상관입니까?

예수님: 내 사랑아,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단죄하려고 하는 사람을 구하는 것은 무익한 일이다. 더구나 나는 영혼들에 대한 사랑 때문에 방탕이나 욕정 따위의 악행은 용인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여라. 나는 그 사람을 너무나 사랑한다. 그러니 너는 그 사람과 이야기하여라.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은 그가 회개하여 옛 인간을 벗어버리고 새 인간을 입는 것이라고, 누그러뜨릴 수 없는 하느님의 정의를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말해주어라. 나머지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질 것이다. 이제 나의 축복을 받아라.

1996년 9월 24일, 콜론

다윗: 예수님

예수님: 여기 있단다, 애야, 내 평화를 간직하여라.

다윗: 당신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이 저를 이기지 못하도록 저에게 당신의 힘을 주십시오.

예수님: 그러면 어제보다 더 많이 기도하여라. 이제 평안히 가거라.

1996년 9월 24일, 콜론

예수님: 나 없이 너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단다. 내 성심 안에 피신하여라. 그리고 네 욕정의 야수에게 몸을 드러내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그 욕정의 포로가 되고 말테니까 말이다.

다윗: 도와주십시오! 저는 나약합니다.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온 마음을 다하여, 온 정신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란다.

1996년 9월 28일, 콜론

1996 년 10 월, 콜론

예수님: 너의 손, 너의 발, 너의 입술을 나에게 다오. 너의 생각과 마음을 나에게 다오. 나는 견고한 정신으로 너를 새롭게 하고 네 마음을 나의 거처로 삼고 싶단다.

다윗: 예수님, 저는 빨리 그렇게 되기를 갈망합니다.

예수님: 왜 빨리라고 하느냐?

다윗: 아직도 저는 제가 당신의 거처라고 느끼지 못하니까요. 저는 너무 불완전합니다.

예수님: 애야, 나는 네 안에 거처하고 있음을 깨달아다오. 더구나, 너의 불완전함은 내가 네 안에 쉬면서 너를 자비롭게 대하는데 아무 방해도 되지 않는단다.

다윗: 당신은 너무나 매력적이십니다.

예수님: 너도 그렇단다. 이제 우리 평안히 가자.

1996 년 10 월 첫날, 콜론

예수님: 네가 지금처럼 계속 그렇게 행동한다면, 너는 그 욕정들 (일곱가지 근원적인 죄들을 말씀하신다.) 때문에 내 성심에서 아주 멀어질 수 있단다. 오 애야!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네가 더욱 충실하기를 원한다. 오 다윗아! 내가 충실한 영혼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네가 상상만이라도 할 수 있다면, 분명히 말하거니와, 너는 충실한 사람이 되려고 어제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할 것이다.

다윗: 예수님, 당신께서 원하시는 충실한 사람이 되려면 제 나약함을 뛰어넘는 은총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애야, 너는 아직도 네가 나의 몸과 피를 받아 먹을 때 그 은총을 받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였느냐?

다윗: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저는 쉽게 죄로 기울어집니다.

예수님: 내가 너의 마음을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 섬세하고, 네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가없이 여기는 마음, 내 계명을 지키며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겠다.

다윗: 예, 예수님,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그러면 평안히 가거라.

1996년 10월 6일, 콜론

예수님: 애야, 나는 너를 사용하고 싶단다. 나는 더욱더 네 안에 거처하고 싶단다. 나는 네가 더욱더 나를 닮기를 애타게 바라는데, 너는 그것을 잊어버리는 것 같구나.

다윗: 예수님, 갈수록 저는 더욱 약해집니다. 의지가 강하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충실한 영혼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내 아이야, 무엇을 건설할 때는 언제나 노력과 희생이 꼭 따라다닌단다. 너의 선한 소망을 성취하기 위하여 항상 나에게 의지하여라. 그리고 행동으로 나를 기쁘게 하려고 애를 쓴다면, 너 자신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아주 훌륭한 사람이나 덕을 지닌 사람처럼 보이려고 애쓰는 행동은 하지 않도록 명심하여라. 나에게 충실과 사랑을 보여주는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행동보다 더 중요하고 유의하기 때문이란다.

다윗: 저는 제 주변의 사람들을 이기적으로 대하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낭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 좋으신 예수님! 여기 제가 있습니다. 저는 온전히 당신의 것입니다.

예수님: 애야, 네가 하는 말을 들으니 정말 기쁘구나. 너의 온 존재를 나에게 다오. 두려워하지 말고 너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찾는 내 성심에 너를 맡겨라. 이제 평안히 가거라.

1996년 10월 10일, 콜론

예수님: 애야, 내가 이끄는 대로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 자신에게서 이탈하여 나를 믿고 의탁하는 네가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다윗: 주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저의 모든 힘을 다 받으시고 그 힘을 이끌어 주시며, 제 생각까지도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님: 내 사랑아, 나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내 성심은 결코 너를 저버리지 않는다는 확신과 희망을 갖고, 소경처럼 무조건 믿고 따라가는 것을 내포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단다. 이제 평안히 가거라.

1996년 10월 16일, 콜론

예수님: 네가 나에게 무엇이 내 뜻이냐고 물을 때 나는, 다윗은 <내 뜻을 행하는 것은, 인내심을 시험하고 거만함을 부추기는 그 사람들도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임을 왜 깨닫지 못할까? 자비심으로 섬기거나 용서하는 것도 내 뜻을 행하는 것 중 하나임을 왜 알아듣지 못할까?> 하는 생각을 한다

다윗: 예수님... (나를 막으셨다.)

예수님: 애야, 다윗아, 나를 사랑하여라.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하겠다.

1996년 10월 19일, 콜론

예수님: 다윗아, 매일같이 네 마음을 나에게 다오. 네가 미사 중에 나를 받아 영할 때, 나는 네 마음을 살찌우고 견고하게 하고 싶단다.

다윗: 예수님, 제 마음을 받으십시오. 당신께 상처를 드리고 당신께서 좋아하시는 것보다 제 마음에 드는 것을 먼저 즐기는 것도 이제는 피곤해서, 오늘 저는 특별히 제 마음을 당신께 바칩니다.

예수님: 너의 봉헌은 받아들이겠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뿐임을 기억하여라. 멈추지 말아라, 계속하여라, 구원은 끝까지 참는 사람이 받을 것이니까 말이다. 이제 평안히 가거라.

1996년 10월 22일, 콜론

다윗: 예수님, 시간 좀 내주시겠습니까?

예수님: 그래, 그렇게 하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아무도 저버리지 않았단다. 나는 내가 너를 부른 것에 충실하니까, 나에게 너를 맡겨라.

다윗: 저는 아무 것도 모르겠고, 그것도 모자라, 당신은 저와 먼 거리에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다윗아, 그게 무슨 말이나! 나는 네 곁에 있단다. 자기 집에 보물이 있는 것을 아는 아버지가 어떻게 그 집을 두고 멀리 떠나 갈 수 있겠느냐? 나는 너를

지키는 파수꾼이고 내 성심 가장 깊은 곳에 너를 숨겨두고 싶단다. 제발이지, 애야,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깨달아다오!

다빛: 저도 사랑합니다.

예수님: 그러면 왜 걱정을 하느냐? 기도를 통하여 네 안에 피신하여라. 오늘은 어제보다 더 네가 필요하단다. 너 자신을 포기하고 나를 갈망하는 네가 말이다.

다빛: 저에게 원하시는 그 포기과 버림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님: 한 영혼이 자기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나 아니면 자신의 취향에 따라 행동할 목적으로 내 안에서 피할 곳을 찾는다면, 그것은 아직도 자기 자신을 버리고 나에게 맡기지 않았다는 표시이다. 내 사랑아, 나에게 대한 너의 믿음은 사랑과 포기의 행위를 목말라 하고, 너 자신을 온전히 내 성심에 바칠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바란다. 내 손을 잡아라, 나는 너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는 길로 인도할 뿐, 다른 길로는 인도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죽기를 원하거나 또는 죽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된 것만으로는 부족하단다. (여기서는 자기 자신을 버리는 것으로 이해하라.) 자기 자신을 버리는 것은 자신을 내어주는 것과 바치는 것 또는 믿음의 행위를 요구하는 때가 많은데, 이것은 너를 사로잡는 두려움의 사슬을 끊어버린단다.

나중에.

예수님: 나에게서 시선을 떼지 말아라. 성실함은 지속적인 노력이라는 대가를 요구하단다. 너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가다가 멈춘다면, 그것은 너의 나약함을 드러내는 것이란다. 애야, 내가 너의 힘, 너의 요새임을 잊지 말아라.

다빛: 예수님은 제가 하는 생각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그렇지는 않단다. 그보다도, 한 영혼이 그를 위해 활동할 준비가 된 그분 안에서 내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희망하는 것을 볼 때 느끼는 기쁨을 말해주기 위해서란다. 이제 내 평화안에서 함께 가자.

1996년 10월 23일, 콜론

밤에.

예수님: 나에게 무엇이냐고 물었느냐? 다빛아, 원수의 공격이라는 것을 깨달아라. 도둑은 문으로 들어갈 수 없으면 다른 침입 경로를 찾는단다. 네가 약간의 틈새만 열어두었다 하더라도, 내가 너에게 주는 수많은 은총들이 가족에 대한 너의 지나친

애착의 문틈으로 달아나가 버린단다. 애야, 사탄은 네 마음에 아주 미세한 틈새만 있어도 그리로 들어가는 교활한 도둑이다.

다윗: 무슨 뜻인지요, 그들을 사랑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이신지요? (우리 가족에 대해 말한다.)

예수님: 애야, 다윗아, 너는 사랑이 (신 분이) 너에게 그런 요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너는 무엇을 더 원하느냐? 너에 대한 순수한 사랑 때문에, 네가 어머니의 태중에 생기기도 전에 내가 이미 너를 부른 그 부르심까지도 마다할 정도로 너는 너의 가족을 사랑하느냐? 내가 한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너는 모든 것 위에 나를 사랑하고 또 자기 자신을 버리기까지 내 뜻을 행하도록 고무하는 그 감정과 그 태도로 너의 가족도 사랑하라고 한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다윗: 예수님, 가끔가다 당신은 매우 엄격하십니다.

예수님: 애야, 나무판에 못이 잘 들어가도록 못을 망치로 두들겼던 것을 기억하느냐?

다윗: 예, 기억합니다.

예수님: 만일에 망치가 그렇게 단단하지 않다면, 그것으로 나무판에 못을 박을 수 있겠느냐? 우리의 관계도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이, 내가 내 성심 안에 깊숙이 들어와 낡은 인간을 벗어버리고 사는 것이라면, 너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완고한 네 마음을 쿵쿵 두들겨야 하지 않겠느냐?

다윗: 오 하느님! 저를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예수님: 애야, 그 말이 두려워서 하는 말이 아니라면 나를 더욱 기쁘게 할 텐데 말이다.

다윗: 예수님, 제가 망치로 못을 박을 때, 너무 세게 두들겼기 때문에 못이 굽어버렸습니다. 당신과 저 사이에도 그런 일이 생길까 두렵습니다. 말하자면, 제가 당신께 더 깊이 들어가는 대신 들어가다 말고 휘어버린다면, 제가 못을 버린 것처럼 당신도 저를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으실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걱정하지 말아라. 너는 너를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오신 하느님과 친교를 맺고 있음을 기억하여라. 게다가, 다윗아, 내 방식은 너의 방식과 아주 다르단다. 불완전한 것에서 불후의 명곡을 뽑아내려 할 때는 더더욱 다르단다. 너는 알고 있느냐, 내 사랑아?

다윗: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 나는 너에게 나의 방식을 가르쳐주고 싶단다. 배우고 싶으냐?

다윗: 예, 배우고 싶습니다.

예수님: 그러면 네가 하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여라. 이제 평안히 가거라.

1996년 10월 26일, 콜론

예수님: 애야, 내 안에서 살아라 그리고 너를 불안하게 하는 모든 것을 나의 영 안에서 바라보아라.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나쁜 결과를 이루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단다. 나약함 때문에 너의 결심에 노력이 따라가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단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아라,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사람만이 구원받을 것이며 항구하게 싸우며 달릴 길을 다 달린 공력으로 승리의 관을 얻을 것이다. 이제 평안히 가거라.

1996년 10월 28일, 콜론

예수님: 나에게 청하는 평화는 너 자신이 흠 없는 제물이 되어있을 때, 다시 말해, 나의 성령을 슬프게 하는 행실들을 피할 때 얻을 수 있는 것이란다.

다윗: 당신의 마음에 드는 것을 행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십시오! 저는 순종적이 되기가 두렵습니다.

예수님: 나를 사랑하여라.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몰아낸단다. 나는 너에게 나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위해 내 아버지께서 마련해두신 하늘나라를 나와 함께 상속받지 못하게 만드는 그 어떤 행위도 허락하지 않으며, 더더구나 그런 것을 행하라고 명하지도 않을 것이다. 나의 사랑아.

다윗: 주님, 말씀하십시오.

예수님: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너는 내가 용서해 준 죄들에 유념하여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너는 세상에 대해 죽었으며 세상은 너에 대해 죽었음을 알기를 바란다. 이제 평안히 가거라.

1996년 10월 31일, 콜론

1996 년 11 월, 콜론

예수님: 나는 얼마나 많은 무관심에 고통당하는지 모르겠구나! 내가 사랑하는 인류는 얼마나 나를 잊고 있는지! 오, 네가 나에게 충실한다면, 네가 나를 너의 참된 하느님으로 인정한다면 좋으련만! 그러면 너는 네 영혼의 원수들에게서 해방되고 너를 비웃는 자들을 부끄럽게 할 것이다. 애야...

다윗: 말씀하십시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 충실하여라. 그리고 내 영 안에서 살고 그 영의 이끄심에 따라가기까지 나를 사랑하여라. 이제 평안히 가거라.

1996 년 11 월 2 일, 콜론

예수님: 나 없이 너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단다. 나의 은총 없는 너의 노력은 모두 헛된 것이다. 너는 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과 너를 도와주는 나의 원의를 깨닫지 못했단다. 어머니의 품을 벗어난 아이가 어떻게 되겠느냐? 의지할 곳이 없지 않겠느냐? 너도 그와 마찬가지로란다.

다윗: 예수님, 마치 저를 꾸짖으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오 나의 사랑아! 오 애야! 네가 나의 크나큰 자비를 본다면, 너는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진심으로 회개할 것이다. 너를 사랑한다.

다윗: 예수님, 저도 당신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너는 인내심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는데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렸느냐? 너 자신이 느끼지도 못하는 사이에 조금씩 그렇게 변해가지 않았느냐? 네가 지금 말한 것도 마찬가지란다. 나에게 대한 사랑이 서서히 깊어져 갈 것인데, 나의 계명을 지킨다면 너는 더욱더 나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이제 평안히 가거라.

1996 년 11 월 3 일, 콜론

예수님: 나는 네가 내 성심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그 어떤 것, 그 어떤 사람 앞에서든 네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나에게 청하기를 바란다. 이제 평안히 가거라.

1996년 11월 5일, 콜론

예수님: 거룩한 산 제물이 되려는 네 노력이 크면 클수록 나의 도움도 그만큼 클 것이다. 친절하고, 관대하고, 정결하고 순종적인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싸우는 사람들이 여기 하늘나라에서 누리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땅에서 받는 은혜는 얼마나 많은지 너는 상상도 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이 크단다.

다윗: 예수님, 저는 의지적인 힘을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나는 네가 기도할 때, 더구나 참된 양식인 내 몸과 참된 음료인 내 피를 받아먹고 마실 때마다 너의 힘이 새로와지기를 바란다. 이제 평안히 가거라.

1996년 11월 10일, 콜론

예수님: 지금이 바로 친절하고 관용적인 사람이 되려고 분명하게 노력할 수 있는 때이다. 이 희생을 나에게 바쳐라. 너의 마음을 내 성심 가까이 이끌지도 않는 저 희생들보다 이 봉헌물이 나는 더 기쁘단다. 왜 입을 다물고 있느냐?

다윗: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예수님: 그럴 때에는 <제가 당신의 성심을 더욱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해다오.

다윗: 오 예수님, 제가 당신의 성심을 더욱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제는 <나의 주님, 저는 온전히 당신의 것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해다오.

다윗: 나의 주님, 저는 온전히 당신의 것이 되고 싶습니다.

예수님: 나는 네가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한다.

다윗: 저는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내 사랑아, 너와 함께 하고 있는 이는 누구이신지 또 너에게 말씀하시는 이는 누구이신지 네가 알았더라면, 너는 나에게 마실 물을 청하고 나는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물이 솟아나게 해주었을 것이다. 이제 평안히 가거라.

1996년 11월 12일, 콜론

다윗: 예수님.

예수님: 듣고 있다. 애야.

다윗: 저는 그렇게 잘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어서 그 사람이 당신께 말씀드렸던 그대로 말씀드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나는 예수님께 더 많은 십자가를 달라고 청했던 한 성인에 대해 이야기 했었다.)* 그러나 저에게 물어보지 않으셔도, 당신께 더욱 인내롭고, 더욱 친절하고, 더욱 관대하고 이해심이 있으며, 더욱 정결하고, 더욱 충실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은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께 바칠 수 있는 것은 그것이라고 확신하고, 그런 덕과 대치되는 것을 행할 것 같은 때에는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예수님: 내 사랑아,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너의 모든 노력을 받아들이겠다. 나는 결코 네 능력밖에 있는 것을 기대하거나 은근히 바라는 일도 하지 않을 것임을 명심하여라. 만일 그런 경우가 있을 때에는, 나 없이 너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으니까,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을 완수할 수 있도록 너를 도와줄 것이다. 이제 평안히 가거라.

1996년 11월 14일, 콜론

예수님: 애야, 그 잘못들 때문에 화를 내기에는 나는 너무나 선하신 하느님이란다. *(나는 내 의지대로 잘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나치게 낙심하고 있었다.)* 낙심하지 말고 더욱 굳건히 서서 다시 온유하고, 인내롭고, 관용적이며, 성실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가 되도록 하여라. 나의 은총으로 너를 도와 주겠다.

다윗: 예수님, 저는 너무 나약합니다! 제가 그렇게 나약하다고는 생각지도 못했었습니다!

예수님: 너는 너의 본성 때문에, 항상 네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는 데로 기울어져 있겠지만 그것을 슬퍼해서는 안된다. 오히려 시련의 때가 닥치면, 내 오른손으로 너를 떠받쳐 줄 수 있도록 너는 끊임없이 전능하신 분의 도움을 청해야 한단다. 이제 평안히 가거라.

1996년 11월 16일, 콜론

예수님: 분명히 말하거니와, 네가 나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 일을 하고 또 그 영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그 공로가 더욱 클 것이다. 오 애야! 만일 사람들이 사랑으로, 사랑 안에서, 사랑의 동기로 인해 행하지 않은 영혼들이 받을 준엄한 심판을 생각하거나 상상한다면, 분명히 말하거니와,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동하고, 행하고, 받아들이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거나 많은 시간을 허비하지도 않을 것이다.

다윗: 예수님, 당신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주십시오.

예수님: 그래, 애야. 네가 너에게 더 큰 인내, 더 큰 정결, 더 큰 관용, 더 큰 친절, 더 큰 기쁨과 성실함을 주겠다. 언제 주는지 알겠느냐?

다윗: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언제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님: 네가 영원한 생명을 주는 양식인 내 몸과 내 피를 받아 먹을 때란다.

다윗: 예수님은 정말 저를 놀라게 하시는군요.

예수님: 너는 매력이 있단다. 내 평화를 간직하여라.

1996년 11월 18일, 콜론

예수님: 애야, 나는 네가 분노에 더디고 자비가 풍부한 나처럼 되기 위해 더 큰 주의력을 기울이기 바란단다. 너는 그 사람이 자기 애견을 보살피는 것처럼 해야 할 필요가 있단다. *(자기 개를 정성들여 기르고 돌보는 어떤 사람을 말씀하신다.)*

다윗: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목적인 바를 이루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여라. 내가 너의 힘이며 너의 능력, 내가 내 손을 가장 필요로 할 때 곧바로 너를 돕기 위해 준비된 손이니, 너의 나약함때문에 나와 친밀감이 굳어지게 하거나 포기하지 말아라.

예수님: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란단다.

다윗: 나의 주님,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당신을 사랑했던 것보다 더 많이 당신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애야, 너의 말을 들으니 무척 기쁘구나. 그러나 그 사랑, 네가 나를 사랑하고 싶어하는 그 사랑은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느끼는 마음에 달린 것이 아님을 깨닫고 그 사랑을 애덕 행위를 통해 증명하여라. 이제 평안히 가거라.

1996년 11월 21일, 콜론

예수님: 낙심하지 말아라. 나 없이 너는 아무 것도 할 수 없고, 나의 은총 없는 너의 노력은 순전한 헛일임을 알도록, 나는 너에게 이런 일이 생기기를 바랐었다. *(내 의지가 무너졌었다.)*

다윗: 예수님, 저는 정말로 당신이 꿈꾸시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애야, 너의 소망도 너의 의지도 너의 본성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며, 이 은총은 더더구나 *(예수님과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것을 말씀하신다.)* 너의 본성을 배제하지 않는단다. 다시 말해, 이 은총이 너의 인간적 조건이나 존재 방식을 변형시키지 않는다는 말이란다. 이제 내 평화를 간직하여라.

1996년 11월 23일, 콜론

예수님: 봉헌된 삶은 믿음의 도약, 그리고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도 거룩한 사람이 되려는 항구한 노력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단다. 나는 네가 조금 더 너 자신에게서 이탈하려 애쓰고 또 많은 씨앗을 뿌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수확을 거두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기를 바란다.

다윗: 오 예수님! 저에게 용기를 주시는군요.

예수님: 그리고 너의 노력을 보면, 어제보다 더 많이 너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단다. 내 평화를 간직하여라.

1996년 11월 27일, 콜론

예수님: 봉헌된 사람의 행복은 여기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어 나의 왕국에서 더욱 풍성하게 된단다. 그러기 위해서는 애야, 현세의 것들은 얼마나 덧없으며 그 즐거움 또 얼마나 유한한지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단다. 내가 너의 삶이 되고 싶고, 너는 *(내 자아에)* 죽는 것이 이득임을 알기를 원한단다. 이제 평안히 가거라.

1996년 11월 28일, 콜론

1996 년 12 월, 콜론

예수님: 내 사랑아.

다윗: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 영혼을 대하는 너의 태도와 너의 불충과 배반에도 불구하고 너를 대하는 나의 태도를 잘 살펴보아라. 너에 대한 사랑과 너의 평안을 바라는 마음 때문에 내가 너를 대하는 것처럼, 너도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도록 더욱더 노력해야 할 것이다.

다윗: 예수님, 저는 그렇게!... (내 말을 막으셨다.)

예수님: 애야, 실망하지 말아라. 네가 범한 잘못이나 부족함은 내가 너에게 너의 힘이 얼마나 미약한지, 그리고 나 없이 너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을 알려주는데 도움이 된단다. 더구나 너는, 너에 대한 나의 사랑은 너의 모든 잘못들보다 위에 있음을 알아야 한단다.

다윗: 그러나, 하느님, 당신은 제가 잘못해도 괜찮습니까?

예수님: 사실은, 애야, 네가 다시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과 너의 악습을 고치려고 끊임없이 싸우는 것이 나에게서 더 중요하단다. 이제 평안히 가거라.

1996 년 12 월 2 일, 콜론

예수님: 애야.

다윗: 말씀하십시오. 예수님.

예수님: 사람은 뭔가를 소유하고 있으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것을 소홀히 간수하지 않고, 그것을 약탈하거나 파손시키지 못하도록 사람을 두어 지킬 정도로 소중하게 여긴단다.

다윗: 예수님, 왜 이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님: 네가 악으로 기울어지는 성향을 지닌 너희 인간의 본성을 따라가고, 네 발이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천사들을 보내 너의 발걸음을 지켜줄 정도로 너는 나에게 소중한 존재임을 잊어버릴 때, 너는 너 스스로 너 자신을 가치 없는

존재로 여기는 것이란다. 오 다윗아! 나는 너의 조물주라, 너를 너무나 소중히 여기는 그 영혼보다 내가 훨씬 더 큰 권리로 너를 즉시 도울 준비가 되어 있음을 깨달아다오.

다윗: 하느님, 당신은 나의 전부이십니까?

예수님: 내 사랑아.

다윗: 말씀하십시오, 예수님.

예수님: 그래, 내가 너의 전부이다. 그렇다는 것을 너도 잘 알고 있으면서, 왜 또 묻느냐?

다윗: 예수님, 저는 그 말씀을 당신이 직접하시는 것을 듣고 싶었습니다.

예수님: 다윗아, 네 손을 나에게 다오. 너는 나의 길에서 벗어나지 말아라. 내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 행복해 질 것이다. 이제 평안히 가거라.

1996년 12월 4일, 콜론

예수님: 그것이 저 땅에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지 보았느냐? *(비료를 말씀하신다.)*

다윗: 예, 예수님.

예수님: 너의 비참함도 그와 마찬가지로 나를 믿고 의탁하는데 가치가 있단다. 언젠가 너는, 너의 나약함이 하느님과 일치를 이루게 하는 도구가 되었음을 알고 행복을 느낄 것이다.

1996년 12월 10일, 콜론

예수님: 애야, 네가 다시 나의 사랑과 자비를 반사하는 행동을 하는 것을 보니 너무나 기쁘단다. 너는 날이 갈수록 더욱 네 몸은 나의 성전임을 깨달아야 한단다. 네가 그 성전을 깨끗하게, 다시 말해, 더러운 먼지나 불결한 것 없이 청결하게 유지해야 하듯이, 나도 그 성전을 보살펴야 할 의무가 있단다. 성령께서 아주 자유롭게 네 존재 안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나에게서는 너의 몸, 너의 생각, 너의 지향과 행동들이 정결의 옷 또는 애덕의 옷으로 갈아입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단다. 너는 알고 있느냐, 내 사랑아?

다윗: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 내가 얼마 전에 나한테 <하느님, 저를 당신의 것으로 삼아주십시오.> 라고 말했었지. 그 청을 듣고 나는 정말 기뻐한다. 나는 그 영혼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이 도공의 손에 자신의 조형을 맡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면, 더 큰 기쁨을 느낀다.

다윗: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저는 제가 당신을 사랑하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당신을 사랑하고 싶어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이 이 정도면 됐다고 흡족해 하실 때까지 새롭게 만드시도록 저를 당신께 내맡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이 작업은 너와 내가 함께 해야 하는 일이다. 내가 해야 할 것은 내가 하겠지만, 이미 말한 것처럼, 너 자신이 해야 할 부분이 더 많이 있다. 만일 네가 너의 비참함, 아니면 너 자신을 버리는데 유념하여 모든 것을 받아들일 생각을 계속 유지한다면, 분명히 말하거니와, 더욱더 너는 내 안에 나는 네 안에 살기 시작할 것이다. 이제 평안히 가거라.

1996년 12월 11일, 콜론

예수님: 인내하여라, 불안해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혼란해 하지 말아라.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고, 애덕이 결여되었을 때보다 온유할 때가 더 많은 승리를 거둔다. 내 성심을 더 열렬히 사랑하여라. 그러면 내 명에가 얼마나 편한가를 보게 될 것이다.

다윗: 예수님.

예수님: 애야,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잘 알고 있다. 나는 네가 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하며 타당하고 올바른 이유없이 행동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것이다.

다윗: 오 예수님! 당신은 얼마나 저를 살피시지요.

예수님: 내가 사랑스러워서 많이 많이 보살핀다. 애야, 잘 보아라.

다윗: 무엇을 말입니까?

예수님: 너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나한테 청해야 하는 것 말이다. 나는 도시를 점령할 수 있는 자보다 자기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영혼을 더 좋아한다.

다윗: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는 아무 것도 아니고, 정말 나약합니다.

예수님: 알고 있단다, 애야, 도와주는 것이 나의 취미이고, 내 이름을 경외하여 성장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도와줄 때는 더 즐겁기 때문에 내가 너를 도와 줄 것이다. 이제 평안히 가거라.

1996년 12월 16일, 콜론

예수님: 애야.

다윗: 말씀하십시오, 예수님.

예수님: 나는 네가 성실한 지향과 생각과 행동을 지닌 영혼이 여기 이 땅에서 받는 축복을 더 많이 생각하기를 바란다. 나는, 애야, 네가 행동으로 말하고 복음을 전하기를 바란다. 다시 말해, 네가 내 안에서 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네 안에서 내가 더욱 빛날 것이다.

다윗: 주님!

예수님: 왜 이상하게 생각하느냐? 너와 세상 사람들은 네가 보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불가능이란 없으신 하느님과 함께 하고 있음을 깨달아라. 첫째는 사랑하기 때문에, 둘째는 한 영혼이 나에게, 특히 내 자비에 의탁할 때 느끼는 내 기쁨이 크기에 나는 아무도 홀로 버려두지 않는단다. 그러니 나를 믿고 의탁하여라.

다윗: 이것은 제가 배우고 실천에 옮겨야 할 교훈입니다.

예수님: 그래, 나도 알고 있단다, 그러나, 그 일이 너한테 맡겨졌을 때 왜 하지 않았느냐? *(시편 한 편을 노래했어야 하는데 하지 않았던 것을 말씀하신다.)*

다윗: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예수님: 나는 다른 이유가 있음을 알고 있단다. 어떤 이유인지 알고 싶으냐?

다윗: 예.

예수님: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큼 너는 아직도 나에게 대한 진정한 사랑을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이란다. 다윗아,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몰아낸단다. 그리고 다정하고 자비로운 내 성심에 반한 영혼은 더더욱 두려움을 모른단다. 나를 사랑하여라, 네가 그 영혼에게 반했었던 것처럼 나에게 대한 사랑에 취해 보아라. *(나의 옛 약혼녀를 말씀하신다.)*

다윗: 예수님, 왜 당신의 감정을 이미 수 년 전에 있었던 그 일과 비교하십니까?

예수님: 그 일이 수 년 전에 지나간 일임은 분명하지만, 네가 나를 열렬히 사랑하기를 바라는 내 마음을 표현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란다.

다윗: 예수님, (저도 남자이고) 당신도 남자인데, 그건 좋은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 애야, 나는 너의 하느님, 너의 창조주이며,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너를 생각했었다. 나에 대한 사랑을 인간적인 사랑으로 생각하면서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나를 닮는 것을 방해하는 그 생각을 그냥두지 말아라. 나를 온전하게 사랑하기 시작하여라. 그렇단다, 애야, 내 계명을 지키면서 나를 온전하게 사랑하기 시작하여라. 너는 알고 있느냐?

다윗: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 너는 너무 많은 일에 신경 쓰고 있단다. 한 가지 일에 마음을 두어라. 곧 나에게 충실하여라. 오늘날의 세상은 내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나에게 충실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망각해 버렸다. 너는 이런 사람, 곧 겸손과 인내와 관대함이 결여된 사람은 그 누구도 내 마음에 들지 않음을 잊지 말아라. 이 향수들이 네가 본 그 향수들보다 향과 품질이 훨씬 더 좋단다. (진열대에 놓인 몇 가지 향수들이 내 눈길을 끌었다.) 겸손과 인내와 관대함의 향기는 내 시선을 끌고, 내 향기를 풍기는 사람이 누구일까, 그런 향기를 풍기려고 누가 노력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드니까 말이다.

다윗: 예수님, 예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그래,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그러나 너도 나를 도와주어야 한단다. 어떻게냐고? 조금씩 조금씩 낡은 인간을 벗어버리면서 말이다. 너는 단 하루도 내 성령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느끼려는 노력 없이 보내지 말아라.

다윗: 예수님...

예수님: 말해 보아라, 애야.

다윗: 저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은총, 당신의 힘, 그리고 당신이 더욱더 필요합니다.

예수님: 네가 말하는 모든 것을 나도 느끼고 있단다.

다윗: 그러나, 당신은 당신 자신에게 기댈 수 있으시니까, 그건 저한테는 없는 장점입니다. 저는 나약함 자체지만, 당신은 전능한 분이시니까요.

예수님: 애야, 나는 내가 지닌 그 장점 때문에 사람들이 내 일에 함께하는 것을 좋아하고 또 내 일에 사람들의 개입이 필요함을 너에게 말해주고 싶단다. 사람들은 내 일에 참여하고 개입함으로써 나의 권능을 더 분명하게 보게 되니까 말이다. 이제 평안히 가거라.

1996년 12월 26일, 콜론

예수님: 애야, 왜 낙심하고 있느냐? 나는 누구와 친교를 맺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단다. 그러니, 너의 비참함을 통해서 내가 네 안에서 받을 수 있는 영광이 얼마나 큰가를 생각하여라.

다윗: 예, 예수님. 그러나...(내 말을 막으셨다.)

예수님: 너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너의 교만일 따름이다. 너는 너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나 없이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여라. 오 애야! 너에게 썸 바칠 것을 요구할 때, 나는 너의 승리, 너의 실패는 더더구나 생각하지 않고, 나를 위해 흠 없는 자가 되려고 노력하며 다시 일어서곤 했던 것들만 염두에 두리라는 것을 너는 알고 있느냐?

다윗: 아닙니다. 모르고 있었습시다.

예수님: 이제 그것을 알았으니 됐단다. 애야.

다윗: 말씀하십시오. 예수님.

예수님: 너의 마음 속에 두려움이 있느냐?

다윗: 예, 그렇지 않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두려워하지 말아라. 만일에 너의 결점과 욕정들을 굳센 바위인 나에게서 출발하여 바라본다면, 너는 아무리 거센 바람이라도 그 바람이 너의 집을 무너뜨릴 수 없음을 알게 될 것이다. 너의 집은 곧 나의 집이기도 하니까 말이다. 너를 사랑하는 나, 너의 하느님께서 당신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돌보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느냐? 나를 사랑하여라, 겸손하고 회개하고 낮추인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여라. 이제 평안히 가거라.

1996년 12월 28일, 콜론

예수님: 내 영혼이 너를 애타게 기다린단다. 나는 너에게서 받는 것만으로는
흡족하지가 않고, 더 많은 것을 원하고 있단다. 나는 네가 성령께 너 자신을 더
많이 열기를 바란다. 나와 내 아버지가 너를 우리의 초소로 삼을 수 있도록
말이다.

다윗: 하느님!

예수님: 왜 이상하게 생각하느냐? 너는 왜 나에게서 별반 중요치 않은 것에 시선을
두느냐? 내 사랑아, 너에 대한 내 사랑의 힘이 너의 결점들을 물리치고 네 마음을
깨끗하게 해 줄 것이다. 이제 평안히 가거라.

1996년 12월 29일, 콜론

1997 년 1 월, 콜론

예수님: 애야.

다윗: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 내가 느끼는 그 아픔은, 내가 내침을 당하거나, 또는 내가 나의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할 때 느끼는 나의 아픔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하는데 도움이 된단다. 오 다윗아! 너에 대한 이 큰 목마름, 내가 주는 물을 마시러 더욱 자주 나에게 오기를 기다리는 애타는 마음을 너는 깨닫지 못하겠느냐?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해 둔 은총과 덕을 달라고 청하고, 찾고, 내 성심의 문을 두드려라.

다윗: 예수님, 무슨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알고 있단다, 애야. 이 모든 것을 네 마음 속에 새겨 곰곰이 생각하여라. 이제 평안히 가거라.

1997 년 1 월 첫째 날, 콜론

예수님: 애야, 네 마음을 더 많이 나에게 다오. 성화되려는 너의 노력에 용기를 잃지 말아라. 성화는 무엇에 바탕을 두고 있느냐? 나를 기쁘게 하는 것들을 행하는데 있느냐, 아니면 내가 받고 싶은 그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해주는데 있느냐? 오 애야, 다윗아! 너의 법은 사랑이 되어야 한단다.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또는 한 발자국을 내딛기 전에, <이것이 사랑에 기여할 것인가?> 를 먼저 생각하여라. 그렇게 하면 우리의 관계를 위협하는 실수나 잘못들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시대에는 이 세상이 부르는 연가에서 너를 지켜야 할 것이다. 네가 아무 것도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한다 하더라도, 너를 도와주고 싶어하시는 그분을 신뢰하면서 말이다. 그렇단다, 애야, 나는 너를 도와주고 싶고, 너를 고쳐주고 싶단다. 나는 네 안에서 살고 싶고 네 안에서 살아야 할 필요도 있단다. 이렇게 하려면, 너는 나날이 작아져야 하고, 나 없이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을 느끼고 깨달아야 한단다. 오 나의 사랑아! 너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을 그 회색 구름이 덮어버렸던 것을 기억하고 있느냐?

다윗: 예, 그러나 그것은 몇 달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 물론 알고 있단다. 그러나 너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이 세대에 이같은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음을 너에게 알려주고 네가 명심하고 있도록 하기

위해서란다. 이럴진대, 너는 내 영의 인도에 따라 살고, 너의 하느님을 두려워하거나 불신하지 말라고 말해두고 싶단다.

1997년 1월 8일, 콜론

예수님: 애야.

다윗: 말씀하십시오, 예수님.

예수님: 너는 이길 수 없는 것을 이기시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느님께 봉헌되었다는 것을 알고 기쁘지 않느냐? 너의 삶은 내 손에 들어있고, 지금은 내가 너의 생각, 너의 감정, 너의 지향과 너의 활동의 고삐를 잡고 있는 분임을 알고 환희로 채워짐을 느끼지 않느냐? 오 나에게 봉헌된 자야! 네 영혼의 원수들이 너와 맞서 너를 위협할 때, 나의 군대가 아닌 어떤 군대가 그들을 무찌를 수 있겠느냐? 너에 대한 나의 사랑은 너무나 커서 네가 나를 믿고 의탁하면, 너의 원수들을 한순간에 물리쳐 버릴 수 있는 힘이 있음을 깨달아라. 사랑하는 자야...

다윗: 말씀하십시오, 예수님.

예수님: 너는 언제부터 평온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는지 알고 있느냐?

다윗: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아무 댓가도 바라지 않고 내어주고, 네가 다른 사람들에게 당하는 것을 너의 죄에 대한 대가라고 생각하며 받아들일 때 시작된단다. 다른 사람들의 무관심과 멸시, 반대의 잔을 마실 때, 너의 인권과 네 생각이 무시당하고, 너를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슬픔에 잠길 때도 계속 사랑하여라. 이것이 네 영혼에 꼭 필요한 약들이란다. 다시 말해, 네 안에서 내가 커지도록, 너는 겸손하고 작아져야 한단다. 이제 평안히 가거라.

나중에.

예수님: 네가 청하는 것에 내가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 해도 계속해서 내 은총을 청하지 않으면, 너는 네가 행하고 싶지 않은 악을 행하고 말테니까... 아무리 그 원의와 의도가 크고 훌륭하다 해도, 너 혼자서 그렇게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정결한 마음을 갖는 것을 말씀하신다.) 나는 너에게 말하는 그 창조의 중심이란다. <하느님을 사랑하여라, 하느님께 의탁하여라.>

다윗: 예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나는 내가 기뻐하는 일 하기를 목말라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무척 즐겁단다. 불평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내 손에 너를 맡겨라. 이제 내 평화를 간직하여라.

1997년 1월 13일, 콜론

예수님: 애야, 내가 주는 은총을 헛되이 쓰지 말고, 깨끗한 마음으로 나를 점령하여라.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계속하는 그 영혼들에 대한 호의를 버리지 않는데, 너에게도 그럴 수 있기를 바란다. 너는 성령의 성전과 너의 하느님의 처소가 되라는 부르심을 받고 있단다.

다윗: 예수님, 예수님, 저는 약하고, 어리석습니다. 힘이 없고 제 욕망에 지배받고 있는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 내 사랑아, 걱정하지 말아라. 나는 네가 너의 인간적인 본성을 거슬러 허덕이고 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단다. 그리고 너의 귀에 대고 내가 <내 사랑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단다.> 하고 말하는 것도 그 이유 때문이란다. 오 다윗아! 우리 사랑의 힘을 깨달아라. 그 어떤 무기도 결코 그 사랑과 비교할 수 없단다. 그 힘은 너의 나약함보다 훨씬 강하고, 네 영혼의 원수들보다 더 강하고, 너의 결점들보다 더 강하기 때문이란다. 왜 가만 있느냐? 무엇이든 말해 보아라.

다윗: 무슨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주님, 어서 오셔서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해다오.

다윗: 주님, 어서 오셔서 저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그래, 애야, 어서 빨리 너를 도와주러 가겠다. 나는 너를 사랑하고, 더구나 네 영혼의 원수들이 너를 이기도록 두는 것은 나의 뜻이 아니란다. 이 마음 안으로 피신하여라. (당신의 성심을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큰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으로 회심하도록 노력하여라.

다윗: 나의 왕이신 예수님, 제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당신께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더욱 불타오르도록 제 마음에 장작을 넣어주십시오.

예수님: 나는 나의 몸과 피, 내 영혼과 신성을 너에게 줄 때 그렇게 하고 있단다. 이제 평안히 가거라.

1997년 1월 31일, 콜론

1997 년 2 월 - 3 월, 콜론

예수님: 내 사랑아, 나는 네가 필요하단다. 너를 지어낸 때부터, 나는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과 똑같은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일 밖에 다른 일은 한 것이 없단다. 나는 너의 방패이고, 네가 나에게 의탁하면, 나는 더욱 애뜻한 마음으로 너를 보호하고 싶어진다. 내가 언제나 그렇게 하듯이 너도 자비로운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 이 한가지 일에만 마음쓰도록 하여라. 내가 너에게 약간의 거리를 두고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너에 대한 나의 도움과 원조는 그대로 둔 채 그렇게 하는 것이 네가 나를 닮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란다. 네가 박해나 곤경, 또는 그 비슷한 것들을 당한다 해도, 아무 것도 너에게서 나를 떼어놓지 못하고, 너를 도우려는 내 마음도, 내 은총으로 너를 도우려는 내 갈증도 감소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너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한단다.

다윗: 예수님, 사실 저는 제 믿음이 성장해야 한다는 것과 저에게 주신 이 은총에 집착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 그래, 알고 있단다. 그러나 너에게서 직접 듣고 싶단다.

다윗: 예수님이 제 마음에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이 즐겁고, 그 크신 당신의 사랑으로 그렇게 하실 때에는 더 즐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애야,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란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한 약속 안에 피신하고 행동하는 것이란다. 네가 아무리 깊숙한 골짜기에 간다해도 내가 좋아하는 것을 행하기를 기대하면서, 나는 거기서도 너를 보고 있으리라는 것을 생각하며 행동하는 것이란다. 이제 평안히 가거라.

1997 년 2 월 첫째 날, 콜론

다윗: 예수님.

예수님: 말해 보아라, 애야.

다윗: 저는 분명 당신의 뜻에 위배되는 것은 피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네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깨달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임을 알았느냐? 이것을 깨닫는 영혼은 그의 마음이 내 영의 영향과 인도를 받기 때문이며, 그 영혼이 봉헌된 영혼일 때에는 더욱 그러하단다. 나는 너에게 내 영의 활동을 방해할 수 있는 사소한 것들을 조금 더 피하도록 노력하라고 권유하단다. 이것은

내 아버지와 내가 너의 마음 안에 우리의 처소를 마련하는데 너무나 중요한 필수조건이라 생각해도 된단다.

다윗: 제 마음이 어떤지는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렇게 중요하지 않단다. 더 중요한 것은 필요하다면 필요한 만큼 네 마음이 나에게 기쁨을 주려고 노력하는 것이란다. 다시 말해, 하느님은 마음이 깨끗한 (정결한) 사람에게는 어떤 은총이든 내려주시며, 마찬가지로 노력하는 사람들을 보고도 당신의 마음을 움직이신단다. 그들에게 나를 닮는데 필요한 은총을 내려주시려고 말이다. 나는 이 사람들, 용기를 잃지 않고 항구하게 싸우는 사람들, 나를 믿고 의탁하는 사람들에게 눈을 둔단다. 너도 이미 알고 있는 이것을 다시 말하는 것은, 네가 나의 충고들을 너무 빨리 잊어버리곤 하기 때문이란다. 네가 왜 그렇게 잘 잊어버리는지 아느냐?

다윗: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아직도 너의 마음이 이런 말이 주는 기쁨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란다. 나는 네가 그 경지를 넘어서서 나의 말들을 마음 속에 간직하고 묵상하면서 그 안에 깊이 침잠하기를 원한단다. 할 말이 있느냐?

다윗: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 그러면 네가 있는 곳에 나도 함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이제 평안히 가거라.

1997년 2월 5일, 콜론

다윗: 예수님, 왜 그전처럼 말씀을 안 하십니까? 전에는 하신 말씀이 지금은 왜 없어졌습니까? 무슨 일이십니까? 제 결점들 때문에 저를 멀리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 내 사랑아,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의 친밀함은 너무나 깊어서, 서로 사랑할 때는 사랑 그 자체가 모든 감각들을 대신하므로, 너의 귀가 나에게서 듣고, 너의 눈이 나를 보고, 너의 입술이 나에게 말할 필요가 없음을 깨달아다오. 나는 네가 너 자신을 더 많이 나에게 내어주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느끼고, 내가 네 안에서 보고, 듣고, 말하고, 만지고, 곁을 수 있도록 너의 눈, 너의 귀, 너의 입술, 너의 손과 너의 발을 끊임없이 나에게 내어주기를 바란단다. 결국 내가 바라는 것은 너는 내 안에 나는 네 안에서 사는 것이며 네가 나의 일들을 맡아주고, 너는 작아지고 나는 커지고 나는 떠오르고 너는 내 성령 안에 깊이 잠기는 것이란다. 오 다윗아! 너를 보면, 나에게 너 자신을 열기를 얼마나 내가 고대하고 있는지 너는 상상도 하지 못할 것이다.

다윗: 예수님, 지금 저는 불쌍한 사람이고, 생각보다 훨씬 더 나약한 사람이라는 말씀밖에 드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애야, 네가 하는 말은 새로운 것이 아무 것도 없단다. 누가 너에게서 나를 떼어놓을 수 있겠느냐? 너는 이 칼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나는 너의 모든 비참함을 능가하고 있는데, 너의 나약함에 대해 무슨 말을 하겠느냐? 오 복된 나약함이여! 그 나약함이 내가 이 말을 하게 만든단다, 나의 전능은 타오르는 불과 같고 너의 나약함은 마른 풀과 같다고 말이다.

다윗: 예수님, 저를 받아주십시오. 제 존재를 온전히 받아주십시오.

예수님: 그렇게 하겠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고 네가 그렇게 열심히 가꾸던 밭을 벌레들이 황폐하게 만들 때, 그 벌레들이 보여주던 끈질긴 항구함을 눈여겨 보고 그것을 모범으로 삼아라. 너는 그것을 기억하느냐?

다윗: 예, 기억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아무리 애를 써도 모두 썩데밭이 되어버렸는데요.

예수님: 너의 항구함도 그래야 한단다. 모든 것이 너의 끈기를 시험하는 것 같아도, 노력에 노력을 더하여라. 만일 그 영혼이 기꺼이 너를 도와주려 한다면, 나는 얼마나 그렇게 하고 싶어하겠는가 생각해 보았느냐? 어제보다 더 나를 신뢰하고 나를 사랑하여라.

다윗: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 이제 내 평화와 함께 가거라.

1997년 3월 4일, 콜론

다윗: 예수님, 무슨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당신의 것이 되고 싶고, 저를 받아주시고 당신의 성령으로 저를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 애야, 너는 누구와 친교를 맺고 있는지 알고 있느냐? 내 사랑의 힘에 대해 깨달았느냐?

다윗: 예, 예수님.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님: 나는 다시 너와 함께 오래 전에 했던 일을 하고 싶기 때문이란다. 내 안에 항구하게 머무는 영혼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는지, 내 계명을 지키고 나를

사랑한다면 어느 경지까지 다다를 수 있는지를 너에게 보여주는 것 말이다. 성화는 여기서 시작되고 여기에 기초를 두고 있단다. 나를 사랑하여라, 나에 대한 사랑을 목말라하고, 나를 기쁘게 하는 일에 열중하여라. 너는 이 원의를 증가시키고 싶으냐?

다윗: 예, 예수님.

예수님: 내 사랑아, 그렇게 해주마.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인도하고 내 손으로 너를 데려가 보호하겠다.

다윗: 그리고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다윗아, 알고 있느냐?

다윗: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 나는 네가 좋아하지 않는 일과 활동을 얼굴에 싫은 기색도 없이 기꺼운 마음으로 하는 것을 보면 정말 기쁘단다. 오 다윗아! 그들 안에서 생명의 하느님이 커지시도록 자기를 버리는 영혼들이 체험하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너는 상상도 하지 못할 것이다.

다윗: 나의 예수님...

예수님: 말해 보아라.

다윗: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

예수님: 나도 그렇단다, 애야. 우리는 서로를 보살펴야 한단다. 너는 나에게서 멀리 가지 않도록, 나는 언제나 너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네가 떠나지 않도록 말이다. 이제는 너의 마음이 나에게 이야기하고, 기도를 통해서 너에게 내 은총을 내려주도록 우리 이야기를 끝내도 되겠느냐?

다윗: 예, 예수님.

예수님: 다윗아...

다윗: 말씀하십시오.

예수님: 대답을 잘 했단다. 기도보다 더 아름다운 것, 마음의 기도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아무 것도 없단다. 내 평화를 간직하여라.

1997년 3월 5일, 콜론

다윗: 예수님, 차갑고 삭막하고 황량한 이곳에서 뛰쳐나가고 싶은 마음 굴뚝 같습니다. (그 날짜에 나는 신학교에 들어갔다.)

예수님: 애야, 이 분위기는 다른 곳들과 비교하면 아무 것도 아니란다.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곁에 있고 너와 내가 함께 사막에서 생수가 흘러나오게 할 것이다. 오 다윗아! 지금 너는 사냥꾼들의 총소리를 듣고 두려워 떠는 작은 사슴 같구나. 두려워하지 말고, 유순하여라. 나는 아무 것도 너에게는 악으로 작용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힘을 내어라, 내 사랑아! 너는 아무도 내치지 않고, 내 명을 지키고 그 명을 완수하려고 노력하는 영혼은 더더구나 내치지 않으시는 그분과 함께 있단다. 유순하여라, 아무 것에도 중단하지 말아라. 모든 것을 행하고, 너의 결점들과 네가 사랑으로 행할 때 내가 느끼는 큰 기쁨을 생각하여 모든 것을 받아들여라. 오 애야, 다윗아! 내 성심에 깊이 잠겨라. 네 자신의 편의나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찾느라고 네가 좋아하지 않는 그것들을 헛되이 하지 말아라. 지금이 바로 네가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었던 그 사람들 (성인들) 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해야 할 때란다. 나를 보아라, 너의 스승, 네 하느님의 발자취를 따라오너라. 너는 나를 닮고 싶어하지 않았느냐?

다윗: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를 닮으려고 한다면, 너는 그렇게 되기에 아주 알맞은 분위기안에 살고 있단다. 나머지는 내가 책임질 것이다. 이제 내 평화를 간직하여라.

1997년 3월 9일, 콜론

예수님: 다윗아, 내 사랑아. 오늘은 내가 너를 얼마나 도와주고 싶은지 그리고 더욱더 네 안에 살고 싶어 얼마나 애가 타는지 너에게 말해주고 싶단다. 너의 마음은 나에게 속해 있고, 너의 영혼은 나와 먼 거리에서도 자신의 조물주를 알아본단다.

다윗: 무슨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하시는 말씀은 다 옳으시니까요.

예수님: 내 사랑아, 더 영적인 사람이 되어라. 다시 말하면, 육체의 욕망에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 영의 이끄심에 따라 사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다. 봉헌된 영혼이 자신의 욕정에 따라 살면 그 영혼은 자신의 쾌락에 얽매어 사느라 자유로운 존재가 되지 못한단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죽일 수 있는 욕망, 장소, 욕정과 감정을 두려워해야 한단다. 서서히 강국을 무너뜨리는 그

작은 군대들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깨어있어야 한다. 오 나의 사랑아! 더욱더 나로 가득 채워진 사람이 되려는 소망을 품고 내 몸을 받아 먹고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다윗: 예수님, 많은 것을 말씀드리고 싶지만, 사실은 무슨 말씀을 어떻게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걱정하지 말아라. 중요한 것은 한 가지 뿐,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너에게 말하는 모든 것을 네 마음 속에 간직하는 것이란다. 이 모든 것을 네 존재 가장 깊은 곳에 간직하고 묵상하여라. 나머지는 내가 책임을 질 것이다. 이제 평안히 가거라.

1997년 3월 16일, 콜론

예수님: 애야, 너는 물을 마실 필요가 있느냐?

다윗: 예, 예수님.

예수님: 그러면 나는 너에게 하루 하루가 전적으로 나를 기쁘게 하고 내 뜻에 따라 행하는데 꼭 필요한 날이 되어야 한다고 말할 수 있겠구나. 너의 회심은, 내 사랑아, 매일같이 지속적인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되어야 한다. 네가 나약하다고 느낄 때, 낙심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그 나약함 때문에 네 곁에 다가갈 수 있으니까 말이다. 무슨 목적으로냐고? 그것은 너를 나로 가득 채우고 나와 일치함으로써 너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서란다. 내 사랑아, 나는 네가 너 자신을 다스리는데 전념하기를 바란다. 나는 자기 자신을 지배할 줄 아는 사람을 보면 즐거우니까 말이다. 이제 내 평화를 간직하여라. 그리고 예전에 이미 말한대로, 크나큰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으로 회심의 길을 걷도록 노력하여라.

1997년 3월 19일, 콜론

다윗: 예수님, 저는 너무나 괴롭습니다! 당신께 대한 미지근한 충실성 때문에 얼마나 큰 아픔을 느끼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당신께 충실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 마음을 다하여 충실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예수님: 진정하고 안달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너는 한 영혼이 사람을 내신 창조주만을 유일한 주인으로 삼을 때 행복을 느낄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한 영혼의 마음이 끊임없이 왔다가 사라지는 감정들로 가득 찬다면, 참되신 하느님께 성실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다윗: 예수님, 제 마음은 아직도 너무나 완고하고 수많은 비참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예수님: 내 아이야, 내가 너를 유순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그리고 네 자신을 나에게 맡기는 정도에 따라 나도 너의 결점들을 그만큼의 덕으로 변화시켜 줄 것이다. 다시 말해, 나의 영을 향해 너 자신을 얼마나 여느나에 따라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우리의 거처로 만들려 올 것이란다.

다윗: 저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는 모두 당신의 것입니다.> 라는 한가지 말씀 밖에 드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 그리고 너는 나를 어디에 두느냐? 나 또한 남김도 한계도 없이 모두 너의 것이란다.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당신의 몸과 피를 끊임없이 내어주시는 그분께 너도 그와 같이 하여라. 이제 내 평화를 간직하여라.

1997년 3월 31일, 콜론

1997 년 4 월, 콜론

다윗: 제가 당신 앞에 있을 때 (성체 조배를 하고 있었다.) 깊은 침묵을 체험하게 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말이 사라지고, 있다 하더라도 아주 조금 밖에 남지 않습니다.

예수님: 내 사랑아, 그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네가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좋단다. 나와 함께 있을 때는 너의 느낌과 감정들을 표현할 말이 필요없단다. 침묵만으로 족하다. 내 권고에 귀를 기울이는 너의 태도만으로 충분하단다. 나를 사랑하여라, 눈을 조심하여라, 너의 입술, 너의 몸, 네 영혼으로 나를 영광스럽게 하고, 너의 나약함에 기울어져 육정에 따라 살지 않도록 하여라. 오 나의 영혼아! 항상 기도하고 희생하여라, 악마들은 그 사람 안에서 회개와 속죄의 향기를 맡으면 그 사람에게서 달아난단다. 넌 알고 있느냐, 내 사랑아?

다윗: 말씀하십시오, 주님.

예수님: 나는 네가 더욱 정결하고 더욱 충실하기를 바란단다. 너는 아직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느냐?

다윗: 물론 알았습니다.

예수님: 그러면 애야, 회심하기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여라. 나는 너에게 줄 은총을 많이 갖고 있단다. 그리고 너 자신을 잊고 더욱 투신적으로 이 작품에 협력하기를 원한단다. (주: 예수님과 대화 기록하고 책으로 엮는 작업을 말한다.) 오 나의 사랑아! 너에 대한 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느껴 보아라. 나는 더욱더 나를 닮은 너를 보고 싶구나. 그러나 너 자신의 방법으로 그렇게 되기는 불가능하단다. 높은 데서 (하늘에서) 내려온 은총이 너를 선한 사람으로 변화시키니까 말이다. 다윗아...

다윗: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 네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아니면 너의 주목을 가장 많이 끄는 것이 무엇인지 말해보겠느냐?

다윗: 예수님, 저는 성령의 도우를 받아 당신을 전할 수 있는 은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내 사랑아, 그러려면 네가 정결의 덕을 더욱 소중히 하고, 고요하고 신중하며 나를 목말라하는 영혼이 되는데 마음을 많이 써야 한단다. 나는 너에 대한 나의 바람을 버릴 수가 없단다. 너의 삶 안에 나를 더욱 깊게 받아들이고, 이

신분 (봉헌생활) 안에서는 더욱더 나에게 의존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 말이다. 오 다윗아! 네가 느끼는 일상의 기쁨이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을 행하게 하는 힘이 되기를 바란다.

다윗: 예수님, 예수님! 당신의 이름을 부르게 해주십시오. 저에게는 당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가슴에 기대어 이제는 당신께 잘못을 범하고 싶지 않다는 말씀을 드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당신의 사랑의 불이 제 안에서 비쳐져 나오기를 원합니다. 오 예수님! 오 예수님! 당신의 껌에 넘어가게 해주십시오. 당신을 더욱더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더욱더 당신의 마음에 드는 것을 행하려는 목마름과 굶주림을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예수님: 애야, 그렇게 될 것이다. 세시 반에 (공동체의 미사 시간이다.) 네가 더욱 큰 나의 기쁨이 되려고 나에게 청하는 은총들을 너에게 주겠다. 이제 평안히 가거라.

1997년 4월 12일, 콜론

예수님: 애야, 내가 너에게 너는 화를 내거나 불평할 권리가 없다고 말한 이유를 깨달았느냐? 너는 나약하고 또 언제나 내 뜻에 어긋나는 일을 행하는 데로 기울어져 있는 존재란다. 때때로 너의 그 완고함은 네 옆에 있는 그 무쇠보다 더 단단하다는 인상을 받게 한단다.

다윗: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오 하느님!... (예수님께서 내 말을 끊으셨다.)

예수님: 너를 낙심시키려고 이 말을 한 것이 아니란다. 오히려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너의 모든 잘못과 태만, 무관심을 다 잊어버린다는 사실을 깨달으라고 하는 말이다. 너는 네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야한단다. 내가 너를 대하듯이 너도 그렇게 너의 이웃을 대해야 한단다. 나에게 이 봉헌물을 바치겠느냐?

다윗: 예, 예수님. 두배로 노력하겠습니다.

예수님: 평안히 가거라.

1997년 4월 15일, 콜론

예수님: 애야, 시간 좀 내어 주겠느냐?

다윗: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예수님: 너에 대한 나의 사랑은 너의 나약함에도 너의 두려움에도 변함이 없으리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고 싶단다. 너를 도와주고 싶기 때문에 말이다. 나는 내 친구가 내가 이미 승리를 거둔 것들의 지배를 받으며 사는 것을 보면 고통스러울 것 같단다. 나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너라. 와서 내 성심안에 들어있는 산해진미를 맛보아라. 그리고 이 손을 놓지 말아라. (당신의 자비를 말씀하신다.)

다윗: 예수님,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하지만, 저는 너무 나약합니다.

예수님: 알고 있단다, 애야 알고 있단다. 넌 알고 있느냐?

다윗: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 너에게 나의 은총이 충분하다는 것을 나도 알고 있단다. 더구나 네가 <오 하느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노력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할 때, 나는 너무나 큰 기쁨을 느낀단다.

다윗: 그 말씀이 저에게 위로가 됩니다.

예수님: 오너라, 와서 내 성심의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셔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힘이 되느냐?

다윗: 예, 힘이 납니다.

예수님: 이제 내 평화를 간직하여라.

1997년 4월 17일, 콜론

예수님: 애야, 나는 네가 필요하단다. 네 안에서 나의 얼굴을 반사하고 싶단다. 내 아버지와 나는 네가 우리의 처소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을 너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였느냐? 내 영에 너를 열어라.

다윗: 어떻게 하면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님: 내가 너에게 상기시켜 주었던 것들을 (정결, 겸손과 인내) 실천하는 것으로 시작하여라.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지겠다.

다윗: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무척 변덕스러운 사람이라는 것은 잊지 말아주십시오.

예수님: 그것은 잊지 않는단다. 너에게 낙심하지 말고 너를 위한 나의 사랑에 의탁하라고 하는 것도 그것 때문이란단다. 그 사랑은 아직도 네 안에 자리하고 있는

허망한 것들을 (여기서는 결점들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태워버리는 큰 불꽃과 같단다. 나를 사랑하고,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거룩한 내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도록 노력하여라. 나에게 그것을 봉헌해다오. 그렇게
하겠느냐?

다윗: 예,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이제 평안히 가거라.

1997년 4월 21일, 콜론

1997 년 5 월 - 6 월, 콜론

예수님: 내 영혼아, 너는 무엇 때문에 불안해 하느냐? 사랑은 모든 죄를 용서한다는 것을 명심하여라. 나는 네가 이 (사랑이라는) 화덕 안에 들어가 너의 영혼 안에 들어있는 더러운 모든 것을 태워버리기를 바란다. 낙심하지 말아라, 이 지상에 사는 동안 너는 지속적인 정화의 길을 걸어야 할 것이다. 게다가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내 사랑아, 네가 더욱 헌신적으로 사랑하고, 너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면 할수록 더 많은 사랑을 베풀어야함을 깨닫는 것이란다. 너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아름다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느냐? <오 아버지 하느님, 그가 큰 죄인이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가 범한 잘못들이 자신을 버리기까지 사랑하는데 방해가 된 것이 아님도 사실입니다.> 라고 말이다.

다윗: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그러면 시작하여라. 사랑하는데 지치지 말고 죄인이라는 너의 상태를 염려하지 말아라, 두 발을 땅에 딛고 서 있는 한 너는 항상 죄인일 테니까 말이다. 이제 내 평화를 받아라.

1997 년 5 월 17 일, 콜론

예수님: 애야, 그 영혼이 너의 관심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나도 네가 하는 모든 일에 초대받기를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고 있단다. 우리는 하나이고, 나 없이 너 혼자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을 기억하여라.

다윗: 예수님, 용서해 주십시오. 때때로 저는 당신의 일보다 제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예수님: 너의 모든 근심 걱정들, 너의 결점들과 비참함을 내 손에 맡기고 나를 사랑하여라. 이제 내 평화를 간직하여라.

1997 년 5 월 20 일, 콜론

예수님: 나에게 충실하여라. 충실함은 사랑에 빠진 한 영혼의 깊숙한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행위란다.

다윗: 저는 당신을 더 많이 사랑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그러면 나의 법과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지키도록 노력하여라. (그리고
침묵하셨다.)

다윗: 왜 말씀을 안 하십니까?

예수님: 너에게 무슨 말을 하기를 원하느냐? 내 생각을 표현하지 않았더라
말이나? 나는 네가 나와 더욱 일치하고 내 안에서 살기를 바란다는 것을 말하지
않았단 말이나? 너는 너의 결점들을 이겨낼 수 있단다. 너를 도와주려고 내가 너의
곁에 있으니까 말이다.

다윗: 오 예수님! 저는 당신께 많은 아픔을 드렸고, 당신께서 기대하시는 보답의
향액이 되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시 노력하겠습니다. 당신을 기쁘게
해드리는 행동과 생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수님: 오 애야! 내가 이런 식으로 말하고, (예수님은 매우 느린 톤으로
말씀하셨고, 나로 인해 슬픔을 느끼고 계시다는 인상을 주셨다.) 너에게 내가
어떻게 너와 함께 하고 있는가를 느끼게 해 주는 것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고, 또
너는 내가 오늘까지 나에게 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나에게 줄 수 있기 때문이란
다. 너 알고 있느냐?

다윗: 말씀하십시오.

예수님: 나는 네가 매일같이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을 하려고 열망하기를 바란단다.
네가 얼마나 그렇게 행하느냐에 따라 그만큼의 기쁨, 곧 나를 즐겁게 해주었다는
표시인 큰 기쁨을 느낄 것이다.

다윗: 예수님, 당신은 제가 드리는 즐거움이 많이 기다려집니까?

예수님: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그것이란다. 나를 기쁘게 해다오. 너와 나는
하나이고 우리의 본성, 곧 너의 인성과 나의 신성은 다르다 해도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고, 그 본성의 차이가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도 거룩한 사람이 되는데
결핍들이 되지 않음을 깨달아다오. 이제 평안히 가거라.

1997년 6월 25일, 콜론

1997 년 7 월, 콜론

- 이 기간동안 예수님은 침묵하고 계셨다. 나는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한결같이 행하지 못함으로써 예수님의 마음을 더욱 즐겁게 해드리지 못한 탓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예수님: 애야, 너의 아버지도 완전한 사람이 아니신데, 네가 너의 아버지를 부족함이 있는 아버지로 대하지 않는다면 (나는 우리 아버지에게 큰 애정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다.), 너의 하느님은 얼마나 더 큰 사랑으로 너를 대하시겠느냐? 나에게 충실하고, 나에게 기쁨이 되지 않는 행동들은 피하도록 하여라. 이제 내 평화를 간직하여라.

1997 년 7 월 첫째 날, 콜론

아침에, 성체조배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 나는 내 사랑의 물로 너를 적셔주고 싶단다. 너의 하느님 곁으로 다가오너라. 하느님은 너를 사랑하시고, 분노에 더디시며 사랑하는 사람들의 잘못을 잊고 용서해 주시는데 빠르시단다. 내 눈을 보아라. (성당에 있는 성상 하나를 말씀하신다.) 그 눈에 얼마나 큰 사랑이 담겼는지 보이느냐?

다빛: 예, 많아요.

예수님: 나는 너와 하나가 되고, 네 마음의 유일한 주인이 되고 싶단다. 이제 내 평화를 간직하여라.

1997 년 7 월 2 일, 콜론

다빛: 예수님,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 더 이상 당신을 거슬러 잘못하기 싫습니다.

예수님: 한 영혼이 하느님에 대한 사랑에 빠지면 결코 그분을 거슬러 잘못할 수 없단다. 그가 느끼는 사랑이 그렇게 할 수 없게 만드니까 말이다. 내 사랑아, 나를 열렬하게 사랑하여라. 내가 기뻐하지 않는 것들은 피하도록 하여라, 그러면 네 영혼이 나에게 대한 사랑으로 불타오를 것이다. 더 나아가, 나처럼 행하려고 애써라, 그러면 너는 하느님의 향기를 맡게 될 것이다.

다윗: 무슨 말씀을 드려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제 노력이 너무 미약해 부끄러울 뿐입니다.

예수님: 내 사랑아, 새롭게 시작하여라. 더구나 나는 너를 믿고 있고, 너에게는 네 영혼의 원수들을 이길 힘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단다. 내가 너의 힘이며 너의 모든 허물들을 깨끗이 씻어줄 수 있는 물이니까 말이다. 이제 평안히 가거라.

1997년 7월 6일, 콜론

- 나는 한 아이와 공부하고 있었는데, 그 아이가 반항하는 바람에 무척 화가 났고 혼자 공부하게 내버려두었다.

예수님: 애야, 내가 아이를 다루는 방법을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 먼저 그 아이를 불러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말하여라. 그 다음에, 너는 그것을 할 수 있으니까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말하여라.

-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을 때, 그 아이는 감동해서 사랑스럽게 행동하며 그 과제를 배우기 시작했다.

1997년 7월 9일, 콜론

예수님: 애야, 그 문장이 무척 네 마음에 드는구나, 그렇지 않느냐? (한 사제가 “예수님은 많은 것을 내어주셨으나 오늘 당신은 너무 적게 받으신다.” 라고 한 말을 언급하시는 것이다.)

다윗: 예, 예수님, 제 마음을 당신께 드리고 싶습니다. 제 마음은 모두 당신의 것이니까 받아주십시오.

예수님: 사랑하는 다윗아, 네 마음 속에서 느끼는 모든 것을 억누르지 말고 내게 말하여라.

다윗: 오 예수님! 당신께 충실하고 싶은 마음, 당신을 열렬히 사랑하고 싶은 마음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저를 받아주시고 온전히 당신의 것으로 삼아주십시오.

예수님: 그렇게 될 것이다. 이제 내 평화를 간직하여라.

1997년 7월 10일, 콜론

예수님: 그 영혼이 자기가 기르던 짐승 한 마리를 잃은 것 때문에 아파한다면, 많은 나의 자녀들이 타락의 길을 택하는 것을 볼 때, 내가 느끼는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클런지 너는 상상할 수 있겠느냐?

다윗: 예수님, 제가 당신의 성심을 더욱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싶은 것은 그것 때문입니다.

예수님: 나를 향한 너의 그 사랑에 불을 당기고, 네가 곧 하느님의 현존이 되도록 나에게 충실하려는 너의 목마름을 증가시켜 주겠다.

다윗: 주님, 제가 곧 주님의 현존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신다는 말씀, 진실입니까?

예수님: 그래, 나는 그 소원을 부정할 수 없단다.

다윗: 그러나 제 안에는 당신의 소원을 방해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예수님: 알고 있단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슬퍼해서는 안된다. 지극히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너의 결점들을 극복하도록 도와주실 테니까 말이다. 오 애야! 너는 복되다!

다윗: 주님!

예수님: 왜 놀라느냐? 나를 믿고 의탁하는 사람이 복되지 않단 말이냐? 나는 네가 필요하단다. 너는 내 손에 들어있고, 네가 곧 너의 하느님의 영광이 되도록 나는 네 존재 깊숙한 곳에 내 영을 불어넣어 줄 것이다.

다윗: 그 말씀은 아주 아름답게 들립니다. 그러나 저는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당신이 원하지 않으시는 일들은 얼마나 재빠르게 행하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머리 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님: 나를 신뢰하고 너 자신을 기다릴 줄 알아라, 너의 비참함은 내가 깊어질 테니까 말이다. 너는 내 일들을 맡아주고, 때 순간 어떤 곳에서든지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다시 말해, 자비로운 마음으로 네 둘레의 사람들을 사랑하여라, 애야, 알고 있느냐?

다윗: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 내가 너를 새로운 물독으로 만들고 모양을 잡겠지만,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너의 하느님, 곧 세 번 되풀이하여 기록하시고 영원하신 분의 방법으로 할 것이다.

다윗: 이제 가실 겁니까?

예수님: 그렇단다, 내가 가기 전에 무엇이든 청하여라.

다윗: 나의 하느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제 형제들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 그렇게 할 것이다. 이제 내 축복을 받고 내 평화를 간직하여라.

밤에.

예수님: 내 작은 아이야, 그 영혼이 잃어버렸던 자기 짐승을 되찾아서 기뻐한다면, 죄인 한 사람이 나에게로 돌아오거나 유혹에 빠졌던 한 영혼이 나를 따르려고 다시 일어설 때, 내가 느끼는 기쁨은 얼마나 더 크겠느냐?

다윗: 오 하느님! 저는 상상도 못하겠습니다.

예수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즐거움을 누리기를 원하느냐?

다윗: 예, 그것이 제 간절한 소망입니다.

예수님: 그러면 너 자신을 사랑하듯 네 이웃을 사랑하고, 내가 싫어하는 것은 행하지 말며 네 안에서 끊임없이 나를 반사하도록 하여라.

다윗: 그렇게 하고 싶어서 당신의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내 사랑아, 너는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성인이라는 명성을 얻으려고 좋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려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느냐? 결코 네 주변의 사람들 마음에 들려고 애쓰지 말고, 그들이 아직 아무 것도 아닌 너를 대단한 사람으로 보기를 원하지도 말아라. 모든 허영심을 멀리하고, 그런 의미에서 세상이 너에게 줄 수 있는 어떤 아부도 멸시하여라. 단순한 사람이 되어라, 단순한 사람들은 하느님의 마음을 사로잡는단다.

다윗: 주님, 오 주님! 저는 얼마나 나약한지요.

예수님: 이것을 나에게 묻는 것이냐 아니면 그렇다고 나에게 말하는 것이냐?

다윗: 예, 예수님. 그렇다고 당신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내 사랑아, 나는 너의 나약함을 너와 제 주변 사람들에게 나의 권능을 드러내 보여주는 도구로 쓴다는 것을 알기 바란다. 이제 평안히 가거라.

1997년 7월 12일, 콜론

다윗: 주님, 당신을 즐겁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당신께 상처를 주는 죄로 기울어지는 성향과 맞서 싸울 수 있도록 저에게 당신의 힘을 주십시오.

예수님: 내 사랑아, 나는 죄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살기를 원하는 연민이 많은 하느님이란다. 더구나 너는 하느님의 아들, 네 영혼의 원수들을 이기신 그분의 작품이기 때문에 너의 비참함이 너보다 강력할 수 없단다. 악에 대항하여라. 그러면 그 악이 너에게서 달아날 것이다.

다윗: 주님, 저는 당신을 거슬러 범한 잘못들을 항상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나의 사랑 다윗아, 나는 실망하지 않고 나를 기쁘게 해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의 잘못은 아주 빨리 잊어버린단다. 너는 그 사실을 잊어버렸느냐?

다윗: 그렇지 않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나도 너에게 매력을 느낀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단다. 그 영혼이 너를 도와주려고 서두르는데, 너의 하느님은 더욱더 그러하시단다.

다윗: 예수님은 저를 놀라게 하시는군요.

예수님: 왜 그렇게 말하느냐?

다윗: 저는 두발자국 전진했다 세발자국 물러나고, 아직도 제 자신에게 충실한 것 밖에 모릅니다. 오 하느님! 저는 당신과 함께 하기를 얼마나 원하는지요.

예수님: 너는 그렇게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느냐?

다윗: 아닙니다, 그러나 너무나 어렵습니다.

예수님: 네가 하는 말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그 영혼이 하느님의 힘을 신뢰하고 의탁하지 않을 때 그렇단다. 나를 믿고 의탁하여라. 분명히 말하거니와, 내 사랑의 바다에 빠지면 너는 너의 그 비관주의와 비참함의 산도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다윗: 그러나 주님... (내 말을 막으셨다.)

예수님: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그리고 세상이 생기기 전부터 너를 사랑하신 그분께서 너에게 너 자신을 극복하고 너의 원수들을 정복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시리라는 것을 알아두어라. 이제 내 평화를 간직하여라.

예수님: 내 작은 아이야, 너는 알고 있느냐?

다윗: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 나는 너의 하느님, 네가 성덕에 도달하도록 그리고 네 영혼의 원수들이 나의 발 아래 굴복할 때까지 네가 그 원수들을 이기도록 너를 도와줄 너의 가장 좋은 친구란다. 오 나의 사랑아! 너는 유혹당해 볼 필요가 있음을 깨달아라. 그렇게 해서 너는 충실함에서 성장하고 나, 너의 하느님이 싫어하는 것을 삼가면서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을 하게 되니까 말이다.

다윗: 예수님, 저는 당신의 힘이 필요하고, 당신이 너무 필요합니다.

예수님: 내 사랑아, 나는 온전히 너의 것이다.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성체성사 안에 다 있단다. 보다 큰 신뢰로 이 은총의 제단 앞에 나아가고, 너의 성화에 필요한 모든 것을 취하여라. 성화되지 않으면 아무도 하느님을 뵈지 못할 것이란다. 왜 입을 다물고 있느냐?

다윗: 드릴 말씀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 내 사랑아, 너는 나에게 충실하고, 네 이웃들을 사랑하고, 죄짓게 하는 모든 기회를 피함으로써 나에게 대한 너의 사랑을 드러내 보여줄 기회가 있는데, 천사들에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느냐? 너는 단 일분 일초도 허비하지 말고 너에 대한 지극한 사랑을 보여 주시려고 죽음도 마다 않으신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을 행하여라. 애야...

다윗: 말씀하십시오, 예수님.

예수님: 너는 너 자신의 존재를 깨달았느냐?

다윗: 주님, 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너는 네 어머니 아버지의 아들일뿐 아니라 또한 하느님의 아들이란다. 이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느냐?

다윗: 모르겠습니다, 주님.

예수님: 이것은 네가 세상을 이기고, 유혹의 독사와 네 비참함의 살모사 위를 걸어다니고, 승리하고도 남는 사람이 되고, 너의 하느님을 드러내는 살아있는 모상이 되고, 어느 날 내가 했던 것보다 더 큰 일들을 하라는 부름을 받고 있음을

의미한단다. 오 다윗아! 오 나의 처소야! 너는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무엇 때문에 너는 승리하라고 부름 받고 있는 것들에게 걸려 넘어지고 있느냐? 너의 나약함 한 가운데 내 은총이 충분히 내렸음을 잊어버리기라도 했다는 말이나?

다윗: 오 하느님!

예수님: 오 내 사랑아! 너의 친구, 곧 너의 하느님은 너의 가련함보다, 유혹보다, 나약한 네 마음보다 더 힘이 있으시단다. 내 안에 피신하여라. 나는 가장 안전한 너의 피신처, 네가 숨을 곳이란다. 이제 평안히 가거라.

1997년 7월 17일, 콜론

예수님: 그것처럼 나는 너를 내 손 안에 두고 있단다. *(나는 새 한 마리를 손에 감싸쥐고 있었다.)* 네가 새 한마리를 그렇게 다룬다면, 너의 하느님께서도 네 영혼을 어떻게 다루시겠느냐? 너는 나의 진흙이고 나는 너를 빚는 이란다. 나는 너의 나약함으로 그 안에 내 힘이 내려와 담기는 그릇을 만들 것이다.

다윗: 당신은 저를 놀라게 하시는군요.

예수님: 나는 오히려 네가 네 영혼의 원수들을 *(일곱가지 근원적인 죄를 말씀하신다.)* 정복할 수 있는 큰 힘, 그리고 내 영이 활동하는 것을 자주 방해하는 너의 결점들과 끊임없이 싸울 수 있는 큰 힘이 있음을 알기를 바란다. 사랑하는 다윗아...

다윗: 주님, 말씀하십시오.

예수님: 네가 참석했던 그 예식을 기억하고 있느냐? *(전 교구장 주교님의 영예로운 장례식이 있었다.)*

다윗: 예.

예수님: 만일 네가 오늘 죽는다면, 너는 내 눈에 어떻게 보이리라고 생각하느냐?

다윗: 오 예수님! 저는 더욱더 당신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죽음의 순간은 상상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그러면 사랑하여라. 그리고 내가 너를 자비로이 대하듯이 너도 네 들레의 사람들을 자비로운 마음으로 대하여라. 이제 내 평화를 간직하여라.

1997년 7월 22일, 콜론

예수님: 내 사랑아, 나에게서 네 관심을 가장 크게 끄는 것이 무엇이나?

다윗: 오 예수님! 당신의 위대함입니다.

예수님: 오 애야! 나날이 더욱 나를 본받아라. 주인의 눈만 보고 있는 사슴처럼, 너의 눈도 너의 하느님께 두기만을 바란다.

다윗: 주님, 그러면 저한테서는 무엇이 주님 눈에 뜨이십니까?

예수님: 너의 마음이란다. 나는 네가 더욱더 나의 것이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내가 너를 대하는 것과 똑같이 너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 곧바로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기를 바란다.

다윗: 예수님, 어제부터 저에게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당신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을 하게 되면, 당신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겠다는 강한 욕구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다윗아, 왜 놀라느냐? 나는 너에게 내 영을 부어주고 네 마음 가장 깊은 곳에 내 법도를 새겨주겠다고 말하지 않았더냐? 아니면 사랑에 빠진 한 영혼이 어떻게 사랑하는 이에게 대항할 수 있겠느냐? 애야, 나를 더욱 사랑하여라. 내가 얼마나 사랑받기를 원하고 있는지 너는 알고 있느냐?

다윗: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 섬김을 받기 전에 먼저 섬기기를 즐겨하고, 네 주변 사람들이 잘못을 하더라도 몇 번씩이라도 용서하고, 네 이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나를 사랑하여라. 네가 이렇게 하려고 애를 쓴다면, 내 사랑아, 분명히 말하거니와, 너는 너의 하느님을 닮기 시작할 것이란다.

다윗: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이 제 소원입니다.

예수님: 그러면 그 의지를 항구하게 하고, 항상 내 마음에 드는 것을 행하려는 열정을 지니도록 하여라. 오 애야! 항상 너의 하느님 안에 피신하여라. 나는 네가 나의 인도에 따라 살아가는 영혼의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기뻐하는가를 알았단다. 넌 알고 있느냐?

다윗: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 나는 나로 가득 채워지기를 바라는 너의 갈증을 증가시키려고 때맞춰 이렇게 했단다. (나는 우리 수도공동체의 한 자매에게서 성령을 받은 어떤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오 다윗아! 시간 낭비하지 말고, 네 하느님의 현존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여라.

다윗: 어떻게요, 주님?

예수님: 내 사랑아, 그것을 왜 나에게 묻느냐? 너는 그렇게 많은 시간을 나와 함께 했으면서도 너의 하느님은 사랑이시고 자비가 넘치는 분이심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였느냐? 사랑하여라. 분명히 말하거니와, 완덕은 사랑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이제 평안히 가거라.

1997년 7월 24일, 콜론

예수님: 내 사랑아, 네가 꾸짖었던 그 아이가 너를 어떻게 대하는지 잘 보았느냐? 너에게 화를 내지도 않고, 마치 네가 그 아이에게 아무 꾸지람도 하지 않은 것처럼 너를 대하지 않느냐. 너와 그 아이 사이에 있었던 일은 벌써 잊어버리고 오히려 너에게 미소를 짓고 있다. 너를 보고 있는 그 아이의 모습을 잘 보아라. 너무나 다정한 것 같지 않느냐?

다윗: 예, 예수님.

예수님: 나는 네가 잊어버릴 줄도 알고, 사랑하기를 더 좋아하고, 다정한 마음을 주고 싶어하는 어린이처럼 되기를 바란다.

다윗: 오 예수님, 저는 아이들에게서 많이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 옳은 말이란다. 만일 네가 그 아이처럼 행동하고 사랑한다면, 모든 사람이 네 안에서 나의 현존을 느끼게 될 것이다. 오 애야 다윗아! 관심이 없더라도 사랑하고 또 사랑하여라. 네가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도 사랑하여라. 네 자신이 얼마나 나약한 사람인지 모르겠다고 느낄 때는 더욱더 사랑하여라.

다윗: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수님: 나는 네가 노력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 힘들 때에는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나는 너의 하느님이요, 너를 사랑하니까 말이다. 이제 평안히 가거라.

1997년 7월 26일, 콜론

예수님: 사랑하는 다윗아, 나라면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해보겠단다. 다시 말하면, 자비로운 마음으로 하겠다는 말이란다. (나는 인내심을 잃고 우리가 돌보고 있는

한 아이를 야단치고 있었다.) 네가 그렇게 꾸짖을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너에 대해 느끼는 연민과 똑같은 연민으로 그렇게 해야함을 결코 잊지 말아라.

다윗: 오 하느님! 이렇게 한 것이 너무 마음 아프군요. 이 일은 저에게 당신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보게 하려고 생긴 일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 낙심하지 말아라. 너의 하느님처럼, 다시 말해, 분노에 더디고 풍요한 자비심으로 행동할 수 있는 기회는 아직 많을 것이란다. 더구나 나는 네가 나를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것이 기쁘단다. 그러나 네가 때때로, 특별한 장소만이 아닌 모든 곳에서 그렇게 한다면 나는 더욱더 기쁠 것이다.

다윗: 주님, 제가 변화되도록 도와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저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나는 너를 돕고 싶단다, 내 사랑아, 그러나 네가 해야 할 일은 네가 해야 한단다.

다윗: 그 말씀은 맞습니다.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다윗아...

다윗: 말씀하십시오, 주님.

예수님: 너는 지금까지 나에게 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나에게 줄 수 있단다. 왜 그런지 아느냐?

다윗: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내 은총이 너에게 충분히 내렸기 때문이란다. 너는 왜 이것을 믿지 못하느냐? 왜 너의 결점이나 너의 비참함을 네 발 아래 둘 수 있는 것으로 보지 않느냐? 네가 많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느냐?

다윗: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 너는 하느님의 전능보다 네 비참함의 세력에 더 많은 눈길을 돌리고 있단다. 나를 믿고 의탁하여라. 밤낮으로 내 마음에 드는 일을 하고 싶어하는 목마름을 느껴라. 이제 내 평화를 간직하여라.

1997년 7월 28일, 콜론

예수님: 너는 왜 그 영혼이 자신의 비참함을 보고 그 모두를 느끼는지 아느냐?

다윗: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 왜냐하면 인성의 들판에 있으면서 사랑의 산에 올라가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란다. 그것은 너에게도 해당되는 것이다. 너와 네 들레의 사람들이 더욱더 내 성심을 사랑한다면, 흔히 하듯 행동하지 않고 나처럼, 다시 말해,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행동할 것이다.

다윗: 주님, 저에게 당신께 대한 사랑에 흠뻑 빠질 수 있는 은총을 주십시오.

예수님: 너는 진심으로 내 성심을 지극히 사랑하기를 원하느냐?

다윗: 예, 그것이 간절한 제 소망입니다.

예수님: 그것은 나의 소원이기도 하단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나는 너와 내가 하나가 되기를 바란단다. 더 나아가 나는 네가 모든 사람들을 섬기고, 친절하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대하면서 항상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을 행하려는 의지를 굳게 하기를 너무나도 바란단다. 이제 내 평화를 간직하여라.

1997년 7월 29일, 콜론

예수님: 네 손에서 나는 향기 때문에 왜 그렇게 놀라느냐? (내 손에서 강한 증류 냄새가 났다.)

다윗: 오 예수님!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내가 너를 내 손으로 데려가서 너에게 기름을 발랐단다.

다윗: 주님!

예수님: 왜 의심을 하느냐? 내가 곧 진리가 아니라는 말이더냐? 너의 입술도, 너의 눈도, 너의 발도, 너의 손도 너의 것이 아니고 나의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다오. 왜 입을 다물고 있느냐?

다윗: 저는 당신께 속해있고, 당신의 것들은 깨끗한 상태에 있어야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제 자신을 아주 잘 보살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맞는 말이란다. 너는 세속적인 것을 위해 태어나지 않았고, 내 영의 성전이 되고, 하느님의 처소가 되도록 창조되었단다. 사탄들은 너를 파괴시킬 첫 순간을 기다리면서 이빨을 드러낸 사자처럼 으르렁댈 이유가 많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다윗: 예, 많습니다.

예수님: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키는 파수꾼이고 네가 자고 있는 동안에도 나는 너를 돌본단다. 이제 내 평화를 간직하여라.

1997년 7월 30일, 콜론

1997 년 8 월 - 9 월, 콜론

다윗: 예수님, 저는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랑이 부족해서, 그냥 한없이 울고만 싶습니다.

예수님: 내 사랑아, 너에게 부족한 사랑은 내가 채워주고, 내가 네 주변의 사람들을 자애로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그들을 자애로운 마음으로 사랑하도록 너를 도와주겠다.

다윗: 주님, 저는 왜 사랑을 못합니까? 사람들이 지닌 결점까지도 그대로 받아들이며 사랑하는 것이 저는 왜 그렇게 힘이 됩니까?

예수님: 내 사랑아, 이때가 바로 네 자신을 극복해야 하는 때임을 기억하여라. 너는 네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사랑하는 습관이 있단다. 너는 너 자신 자체가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가를 깨닫기 시작할 때, 비로소 너는 네 둘레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관대하게 받아들이고, 그들이 하는 잘못을 따지지 않고 그들을 대해야 할 이유가 너무나 많음을 알게 될 것이다. 내 앞에서 죄인 아닌 자 누가 있더냐? 내가 너의 잘못이나 악행을 헤아린다면, 너는 어디에 숨을 수 있단 말이더냐?

다윗: 오 하느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주십시오.

예수님: 그러면 모든 영혼들을 자비로운 마음으로 대하도록 노력하여라. 내 아버지께서는 다른 사람들을 자비로운 마음으로 대하는 영혼을 보시면 혼자 물으신단다. <내 아들을 너무나 닮은 저 영혼은 누구일까?> 하고 말이다.

다윗: 오 예수님! 저에게 사랑을 주십시오. 저에게 당신의 자비를 주십시오. 당신을 즐겁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 내 아이야, 그러면 몸과 피, 영혼과 신성으로 너에게 나를 내어주는 시간인 세시 반을 기다려라. (그 시간은 공동체의 미사시간이다.) 이제 내 평화를 간직하여라.

1997 년 8 월 6 일, 콜론

예수님: 애야, 너는 알고 있느냐?

다윗: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 하늘과 땅을 만드신 그분은 너와 함께 계실 뿐 아니라 네가 자고 있을 때에도 너를 돌보신다. 나는, 애야, 너의 파수꾼이고 너의 도움이며, 너를 지키고 내 그늘 아래 너를 보호한다. 나는, 다윗아, 네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네 가까이 있단다.

다윗: 오 나의 주님! 저는 나약하고 너무도 쉽게 제 취향에 따라가는 것을 잘 아시니, 제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예수님: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를 모든 악에서 보호한다. 나, 너의 하느님은, 사냥꾼의 덫에서 너를 구원할 것인데, 그 이유를 아느냐?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란다.

다윗: 저도 사랑합니다, 주님.

예수님: 그러면 친절하고, 인내롭고, 더욱 섬기면서, 더 많은 자비로운 행위로 나에게 대한 사랑을 보여다오. 저 꽃들을 보아라. (형제회 성당에 있는 성 요셉상 아래 꽃아놓은 꽃을 말씀하신다.)

다윗: 아름답습니다.

예수님: 그러나 섬기는 영혼이 지닌 아름다움과는 비교할 수 없고, 내 계명을 지키려 애쓰는 사람과는 더 더욱 비교할 수 없단다.

다윗: 하느님, 저는 갈수록 더욱 그런 갈증을 느낍니다.

예수님: 알고 있단다. 나는 너의 갈증을 씻어줄 샘이고, 언제든지 너를 도와줄 준비가 되어있단다. 왜 그런지 아느냐?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란다.

다윗: 저는 주님을 많이 사랑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그러면 사랑받기를 기다리지 말고 너 자신을 사랑하듯 네 이웃을 사랑하여라. 다윗아, 너는 빛의 자녀들과 어둠의 자식들이 무엇으로 구분되는지 모르겠느냐?

다윗: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 기쁨으로 주는 것에 있단다. 주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관심 앞에서의 친절, 이기주의 앞에서의 이해, 깊은 고통을 주는 사람에 대한 사랑, 주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사랑아,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알겠느냐? 선의 힘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란다. 그렇게 해서 너는 하느님의 향기를 풍길 것이다. 이제 내 평화를 간직하여라.

1997년 8월 14일, 콜론

예수님: 내 사랑아, 나는 네가 향 냄새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았다.

다윗: 예, 예수님, 저는 향 냄새를 아주 좋아합니다.

예수님: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그 향내는 네 노력의 향기와 비교할 수 없고, 네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즐기기 전에 나를 먼저 기쁘게 하려고 할 때 나는 향기와는 더 더욱 비교할 수 없다.

다윗: 주님, 당신은 저를 놀라게 하십니다.

예수님: 너는 아직도 누구와 친교를 맺고 있는지 모르고 있고, 너의 하느님은, 네 그분의 영에 따라가기만 한다면, 네 안에서 행하실 능력이 있는 분이시라는 것도 모르고 있다. 내 사랑아...

다윗: 말씀하십시오, 주님.

예수님: 너는 내 권능을 신뢰하느냐?

- 나는 침묵을 지켰다.

예수님: 그렇지 않은 것 같구나. 너에게는 더 큰 믿음이 필요하다.

다윗: 그렇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주님. 저에게 필요한 힘을 주십시오. 정말로 당신께 대한 제 신뢰는 보잘 것 없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날 한 남자가 와서 작동이 멈춘 자기 자동차의 배터리를 충전시키려고 충전기를 가진 사람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당신을 믿으면 그의 자동차가 움직일 것이라고 말하기가 무척 두려웠습니다. 또 다른 날에, 저는 그 사람에게 (나의 원장 수녀를 말한다.) 아픈 자매를 위해 기도하러 나를 데려가 달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제 영적 지도자와 함께 그 성당에 갔을 때, 한 여자 아이가 미사 중에 치유되었다는 것을 들었을 때 (치유의 은사를 지닌 한 사제가 이곳을 방문했었고 많은 신체적 치유가 일어났었다.) 위대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당신의 힘에 대해 제가 갖고 있던 약간의 믿음도 사라져버렸습니다. 그전과 마찬가지로 더 나빠졌습니다. 아닙니다, 하느님! 저는 그런 일에는 아무 소용없는 사람입니다. 더구나, 저는 아주 변덕스럽습니다!

예수님: 다윗아, 너를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내 아버지께서 나를 너에게 바치셨다면, 당신의 친구들을 위해 큰 일을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을 통해 얼마나 많은 것들을 너에게 주시겠느냐? 내가 원하는 것에 저항할 때, 나는 너로부터 상처를 받는단다.

다윗: 예수님... *(내 말을 막으셨다.)*

예수님: 사랑하는 영혼은 그에게 충성을 고백한 존재에게 온 신뢰를 두는데, 네가 그렇게 두려움이 많은 것은 아직도 네가 나를 충만하게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란다. 정말로 다윗아, 이 인류와 너는 그들에게 충성을 고백했을 뿐 아니라, 그들에게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바치기까지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는가도 보여주신 그분을 믿고 신뢰하라는 부름을 받고 있다.

다윗: 예수님...

예수님: 말해보아라.

다윗: 제 믿음을 증가시켜주십시오.

예수님: 다시 말해보아라, 내 사랑아.

다윗: 제 믿음을 증가시켜주십시오.

예수님: 그렇게 하겠다. 이제 내 평화를 간직하여라.

나중에.

예수님: 내 작은 아이야...

다윗: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 너는 왜 나에게 저항하느냐? *(내가 당신의 계획에 조금 밖에 열지 않은 것을 말씀하신다.)*

다윗: 제가 당신과 함께 하고 있는 이 시기를 통해서, 제가 얼마나 가련하고 비참한 사람인가를 볼 수 있었습니다. 가끔가다 저는 왜 저를 선택하셨는지 의문이 듭니다.

예수님: 이 벌레 같은 야곱아, *(이 말씀을 아주 웃기게 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세상과 네 들레의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자비로운 분인가를 보여주는데 너의 가련함, 비참함을 쓰고 있지 않느냐. 게다가 나는 교만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강한 자를 무력하게 하려고, 따라서 아무도 주님의 면전에서 자신을 자랑하지 못하도록 이 세상에서 약한 사람을 선택하는 것을 좋아한다.

다윗: 나의 하느님, 여기 제가 있습니다. 저를 당신 손에 맡깁니다.

예수님: 네가 나에게 고분고분하는 것이 기쁘다. 그러나 네가 나를 더욱 기쁘게 하려면, 내가 싫어하는 것을 생각하고 행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뱀같이 슬기로워라!! 이제 내 평화를 간직하여라.

1997년 9월 1일, 콜론

예수님: 내 사랑아, 넌 알고 있느냐? 오늘 너에게 내 성심의 고통을 느끼게 해주겠다. 그 고통을 느끼느냐?

다윗: 오 하느님! 오 하느님! 너무나 유감스럽습니다. (그 순간 나는 흐르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예수님: 이 세대는 다른 세대에서 결코 범하지 않았던 잘못들을 범했다. 그래서 나는 위로를 받으려고 내 친구들에게 (봉헌된 영혼들을 말씀하신다.) 의지하려고 했는데, 나에게 더 많은 고통을 주는구나... 오 나의 사랑아! 내가 너의 마음에 얼마나 깊이 사랑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게 하려고 너에게 이런 내 느낌을 말하는데, 너는 그것을 충분히 납득하지 못하는 것 같구나.

다윗: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님: 네가 행동하는 방식 때문이란다.

다윗: 주님,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너무나 가여운 사람인데.

예수님: 그렇게 네 자신이 비참한 사람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니, 어떻게 너에게 너는 내 부름에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명심하기를 바라겠느냐. (성화에 부르심을 말한다.) 다윗아...

다윗: 말씀하십시오, 주님.

예수님: 한 영혼이 연옥이 가면 세 단계를 거쳐야하니까, 너는 회심의 과정을 더욱 진지하게 받아들이도록 노력하여라. 첫째 단계는, 그의 감각들의 정화, 다시 말해, 그 감각들을 잘 다스리지 못한 것에 대한 깊은 괴로움을, 둘째 단계는, 내 마음에 드는 일을 하려고 아주 조금밖에 노력하지 않은 것에 대한 고통을, 셋째 단계는 아직 그곳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내 아버지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나라에 있고 싶은 소망을 느낀단다.

다윗: 이걸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예수님: 그건 알고 있단다, 애야.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드러내 보여주는 내 의도는, 내가 그 영혼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를 느끼게 해주려는 것이란다. 이제 내 평화를 간직하여라.

1997년 9월 4일, 콜론

다윗: 주님, 저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예수님: 내 사랑하는 다윗아, 나는 네가 나에게 충실하고 또 너는 내 음성의 전달자가 되라는 부르심을 받고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게다가, 내 영에 네 자신을 얼마나 여느냐에 따라 나도 그만큼씩 너에게 나를 기쁘게 하는 일들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영감을 줄 것이다.

다윗: 주님은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 듣고 있다.

다윗: 당신의 일이 제 안에서 망가질까 두렵습니다. 분명하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 네가 그렇게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러나 네가 그렇게 느낀 유일한 사람은 아니란다.

다윗: 이해가 안 됩니다.

예수님: 애야, 이것을 묵상하여라. 내 아버지가 세운 계획에 아브라함이 드린 응답은 무엇이었던가 또는 네 하느님의 계획에 대한 내 어머니의 태도는 어떤 것이었는가를 말이다. 두 사람은 믿음의 응답과 믿음의 태도를 보여주지 않았더냐?

다윗: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 그러면 나를 믿고 의탁하여라. 그리고 매일 너 자신을 포기하여라.

다윗: 그것이 제 소원이고, 그렇게 하려고 매일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끔가다 이 은총에 보답드리고 있는 미약한 제 노력과 대가를 생각하면 두렵고 떨립니다. 주님, 주님은 저에게서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예수님: 내가 너에게서 무엇을 기대하리라고 생각하느냐? 충실, 정결, 신뢰 또는 섬김의 정신이 아니겠느냐?

다윗: 주님, 저는 제가 많은 노력을 해서 당신께 드리고 싶은 모든 것을 저에게서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죽음의 순간을 생각하면, 저는 너무 놀라서 제 자신에게 말합니다. <불쌍한 다윗아, 너는 너의 하느님 앞에 섰을 때 그분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너무나 불쌍하겠구나.> 라고요. 오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주십시오!

예수님: 나의 벌레 같은 야곱아, 너 무척 재미있구나, 나는 네 영혼이 얼마나 내 마음에 들게 행동하려고 하는지 알았다. 다윗아...

다윗: 말씀하십시오, 예수님.

예수님: 나는 너의 하느님이니까 내 안에 피신하여라. 그러면 너에게 내 계명을 지키는 법을 가르쳐주고 네 영의 인도에 따라 영원한 생명을 주는 길을 견게 해 줄 것이다. 너는 이것을 열망하느냐?

다윗: 예.

예수님: 나는 그 열망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한단다. 그래서 너는 조금 더 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려고 노력해야 할 것 같구나.

다윗: 사실 아주 맞는 말씀이십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 저를 조금만 더 기다려주십시오.

예수님: 그러마, 다윗아, 좀 더 인내하겠다. 너에 대한 내 사랑은 죽음보다 더 강하고, 타오르는 불길이기 때문이란다. 흐르는 물로도 그 불을 끄지 못하고 강물로도 그 불을 덮지 못할 것이다. 이제 내 평화를 간직하여라.

1997년 9월 8일, 콜론

예수님: 애야, 그 화덕을 잘 보아라. (아침식사를 하는 동안 빵 굽는 토스트기의 열선이 빨강게 달아있었다.) 너에 대한 내 사랑도 그것 같단다. 새빨강게 달아오른 열선 말이다.

다윗: 예수님, 알고 계십니까? 저도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그건 알고 있단다. 그리고 조금만 더 노력하면 너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 내 작은 아이야, 너에 대한 너의 마음이 조금만 더 사랑으로 탄다면, 너는 내가 너의 목마름을 채워주는 샘이라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잘 보아라, 이 인류는 두 가지 잘못을 범하고 있다. 첫째는 생명의 물이 솟아나는 그들의 하느님에게서 멀어지고, 둘째는 금이 가서 물이 고이지 않는 우물이 된 것이다. 오 내 사랑하는 다윗아! 내가 너를 맑은 영혼들 가운데 놓을 때, 그들에게

이 슬픔을 이야기하고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샘물을 주고 싶어한다고 말하여라. 그들에게 이 샘물은 거저 마실 수 있고, 그들의 마음 대신에 내가 그들에게 주는 물임을 알려주어라. 나는 그들의 마음을 살 같은 마음으로 되돌려 줄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으니까, 그 마음이 어떤 상태이든 세상이 그 마음을 어떻게 만들었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단다.

다윗: 오 하느님! 당신은 인간의 행복을 너무나 바라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 그렇단다, 나는 너에게 그것을 표현할 필요도 없단다. 너는 나를 아주 잘 알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아직도 너는, 내가 한 영혼이 나를 믿고 의탁할 때는 더 더욱 그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모르고 있다.

다윗: 나의 사랑이시여...

예수님: 오 다윗아! 그렇게 부드럽게 나를 부르다니, 정말 기쁘구나, 다시 한번 불러보아라.

다윗: 나의 사랑이시여...

예수님: 다윗아, 내 축복을 받고 내 평화를 간직하여라.

1997년 9월 10일, 콜론

아침에.

예수님: 내 작은 아이 다윗아, 내 성령께 바쳐진 다음 해를 생각하여, (2000년 대희년을 준비하면서, 요한 바울로 2세 교황님은 1998년을 성령께 바치셨다.) 이 인류가 나에게 돌아오도록 이 작품을 (나를 사랑하여라) 내 마음의 선물로 그들에게 주겠다.

나중에.

예수님: 나는, 다윗아, 네가 모든 은총이나 하느님의 은총의 선물은 항상 하나의 덕을 동반하고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나는 네 마음 안에 내 아버지와 나를 아주 기쁘게 하는 정원을 가꾸기를 원한단다. 겸손이라는 정원말이다. 사탄은 이 덕을 지닌 영혼은 내 성심에서 은총뿐 아니라 하느님의 권능까지 끌어당김을 아주 잘 알고 있단다. 애야, 어떤 사람들이 내 마음에 드는지 알고 있느냐?

다윗: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 그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애야, 겸손하고 미천한 마음을 지닌 사람들이란다. 그들은 세상을 이겨내는 하느님의 자녀들이다. 이제 내 평화를 간직하여라.

1997년 9월 15일, 콜론

다윗: 오 예수님! 우리 어머니 안에서 행하고 계시는 일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어머니 안에서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할 필요성을 보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렸다.)

예수님: 너는 내가 나의 일에 더 많이 헌신할 때, 나는 너의 일들을 위해 내 시간을 내어준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느냐?

다윗: 예, 그러나 하느님, 저는 우리 아버지의 회심을 위해 당신께 아주 많이 청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그러면, 지금까지 네가 그렇게 한 것처럼, 내 일에 더 많이 헌신하여라. (웃으면서 이 말씀을 하셨다.) 이제 내 평화를 간직하여라.

1997년 9월 23일, 콜론

1997 년 10 월, 콜론

예수님: 내 사랑아, 내가 여기 있다. 나는 너의 모든 것이다.

다윗: 오 예수님! 여기 나약한 제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마음은 당신의 것, 모두 당신의 것이니...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예수님: 나는 그 마음을 내 거처로 삼고 싶다. 네 마음은 금지된 나의 정원이고, 내 아버지만을 위한 뜰이다. 나에게서 너무나 소중하여 거기에 불을 올타리를 둘러쳤단다. 작은 아이 다윗아, 누가 감히 내 소유의 땅을 침범하려 하겠느냐? 분명히 말하거니와, 네 영혼의 적들이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것이다.

다윗: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너의 보호자, 너의 하느님은 졸지도 잠들지도 않으시고 쉬지도 않으신단다.

다윗: 주님...

예수님: 말해보아라, 다윗아.

다윗: 사실은 당신과 이야기할 때, 나날이 제가 더욱 당신 마음에 들어야 할 필요성을 표현할 말이 없습니다.

예수님: 나와 이야기할 때는 말이 필요없단다. 그의 하느님을 사랑하는 영혼은 사랑이 가장 완벽한 언어임을 깨닫기 때문이란다. 만일 네가 이 (사랑의) 바다가 얼마나 얼마나 깊은가를 느끼기 시작한다면, 너는 너의 최대 목적이 내 뜻을 행하는 것, 다시 말해,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도 성인이 되는 것이 될 정도로 나를 사랑하기 시작할 것이다.

다윗: 때때로, 저는 당신의 목소리는 듣지 못해도, 당신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느낍니다.

예수님: 그것이 내 언어란다. 너는, 나는 나인 분이라는 것을 명심해야한다. 나는 내가 흔히 하는 방식으로 말할 수도 있고, 내 마음 내키는 대로 할 수도 있단다. 내 목소리가 네 귀에는 들리지 않지만, 너는 네 마음 안에서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하는 내 목소리를 많이 느낄 것이다. 왜 이렇게 하느냐고? 서로 사랑하면, 말만으로는 그 사랑을 충분히 표현할 수 없음을 너에게 알려주기 위해서란다.

다윗: 주님, 저에게 당신의 크신 사랑을 밝혀주실 때마다 저는 제가 너무나 작음을 느끼고, <하느님은 나에게 왜 그렇게 관대하실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내 잘못들을 빨리 용서하시는 것을 목상할 때 나는 혼자서 항상 이 질문을 한다.)

예수님: 왜냐하면, 그것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나는, 내 사랑아, 이 인류가 진심으로 나에게 돌아오고 죽음의 대가를 치뤄야하는 그 모든 우상들을 치워버리면, 그들의 모든 잘못을 용서해줄 준비가 되어있단다. 관대하게 나를 섬기는 사람이 받을 보상은 영원한 생명임을 많은 영혼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나는 너의 입술을 사용할 것이다. 넌 알고 있느냐?

다윗: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 나는 그 영혼이 하는 행동에 네가 많은 아픔을 느끼는 것을 보았다. (가까운 친척 한 사람을 말씀하신다.) 만일 네가 나에 의해 창조된 피조물로서 그런 아픔을 느낀다면, 내 죽음으로 그들을 해방시켜주었는데, 노예가 된 많은 내 친구들을 볼 때 느끼는 내 고통은 훨씬 더 심하지 않겠느냐? 하느님의 권능이 크고 크신데, 제 아무리 굶다 하더라도, 어떤 사슬이 끊어지지 않을 수 있겠느냐? 내가 곧 빛인데, 어떤 어두움이 한낮의 태양처럼 될 수 없겠느냐?

다윗: 오 예수님! 얼마나 좋으신지, 당신은 너무나 좋으셔서 저는 더 이상 시간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님: 그 말을 들으니 기분이 무척 좋구나. 이제 내 평화를 간직하여라.

1997년 10월 2일, 콜론

예수님: 내 사랑아, 와서 네가 필요한 것을 내 성심에 말하여라. 두려워말고 청하여라, 나는 너를 만족하게 채워주고 싶구나. 넌 알고 있느냐? 나는 네가 지닌 향기가 기분 좋단다.

다윗: 예수님, 저는 향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예수님: 네 마음 안에 있는 소망, 곧 죄를 짓지 않으려는 너의 깊은 소망을 보는 것이 기쁘단다.

다윗: 오 나의 하느님! 저는 당신을 거스르고 싶지 않습니다. 제 정신이 당신의 거처가 되고 제 마음이 당신의 성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너는, 애야, 정말 대담무모하다. 나는 네 생각과 말과 행위가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되도록 하려고 한 너의 노력을 알았다. 그러나 내 사랑아, 이것이 네가 전투에서 승리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아직도 너에게는 이겨내야 할 많은

전투가 남아있단다. 네 영혼의 적들은 강하고 아주 똑똑해서, 그들은 네가 조금만 방심해도 그것을 너를 무너뜨릴 수 있는 큰 기회로 삼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윗: 주님, 나의 적들은 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사랑이 더욱 강하기에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님: 네가 이것을 명심하고 있다니, 정말 기쁘구나. 내 사랑이 네 영혼의 적들이 지닌 힘보다 훨씬 위대하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애야, 너는 네 질그릇 안에 큰 보화를 담고 있는 것도 사실이란다. 다시 말해, 너는 나약하고 매일 내 은총의 도움과 내 몸으로 너를 먹여야 할 *(성체성사를 말씀하신다.)* 필요가 있음을 결코 잊지말라는 말이다. 잘못에 넘어졌던 일들을 유용하게 이용하고, 거기에 다시 넘어지지 않도록 더욱 조심하고, 마지막으로, 네 하느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피하거나 그분의 은유함, 그분의 겸손, 그분의 연민과 자애로움을 본받으려고 노력할 때, 너의 하느님께서 느끼시는 기쁨이 얼마나 클까를 생각하여라.

다윗: 예수님, 그 순간에 제 영혼을 눈여겨보십시오. 무엇을 보십니까?

예수님: 어느 날 불꽃, 그러나 거기에 사랑과 자비의 장작을 더 많이 넣으면 큰 불이 될 수 있는 불꽃이 튀는 것처럼 시작된 작은 불을 본단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나의 은총에 네 자신을 여는 것이 필요하단다. 나를 보아라... *(그 순간에 성체가 현시되어 있었다.)*

다윗: 당신은 더욱 저 자신을 버리게 하십니다.

예수님: 한번 더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구세주이다. 나는 살아있으며, 성체 안에 실제로 현존한다!

다윗: 오 나의 예수님! 제 가난한 기도를 받으시고 당신을 경배하도록 저를 축복해주십시오.

예수님: 너에게 내 축복을 내려줄 뿐 아니라, 네가 더욱 내 마음에 들게 행동하도록 내 영도 주겠다. 이제 내 평화를 간직하여라.

다윗: 나의 주님, 오늘 제가 당신께 무엇을 드리면 좋겠습니까?

예수님: 사랑하는 다윗아, 너의 자매들이 하고 있는 저 일을 하겠느냐? *(돌보고 있는 어린아이들의 똥을 닦아주는 것을 말씀하신다.)*

다윗: 예수님!...

예수님: 네가 먼저 물어놓고, 무슨 말이냐?

다윗: 예, 그 일을 하겠습니다. 당신께 대한 사랑 때문에.

예수님: 그 말을 들으니 기쁘구나. 그러나 이 어린아이들 중 누군가에게 그렇게 해줄 때, 곧 나에게 해주고 있는 것임을 명심하여라.

나중에.

예수님: 다윗아, 그것을 눈여겨 보아라. (한 아이가 기저귀를 더럽혔다.)

다윗: 오 하느님! 이걸 너무 지독합니다. 그 냄새에 질식하겠습니다. 제가 기절하지 않고 당신이시라면 그렇게 하실 것 같은 방법으로 이 아기를 씻어줄 수 있도록 당신의 힘과 용기를 주십시오.

예수님: 너는 나를 참 많이 웃기는구나. 너 알고 있느냐? 너의 온 삶이 이랬었다는 것 말이다. 내가 네 이름으로 너를 불러 네가 깨끗해지도록 내 영의 물을 너에게 뿌려주고, 너의 존재가 눈처럼 희어지도록 하려고 내 피로 너를 목욕을 시켰을 때가 바로 그때였단다.

다윗: 오 예수님!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도록, 제 마음을 당신으로 가득 채워주십시오.

예수님: 그렇게 할 것이다. (그 순간 나는 예수님께서 뜨거운 바람을 내 마음에 불어넣으시는 것을 느꼈다.) 이제 내 평화를 간직하고 그것은 네가 나에게 해주는 것임을 잊지 말아라.

1997년 10월 7일, 콜론

다윗: 예수님, 저에 대한 한없는 사랑에 감사드리기 위해 당신께 꽃을 많이 바치고 싶은데요.

예수님: 사랑하는 다윗아, 나는 너에게 오직 한송이만 바라는데, 그것은 충실의 꽃이란다... 나에게 충실하도록 너를 도와주고, 너의 길을 지켜주고, 너의 발이 네 욕정의 돌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분명히 내가 너에게 천사를 보내주었기 때문에, 너는 이 꽃을 나에게 줄 수 있단다. 이제 내 평화를 간직하여라.

나중에.

예수님: 다윗아, 네가 나에게서 분리되고 싶지 않은 마음을 그런 것으로 표현할 때, 나는 무척 웃음이 난단다. (그 시기에 나는 나쁜 습관을 고치고 모든 유혹으로부터 도망갈 결심을 하고 있었다.)

다윗: 주님, 저는 당신 마음에 들고 싶습니다. 저는 어떤 방법으로든 그렇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네가 말하는 것은 정말 사실이다. 나는 네가 허망한 목표에 도달하려고 했던 모든 노력과 좀먹지 않는 제물을 얻으려고 네가 바친 많은 희생에 대한 증인이다. 더욱 나와 같아지도록 계속 그렇게 하여라. 그러면 네가 어떻게 되는가를 보게 될 것이다. 내 사랑아...

다윗: 주님, 말씀하십시오.

예수님: 너의 욕정을 매일 매일 십자가에 못박아라. 그리고 어떤 악습을 고치려면, 그 악습들을 저항의 불 속에 집어넣어 딱딱하게 굳은 것을 제거해 줄 필요가 있음을 잊지 말아라. 이제 내 평화를 간직하여라.

1997년 10월 16일, 콜론

예수님: 내 사랑아, 넌 알고 있느냐?

다윗: 말씀하십시오, 주님.

예수님: 나는 내 성심에 대한 신심을 전파하도록 그 영혼을 *(성녀 마르가리따 마리아 데 알라코을 말씀하신다.)* 택했고 그 성심의 마음을 알리기 위해서는 너를 택했다.

나중에.

다윗: 예수님, 저는 너무 가련하고, 제 성향에 따라 살 때 당신을 너무 슬프게 해드린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제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 자신의 비참함에 대한 무게를 느낄 때, 메마르지 않는 은총의 샘인 내 심장 (성심)을 바라보아라. 너는, 애야, 인간 본성은 매우 변덕스럽고 부서지기 쉬우며 나 없이 인간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달아다오. 내 안에 항구하게 머물러라. 어떻게냐고? 기도를 소홀히 하지 말고 내 계명을 지켜라.

다윗: 주님, 그 소망을 제 마음 안에 더욱 더 많이 일으켜주십시오.

예수님: 그렇게 할 것이다. 다윗아, 너는 나를 기쁘게 한다, 그러나 너는 완전하게 나를 닮음으로써 나를 더욱 기쁘게 해다오. 이제 내 평화를 간직하여라.

밤중에.

예수님: 너는 왜 네 영혼의 적들이 순식간에 쉽게 너를 이기는지 아느냐? 아니면 왜 네 영혼의 적들이 네 성심을 더욱 기쁘게 하려는 너의 의지를 흔들거리게 만드는지 아느냐?

다윗: 모르겠습니다, 말씀해주십시오.

예수님: 너는 너의 장상들에게 좀 더 순명할 줄 알아야한다. 이것과 같은 작은 일에서도 말이다. (나는 우리나라 수도에 살고 있는 우리 형에게 전화하는데 원장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셨다.) 내가 너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사탄은 한 영혼이 순명하려고 애쓰는 것을 보면 이 영혼은 자기가 들어가 살 집이 아님을 아주 잘 알기 때문이다. 순명은 하느님께 대한 사랑의 열매이고, 사탄이 혐오하고 거부하는 향기인 겸손에 대한 최고의 표현이기 때문이란다. 그럼에도, 한 영혼이 교만하고 우쭐거리면, 그것은 문과 창문들을 다 열어두고 있는 집과 같아서 사탄이 쉽게 들어가 (그 영혼을) 훔치고, 지배하고, 죽일 수 있단다. 다윗아, 오 다윗아!...

다윗: 말씀하십시오, 주님.

예수님: 비록 네가 많은 자질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때가 바로 네가 더욱 겸손해야하는 때이고, 내가 네 안에서 살도록 더욱 더 너 자신을 버려야하는 때임을 잊지 말아라. 자신만으로 충분한 것, 교만, 반역심은 거만한 영혼이 맺는 열매이고, 나는 그런 영혼들을 혐오한다. 애야, 누가 내 방에 들어가 살 수 있느냐? 허영심을 피하고 사랑을 선택하는 깨끗한 손이나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더냐? 사랑은 교만하지 않고, 그와 반대로, 마음이 단순하고 겸손할 때 더욱 깊어진단다. 이제 내 평화를 간직하여라.

1997년 10월 17일, 콜론

1997 년 11 월, 콜론

아침에.

예수님: 내 사랑아, 너에게는 십자가가 너 자신을 반사할 수 있는 거울이어야 한다. 십자가를 볼 때 그 안에서 너를 반사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직도 네가 네 자신을 버리지 못했다는 표시란다, 애야.

다윗: 나의 주님, 저는 당신을 조금밖에 닮지 않았습시다.

예수님: 다윗아, 너는 모든 사람들의 영상이다. (인류를 말씀하신다.) 너는 완전하게 나를 닮지는 않았는데, 그것은 그렇게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노력을 많이 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다. 애야, 너의 비참함은 내 성심의 불이 한번 붙으면 다 타버리고 마는 마른 지푸라기임을 기억하여라. 이제 내 평화를 간직하여라.

1997 년 11 월 7 일, 콜론

다윗: 나의 주님, 비참함으로 가득 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는 조금밖에 진전하지 못했고, 제 행실 때문에 주님께 가시관을 드렸음을 알고 있습니다. 오 나의 주님! 당신께 돌아옵니다, 당신의 품안에 돌아옵니다.

예수님: 다윗아, 내 사랑아. 한 영혼이 나를 따르고 나를 닮기로 결심하면, 자기 자신을 떨치해야 하는데, 나의 거처 또는 나만을 위한 정원이 되기 위해서 뿐 아니라, 내 아버지와 내가 내 뒤를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린 사람들을 위해 마련해 둔 곳에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한단다. 다윗아, 너는 내 발자취를 따르고 싶으냐? 내가 기뻐하지 않는 것을 피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다윗: 저는 그것을 원하고, 모두 당신의 것이 되는 것, 그것이 제 간절한 소망입니다.

예수님: 너의 그 소망을 열렬히 사랑하여라. 그러면 네가 어떻게 되는가를 보게 될 것이다. 많은 영혼들이 너무나 빠르게 그들의 옛날 생활 방식으로 돌아가는데, 그 이유는, 어떤 사람들은 너무 적게 사랑하고 어떤 사람들은 거의 전혀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란단다. 이 상황 앞에서, 사탄이 어떻게 그 기회를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지 않겠느냐? 정말 그 갈망에 대한 사랑에 빠진 영혼은 욕정의 장애물들을 이기고 허영과 악습의 사자와 이 세상의 용을 짓밟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단다.

다윗: 예수님, 당신만의 것이 되려는 제 소망을 더욱 열렬히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그러면 더욱 신뢰하며 은총의 제단에 가까이 오너라. 나는 너에게 그렇게 해줄 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다함이 없는 이 성사로 (성체성사를 말씀하신다.) 너를 더욱 견고하게 할 것이다. 알고 있느냐, 애야?

다윗: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 나에게 집요하게 등을 돌리는 인간을 보면 너무나 한탄스럽구나. 딱딱하게 굳은 인간의 마음이 어디까지 이르겠느냐? 사탄은 사람들에게 육체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은 죽을 때 <참된 행복>을 보상받을 것이라고 믿게 하는 데는 아주 영리하단다. 이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모르겠구나! 이상한 신들을 경배하려고 생명의 하느님을 없애버리거나 아니면 경멸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슬픈지 모르겠다! 다윗아, 나를 사랑하되, 너의 온 마음, 온 영혼, 온 힘을 다해 나를 사랑하여라. 너는 누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인지 알고 있느냐?

다윗: 예,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너는 착각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들 중 하나는 네 자신을 사랑하듯 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란다.

다윗: 주님, 당신은 왜 항상 이 점을 주장하십니까?

예수님: 왜냐하면 그것은 죄를 씻어버리는 사랑의 행위이기 때문이란다. 사랑하는 사람은 하느님께로부터 난 사람임을 결코 잊지 말아라. 이제 내 평화 안에서 편히 쉬거라.

1997년 11월 11일, 콜론

아침에.

예수님: 내 사랑아...

다윗: 말씀하십시오, 주님.

예수님: 너의 욕망과 욕정을 포기하고 자제하면 할수록, 너는 여기 이 땅에서는 네 마음 안에서 그만큼의 큰 기쁨을, 그리고 내 나라에서는 충만한 행복을 느낄 것이다. 다윗아, 너는 내 아버지께 <그 영혼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십시오.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행하고, 내 계명을 지키기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름답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다윗: 예, 참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사랑하는 다윗아, 이것은 내가 내 눈에 드는 일을 하려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피할때마다 이루어지는 일이란단다.

다윗: 예수님, 저는 당신의 시선이 저를 떠나지 않는 때가 있음을 느낄 때가 있고, 어떤 때는 그것에 신경이 쓰입니다.

예수님: 내 아이야, 실제로, 내 눈은 밤낮으로 너를 살피며 눈여겨 보고있단다. 네 신경을 건드리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느님께서 너의 행동에 얼마나 주의를 기울이고 계신가를 느끼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란단다. 너는 알고 있느냐?

다윗: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 너는 나에게서 절대 도망치지도 숨지도 못할 것이다. 더 나아가, 네가 이 세상 저편 끝까지 가거나 이 땅의 심원한 곳까지 내려간다 하더라도, 거기에 내가 있을 것이다. 내가 왜 이런 분인지 의문이 든다면, 그것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고, 너는 나에게 매우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이란단다. 너는 나의 거처이고, 너 자신을 나에게 봉헌하도록 세상을 창조하기 훨씬 전부터 나는 너를 불렀단다.

다윗: 당신께서 이렇게 하실 때, 저는 제가 당신께 충실해야 할 많은 이유가 있음을 깨닫습니다.

예수님: 그 향기로 항상 나를 기쁘게 해주고, 나를 유혹해다오. 충실함의 향기로 말이다. 충실한 사람은, 내 사랑아, 내 눈에 아주 사랑스러운 사람이고, 성경을 해석하는데는 훌륭하지만 그 말씀들이 그들의 마음 안에 살아있게 하는데는 그렇지 않은 많은 현자들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단다. 다윗아...

다윗: 말씀하십시오, 주님.

예수님: 만일 네가 얻은 그 모든 지식들이 나에게 더 충실하도록 이끌어주지 않는다면, 다른 많은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해, 성당에 들어가야 하는 시간은 알려주지만 자신은 결코 그 안에 들어가지 않는 종과 같다는 말이란단다.

다윗: 나의 주님, 그것은 참으로 큰 유감입니다. 의식은 따르면서도 영적인 면은 거의 없는, 그렇게 차가운 많은 당신의 친구들을 보면, 당신의 성심이 간절히 바라는 것처럼, 저도 사제가 되고 싶다는 소망을 더 많이 느낍니다.

예수님: 내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들으니 너무나 기쁘구나, 내 작은 다윗아. 이제 내 평화를 간직하여라.

다윗: 오 나의 주님! 저는 빈 손으로, 반 밖에는 완수하지 못한 것들을 당신께 약속드린 것이 죄송합니다.

예수님: 그래, 그렇다 하더라도, 나는 너와 함께 있고,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겨놓고 있기 때문에 너에게 등을 돌리는 것은 너무나 힘들다. 나는, 다윗아, 네가 나를 더 사랑해야하고 또 너는 내가 명하는 것을 조금 밖에 지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이 현실 앞에서 나는 너에게 내 손을 내밀어 내 영을 부어준다. 내 마지막 원이 내 은총으로 너를 숨기고 네 비참함의 은혜와 노예가 무엇인가를 보게 하고 싶은 것이기 때문이라 그렇다. 다윗아, 오 나의 벌레 같은 야곱아!

다윗: 말씀하십시오, 나의 하느님.

예수님: 내 사랑으로 너를 취하게 하고, 내 은총의 향기로 너를 황홀하게 하고 싶구나. 그래, 다윗아, 너를 유혹하고 싶고, 오직 나의 것이 되는 것이 너의 유일한 욕망이 될 정도로 너를 유혹하고 싶단다. 네가 살아있든 죽든, 너는 오직 너의 하느님을 위해 살고 하느님을 위해 죽어라.

다윗: 나의 주님, 때때로 당신께 너무나 무관심한 저를 볼 때,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오 나의 하느님! 당신께 대한 사랑으로 저를 타게 하시고, 제 안에 그 불을 피워주십시오. 주님, 저를 만지십시오. 나의 하느님, 저를 만지십시오. 저는 당신 손가락에 든 부드러운 밀랍이 될 것입니다. 당신 계명의 길을 따라 걷도록 저에게 성령을 보내주십시오. 당신의 뜻에 따라 사는 것 이외에는 아무 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예수님: 내 coquito 같은 다윗아, 진정하여라. 너는 하루 아침에 그런 사랑으로 네가 나를 사랑해 주기를 바라는 그 사랑에 도달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것은 내 계명을 지키는 것부터 시작하여 네 영혼의 적들이 네가 하기 싫어하는 악을 행하게 하려고 애쓸 때 그러는 것처럼 너도 항구하도록 노력해야하는, 느리지만 확실한 과정이란다. 다윗아...

다윗: 말씀하십시오, 주님.

예수님: 너를 coquito 라고 부르는 것이 마음에 드느냐?

다윗: 다리도 발도 없는 그 무족 동물이 참 웃깁니다. 어디서 그것을 아셨습니까?

예수님: 내 아버지한테서 알아냈단다. 그분은 당신 백성 또는 당신 친구 이스라엘을 그렇게 부르셨단다.

다윗: 그 동물은 너무 웃깁니다.

예수님: 알고 있다.

다윗: 예수님,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 듣고 있다.

다윗: 이 나약하고 비참한 죄인은 온 생애 모든 날을 당신께 충실하고 싶어합니다.

예수님: 알고 있다, 다윗아. 네가 유혹받을 때, 그 유혹들이 너의 힘을 능가하지 못하고, 그 힘은 동시에 네가 그 유혹들을 피하거나 그에 저항할 때 너를 나에게 가까이 이끌어주고 나를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는 힘임을 알고 있단다. 내 사랑아, 너는 알고 있는나?

다윗: 듣고 있습니다, 주님.

예수님: 땅에서 죽은 사람들이 그들이 한 일들을 나에게 보여주려고 내 앞에 설 때,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꽃다발을 주곤했는데, 그 다음에 한 사람이 다가와 눈에 눈물을 가득 담고 이렇게 말했단다. <다른 사람들이 주님께 드린 것과 같은 꽃다발을 드리지 못한 것을 용서해주십시오. 주님, 저는 제가 가꾸고 보존한 이 꽃 한 송이 밖에 없습니다. 이 꽃을 받아주십시오, 주님을 위한 꽃입니다.> 라고 말이다.

다윗: 그 영혼이 그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님: 내 온 사랑으로 그 영혼을 끌어안고 그가 나에게 준 꽃을 아주 높은 곳에 꽃았단다.

다윗: 예수님, 그 꽃은 무슨 꽃이었고,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님: 상상이 안되느냐?

다윗: 예, 주님.

예수님: 다윗아, 악에 대한 저항을 상징한단다. 사탄에게 대항하여라, 그러면 사탄이 너에게서 도망갈 것이다. 그것이 그 영혼이 땅에서 사는 동안 내내 노력하고 또 노력했던 것이고, 드디어 <끝까지 참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성경 말씀을 완성했단다.

다윗: 오 하느님!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 너는 그렇게 할 수 있단다. 더구나 너는 내 은총을 충만하게 받았다. 이제
평화로이 가거라. 그리고 나는 너에게서 단 한 송이의 꽃, 곧 (악에 대한) 대항만
원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1997년 11월 20일, 콜론

1997 년 12 월 콜론

아침에.

예수님: 내 사랑아, 내 평화를 간직하여라.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

다윗: 예, 예수님은 저에게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예수님: 나는 네가 거룩한 분, 나처럼 되기를 바란다, 다윗아. 네가 예전에는 몰랐기 때문에 했던 낡은 행동들은 피하고, 모든 것은 지나가고, 하늘과 땅도 사라지고, 사람도 들판의 짐승들도 다 끝이 나겠지만, 내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애야, 너에 대한 나의 사랑은 결코 가시지 않으며, 변하지도 않고, 거세게 흐르는 물로도 끌 수 없으며, 강물로도 그 사랑을 앗아갈 수 없단다.

다윗: 나의 하느님, 당신께 귀를 기울이고 있으면, 당신이 하시는 말씀들은 매일 더욱더 당신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타오르게 합니다. 하느님은 알고 계십니까? 저는 당신께 범한 모든 악을 보상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Coquito de Dios, 나는 네가 나를 거슬러 범한 잘못들을 가슴에 꼭꼭 새기고 있다는 것을 알았단다. 용기를 내어라! 나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너를 기억하고 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남자들과 여자들이) 쾌락보다는 나약함 때문에 잘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니, 결코 네 마음이 허락했던 잘못이나 실수들 때문에 풀죽지 말아라. 다윗아...

다윗: 말씀하십시오, 주님.

예수님: 너 자신을 판단하지 말아라. 판단은 오직 내가 해야하는 일이란단다. 그렇지 않느냐?

다윗: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는 무언가 당신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그러면 정의로운 일들로, 다시 말해, 자비로운 일들로 너의 죄를 부수어라. 그리고 너를 무에서 끌어내어 너의 죽음을 원하는 사냥꾼의 덫에서 너를 해방시키신 분이 너를 대하시는 것처럼 너도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여라. 다윗아 알고 있느냐?

다윗: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 너와 동무하는 것이 정말 기쁘구나. 네가 잉태되는 그 순간, 나는 그보다 훨씬 전부터, 이미 너를 생각했다. 나는, 다윗아, 너를 사랑한 첫번째 분이었고, 내가 네 마음을 만들었기에, 나는 네 마음의 활동들을 알고 있다. 나는 너의 구세주이고, 너에게 생명을, 넘치는 생명을 주려고 왔단다.

다윗: 나의 주님...

예수님: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나를 기쁘게 하고 내 계획에 마음을 열려는 너의 소망이 얼마나 큰가를 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것은 나는 네가 나를 더욱 믿고 의탁하며, 포도나무에 붙어있기 위해 너 자신에 대한 집착을 좀 더 버리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다윗: 예수님, 어느 날 그런 것들은 피하겠다고 당신께 약속드렸던 일들은 재빠르게 잘 하고 있는 저 자신을 생각하며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 다윗아, 기도하여라. 기도는 네 영혼의 적들의 힘 또는 권세를 약화시키고, 너의 의지는 강화시키고 하느님의 계명을 깊이 새겨 지키도록 마음을 움직인다. 기도는 영혼을 고요하게 유지시키고, 인간적인 충동들을 진정시킨다. 기도는 얼마만큼의 양을 먹느냐에 따라, 다시 말해, 얼마나 기도하느냐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 약이란다. 오늘날에는 분명 기도가 부족한 탓에 사자, 곧 사탄의 먹이가 된 영혼들이 많이 있단다. 다시 한번 말하거니와, 기도는 영혼의 폐이다. 기도하는 것을 멈추면 곧바로 살아 숨 쉴 수 있는 공기를 잃어버린다. 기도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냐? 그렇단다, 사람이 물을 마셔야 할 필요가 있듯이 기도도 그와 마찬가지로. 애야, 네가 조금 밖에 기도하지 않으면, 밤 시간 동안만 파수꾼이 도성을 지키게 하는 것과 같고,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깨어있으면서 자주 기도하면, 파수꾼이 밤낮으로 도성을 지키게 하는 것과 같단다.

다윗: 주님, 저에게 기도의 정신을 주십시오. 제 마음 안에 기도하고 싶은 소망을 붙여넣어 주십시오.

예수님: 너의 청을 들으니 기쁘구나. 그것이 바로 내가 원하는 것이다. .다윗아, 나는 기도하는 사람은 천정에 가득한 보화를 흠쳐가지 못하도록 잘 지키는 뛰어난 파수병을 둔 사람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너에게 그 기도의 정신을 주고 싶구나. 그러나, 애야, 그 영혼이 너무나 중요한 이 습관을 소홀히 하면, 그때는 어느 날 억제하려고 했던 결점들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욕정들이 더욱 큰 힘을 발휘한단다. 다윗아...

다윗: 주님, 말씀하십시오.

예수님: 너의 잘못에서도 배우고, 비통하고 낮추인 마음으로 기도하여라. 그러면 어떻게 네 발이 다시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지 않을 것인가를 보게 될 것이다. 이제 내 평화를 간직하여라.

1997년 12월 15일, 콜론

예수님: 다윗아, 잘 보아라. (나는 내 내면에서 여러 색깔의 둥근 모양의 작은 빛들을 담고 있는 예수님의 손을 보았다.)

다윗: 무엇입니까?

예수님: 그 영혼이 천대하는 은총들이다. 너는, 내 마음의 사랑아, 하느님은 무엇으로 친교를 맺고 있는지 알아두어라. 만일 그 영혼들이 (형제회가 지도하고 있는 <기도의 어머니>라 이름하는 젊은이들 그룹의 일부 회원들을 말씀하신다.) 너를 볼 때 그들이 가진 가장 좋은 것을 너에게 준다면, 내 영에게 간원한다면 그 영은 얼마나 더 좋은 것을 너에게 주겠느냐? 내 영은, 다윗아, 너를 가득 채우고, 네 안에 내가 현존하게 하고, 모든 은총의 선물을 너에게 주는 것 외 다른 목적이 없단다. 그 영은 너의 하느님의 가장 깊은 생각까지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내 영은 너를 평탄한 길로 이끌어 갈 것이다. 다시 말해, 이런 목표를 지니게 하는 길, 곧 <하느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내 양식이다.> 하는 길로 너를 인도할 것이다.

다윗: 당신의 뜻을 행하는 것, 그것이 제 염원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으니 기쁘구나. 사랑 때문에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의 뜻에 복종하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없단다. 이 세상이 많은 재물, 환희와 쾌락을 제공하는 것은 매우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러나 네가 상상도 못할 만큼 너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애정의 빵과 비교할 수 없단다.

다윗: 사실입니다. 저는 당신이 얼마나 저를 사랑하시는지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저는 당신을 많이 사랑하고 싶습니다. 제 온 힘을 다해서요...

예수님: 너는 그렇게 할 수 있다. 너는 나 때문에 타는듯한 큰 질투를 느끼고, 이 땅에서 살아있는 나의 모상이 될 정도까지 갈 수 있단다. 더구나, 너는, 불쌍한 죄인아, 네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하도록 부름받고 있단다. 나를 더욱 사랑하여라. 너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분에게 더욱 충실하여라.

다윗: 오 예수님! 저를 받아주십시오.

예수님: 그러마, 나는 목수가 거친 나무판을 골라내어 훌륭한 물건으로 만들어 쓸려고 부드럽게 다듬듯이 너를 택할 것이다. 다윗아, 나는 너와 함께 그렇게 할 것이다. 너를 다듬고, 나의 영으로 너를 바르고, 따라서 네가 말하고, 웃고, 길을 갈 때나 잘 때, 모든 사람이 나는 죄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고 보게 할 것이다. 왜 그런지 아느냐? 왜냐하면 나는 죄인을 사랑하고, 게다가, 나의 중

하나가 빵을 구걸하는 것은 나에게서 너무 가슴 아픈 일이라, 그런 일은 결코 보지도 못하고 절대 듣지도 못할 것이다. 나에게로 오너라,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자야, 와서 내 자비로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행복하여라. 이제 내 평화를 간직하여라.

나중에.

예수님: 내 사랑아, 넌 알고 있느냐?

다윗: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 나의 첫번째 제자들을 동반했던 그 표징들은 지금부터 너를 동반할 것이다. 다윗아, 모든 것은 네 믿음의 정도에 달려있다.

다윗: 오 예수님! 제 미약한 믿음에 기대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그러면 네 믿음을 증가시켜 달라고 나에게 청하여라. 기도하여라, 애야. 성부께 기도하고, 내 이름으로 이것을 청하여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너의 청을 들어주실 것이다. 다윗아...

다윗: 듣고 있습니다, 주님.

예수님: 네 어깨에 좀 기대도 괜찮겠느냐?

다윗: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예수님: 그러면, 다윗아, 네 온 마음을 다해 나를 사랑하여라. 이제 평안히 가거라.

1997년 12월 19일, 콜론

아침에.

예수님: 다윗아, 나의 은총에 함께 하는 인간의 노력이 무엇을 발생시키는지 알았느냐?

다윗: 예, 주님. 당신께 흠뻑 빠진 그 영혼처럼 되도록 저를 가르쳐주십시오. (나는 성 요한 복음 사가의 증언에 큰 감동을 받고 있었다.)

예수님: 다윗아, 열렬한 사랑에 빠진 영혼은 가르침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가 사랑하는 분이 좋아하시는 일을 하거나 지키려는 그의 노력과 마음 자세에 의한 것이다. 네가, 내 아이야, 내 마음에 들기 위해 네가 하고 있는 이것에 더욱

향구할 때, (나는 내 악습을 고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었다.) 그 노력 자체가 그분처럼, 다시 말해 거룩한 사람이 되라고 너를 부르신 분을 위해 거룩하고 티 없는 제물이 되려는 열정을 내 안에 증가시켜 줄 것이다.

다윗: 오 나의 하느님! 저에게 성화에 대한 목마름과 온전히 당신의 것이 되려는 주립을 더 많이 주십시오. 저는 제 행위로 당신께 잘못을 범하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저는 당신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생각과 행위로 즐거워했던 모든 때를 슬픈 마음으로 기억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 내 사랑아, 네 영혼이 왜 지금 그것을 느끼는지 아느냐? 왜냐하면 진리를 알기 때문이란다. 네가 어둠 속에 있었을 때는,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의 일을 하고, 생각하고, 말을 했지만, 지금 너는 이미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 세상을 비추려 세상에 오신 빛의 자녀란다. 나는 진리이다, 다윗아,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 진리가 포도나무 가지처럼 나와 일치해 있으라고 오늘 너를 초대한다. 뭔지 알고 싶으냐?

다윗: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 너는 하느님의 자녀이지만,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아직 모르고 있다. 어느 날, 내 사랑아, 네가 누구인지 밝혀질 것이고, 그 시간이 오면, 너는 네 하느님과 같은 사람이 되고 그분을 있는 그대로 뵈게 될 것이다. 이제 평안히 가거라, 하느님의 아들이.

1997년 12월 21일, 콜론

예수님: 애야, 잠깐만 나와 함께 해다오... (형제회가 짓고 있는 건축 현장으로 나를 데려가셨다.)

다윗: 주님, 왜 지금 짓고 있는 세탁실로 저를 데려오셨습니까?

예수님: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돌들과 흙을 눈여겨 보아라.

다윗: 예, 보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층을 올리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와 관계있는 일이 아닙니다. 저를 여기 데려오신 의도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다윗아, 그들이 층을 올리기 위해 저 돌들과 흙을 사용한 것처럼, 나는 돌처럼 단단한 너의 비참함과 흙과 같은 너의 나약함을 내 권능을 드러내는데 가치 있게 사용했다. 너의 비참함을 나에게 다오. 그 대신 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너에게 주겠다. 이제 평안히 가거라.

예수님: 만일 그 영혼들이, 다윗아, 너를 그렇게 소중히 여긴다면, *(기도의 어머니 젊은이 그룹의 일부 회원들을 말씀하신다.)* 세상이 창조되기 훨씬 전부터 너를 성별한 그분은 얼마나 더 너를 소중히 여기시는지 생각해 보았느냐?

다윗: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오 하느님!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저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제 상상력의 한계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애야, 나는 그 말을 믿는단다. 내가 너를 그토록 사랑하는데... 그 사랑의 증거는 성령의 힘으로 내 어머니, 우리의 어머니 태중에 잉태되었을 때였단다. 다윗아...

다윗: 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 나는 너를 내 신적 본성에 참여하게 하고, 내 아버지가 거룩하신 것처럼 너도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려고 왔다. 이 말들은 오늘날의 사람들에게는 받아들이기 매우 어려운 언어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약함 가운데 내 은총이 충만하게 내렸음을 잊어버리기 때문이란다. 오늘날 모더니즘은 이것을 *(성화를 말씀하신다.)* 수도자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란다. 모든 사람들, 가장 비천한 죄인까지도 네 하느님의 향기로운 냄새를 지니도록 부름받고 있단다. 오직 그들의 죄를 누우치는 것만으로 충분한데, 그들의 죄가 진홍색처럼 붉어도 내가 그들을 눈보다 더 희게 하고, 그들의 어두움을 대낮처럼 밝게 해 줄 것이기 때문이란다. 오 다윗아! 세상과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말하도록 네 입술을 빌려다오. “나를 사랑하여라 그리고 힘들고 지친 사람들은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그들을 편히 쉬게 하고 푸른 풀밭으로 이끌어가 그들을 먹이며, 낮에는 해가 밤에는 달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할 것이다” 하고 말이다.

다윗: 저를 받아주십시오, 저는 모두 당신의 것입니다.

예수님: 너는 성경에서 말하듯 매일 내 앞에 너 자신을 흠 없고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도록 노력하여라. 이제 내 평화를 간직하여라. 내 평화는 세상이 주는 표면적이고 순간적인 평화가 아니라 변함이 없으며, 선한 의지를 지닌 사람들 안에 항구하게 머무는 평화이다.

다윗: 저에게 그 평화를 주시겠습니까?

예수님: 너에게 그 평화를 줄 뿐만 아니라, 다윗아, 너를 그 평화의 전달자로도 삼고 싶단다.

다윗: 저는 그 모든 것을 할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원하신다면, 주님,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낙담하지 말아라, 다윗아, 네 왼편에 있는 너의 비참함을 보지 말고, 네 오른편에 있는 나의 은총을 보아라. 너는 그 잔을 기억하고 있느냐? (형제회가 얻은 새로운 큰 잔을 말씀하신다.) 그 잔은 그렇게 아름다워지기 전에 하나의 공정을 거쳐야 했다. 너도 그와 마찬가지로. 넌 알고 있느냐?

다윗: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 너는 이토록 나에게 매력을 주는구나.

다윗: 당신은 저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예수님: 내가, 너는 나에게 더욱더 매력을 줄 수 있다고 말한다면, 너는 더욱더 용기를 얻겠느냐?

다윗: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 이제 평안히 가거라.

1997년 12월 28일, 콜론

1998 년 1 월, 콜론

다윗: 나의 주님, 제가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에게 해주신 모든 것에 (감사드리려) 당신 발 앞에 엎드리고 싶은 한없는 소망을 느낍니다. 저는 이 불쌍한 죄인, <제 안에서 행하신 당신의 일을 보실 때까지 멈추지 마십시오.> 라고 소리치며 청하는 이 나약한 피조물 안에 행하신 모든 것을 어떻게 갚아드리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기에 저는 아주 바보 같았습니다. 제 영혼의 적이 비집고 들어올 틈을 주었습니다. 저는 사탄이 얼마나 저를 파괴시키려 애쓰는가를 한번 더 깨달았습니다. 나의 예수님,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 듣고 있다, 내 아이야.

다윗: 당신께 죄를 짓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온전히 당신의 것이 되고 싶습니다.

예수님: 알고 있다, 다윗아. 네 영혼이 내 면전에서 얼마나 올바른 길 걷기를 갈망하는지 아주 잘 알고 있단다. 너의 발이 무관심, 불순명, 더러움과 미지근함의 돌에 걸려 넘어지게 하려는 악마의 욕망도 잘 알고 있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느님의 사랑아, 기도하여라, 깨어 있어라. 더더구나, 유혹을 받는다고 느낄 때, 너는 그것을 하나의 은총 또는 나를 너에게 보내신 분, 내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께 그분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드릴 수 있는 좋은 순간이라고 생각하여라. 우리에게 더욱더 충실함을 보여다오. 그러면 신부가 보물로 단장하듯이, 나는 너를 은총의 선물과 덕들로 아름답게 꾸며줄 것이다. 오, 세상이 이 은총의 선물들을 선택한다면 얼마나 아름다울 것인가! 분명히 말하거니와, 그들의 관심을 끄는 그 모든 것들보다 나에게서는 이것이 더 가치 있을 것이다. 다윗, 내 사랑아...

다윗: 말씀하십시오, 주님.

예수님: 나는 각 영혼을 이 아름다운 옷, 곧 나의 성령으로 꾸미고 싶다. 그분은 이 세대, 그러나 무엇보다 나의 참된 제자들이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과 일할 것인데, 그들에게서는 생명의 물이 강물처럼 솟아날 것이다.

다윗: 오 하느님! 여기 제가 있습니다. 당신의 성령께 유순하게 해주십시오. 무슨 목적 때문인지 알고 싶으십니까? 온전히 당신의 것이 되려는 목적으로요. 당신께 대한 사랑으로 타고 또 타는 것, 그것이 제가 원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저는 이 세상의 흐름에 얼마나 재빠르게 빠져드는 사람들이 있는가를 목상합니다. 것처럼, 주님, 저는 제 자신을 전부 당신께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는 이 봉헌을 새롭게 합니다. 우리 기도문에서 말하듯..., 저는 온전히 당신의 것입니다. <머리 꼭대기에서부터 발끝까지.> (형제회의 봉헌문을 말한다.)

예수님: 너의 봉헌을 받아들이겠다. 이제 너는 나의 봉헌을 받아다오. 내 몸과 내 피가 빵과 포도주의 형상으로 있을 때... 다윗아... 다윗아... 다윗아..., 나는 온전히 너의 것이 되고 싶단다. 나는 생명의 빵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굶주리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더구나, 그에게서는 은총의 물이 샘솟을 것이다. 이제 내 평화를 받아라.

1998년 1월 7일, 콜론

예수님: 다윗아, 나의 봉헌자야, 너의 목마름을 채우러 누구를 찾아가겠느냐? 네 영혼이 갈망하는 행복을 누가 줄 수 있겠느냐? 나만, 내 사랑아, 나만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에 갖고 있다. 나는 시원한 내 자비의 물을 너에게 뿌려주었고, 이 샘물은 가장 험악한 죄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메마르지 않는 원천이다.

다윗: 나의 주님, 저를, 이 자격 없는 당신의 종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저는 언제일런지, 어떻게 일런지는 모르지만, 어느 날 온 마음을 다해 당신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하는 가장 비천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오 하느님! 그 어느 날 저는 당신이 원하시는 영혼이 될 것임을. 오 예수님! 그 샘에서 물을 마시게 해 주십시오. 당신의 마음의 문을 제게 열어주시고 거기서 죽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다윗아, 오 내 사랑하는 다윗아! 두려워하지도 말고 손을 떨지도 말아라, 너의 하느님, 구원하시는 하느님께서 네 한가운데 계신다. 나는 사냥꾼의 덫에서 너를 구하러 왔고, 성덕과 의덕으로 나를 섬기도록 사자의 입에서 너를 끌어내려 왔다.

다윗: 때때로 저에게는 너무 어렵습니다.

예수님: 어느 날 네가 걸어가기로 결정한 길은 좁은 길임을 잊지 말아라. 많은 돌들이 깔려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네 발이 그 돌들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너에게 내 천사를 보낸 것도 잊지 말아라. *(하비엘이라 부르는 내 수호천사를 말씀하신다.)* 그에게 순명하여라. 그러면 네가 어떻게 되는가를 보게 될 것이다.

다윗: 예수님...

예수님: 듣고 있다.

다윗: 때때로 저는 이 은총이 저에게 요구하는 것에 응답을 못하고, 봉헌생활이 내포하는 요청에도 응답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 마음 속에 슬픔이 많습니다.

예수님: 다윗아, 너의 노력만으로도 충분하단다. 나를 위한 너의 노력은 내 아버지를 위해 바치는 기름 붓고 향을 얹은 밀가루 꽃, 다시 말해, 고요하게 진정시키는 향기와 같단다. 내가 그 향내음에 취하게 해다오. 어떤 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부드러운 향내음으로 (노력) 황홀해지게 해다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다윗아. 그리고 너는 내 손바닥에 새겨져 있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라.

다윗: 오 예수님! 그만하십시오. 제 마음이 터질 것 같습니다.

예수님: 애야, 사랑은 해치지 않고, 타오르는 불꽃이란다. 강물도 그것을 끄지 못하고, 대양도 그것을 끄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하느님의 사랑이니까. 다윗아, 알고 있느냐?

다윗: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 너는 그 울타리를 기억하고 있느냐? (수도로 가는 길에 있는 집을 둘러싸고 있는 담을 말씀하신다.)

다윗: 예.

예수님: 너를 둘러싸고 있는 울타리는, 나의 집아, 불로 된 벽이란다. 그 벽은 나의 성령, 곧 사르고, 꺼지지 않고, 너의 마음을 타는 떨기로 만들려는 준비가 된 불꽃이다.

다윗: 예수님, 무슨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저에 대한 당신의 사랑은 너무나 크셔서 저를 놀라게 하고, 당신을 한없이 경배하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킵니다. 당신을 경배합니다, 오 나의 왕이시여! (그 순간 나는 무릎을 꿇었다.) 당신을 드높입니다! (눈을 감은 채, 나를 감싸고 있는 예수님의 큰 사랑을 느꼈다.)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 예수님...

예수님: 그리고 나는 너의 것이다, 다윗아. 이제 내 평화를 간직하여라.

1998년 1월 9일, 콜론

예수님: 내 아이 다윗아, 히솅의 채로 너에게 정화수를 뿌리게 해다오. 너를 눈보다 더 희게 해주고 싶구나. 너는 나에게 애원하였고, 아직 그러지 않았다 하더라도 나는 네 목소리에 응답했을 것이다. 나는 네가 지쳐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 너의 수고를 봉헌하여라. 나는 네가 고통을 얼마나 거부하고 있는지, 그 이야기들을 듣거나 읽을 때에는 더 그렇다는 것을 많이 느꼈단다. (성인들의 생애를 암시하신다.) 나는 네가 매우 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COQUITO de DIOS, 많은 사람들이 설 수 있도록, 또는 내 성심을 위로하도록

너의 노고에서 유익을 취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으련만! 분명히 말하거니와, 네 마음은 노고속에서 오히려 기쁨을 느낄 것이다. 다윗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다윗: 예. 그러나 당신께 대한 제 사랑이 너무 미약해서, 저는 당신을 더욱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제 말이 거짓이 아님을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 그래, 네 말은 사실이다. 그러나 너는 가끔, 너희가 흔히 <저는 어느 한날에 모든 것을 다 하겠습니다.> 하고 말하듯, 그렇게 하려고 한다. 이 과정은 그의 때가 필요하다, 내 사랑아. 너에게 나를 향해 너 자신을 더 많이 열도록 노력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모든 노력은 인내와 항구함의 덕을 요구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다윗: 주님, 제 안달을 용서하십시오. 특히 나약하고 비참한 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겸손의 부족을 용서해주십시오.

예수님: 다윗아, 언제나 너의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찾아라.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존경과 세상의 박수를 받으려고 자신의 생애를 봉헌하는 일이 가끔씩 일어나기 때문이란다. 그 날이 위에 있으니, 너는 그와 반대로 참된 봉헌생활자가 되는데, 다시 말해, 항상 하느님의 마음에 드는 자가 되려는데 헌신하여라. 따라서 너는 내가 너를 볼 때, <여기 참된 하느님의 사람이 있구나.> 하고 말할 수 있도록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려라. 이제 내 평화를 간직하여라.

1998년 1월 11일, 콜론

예수님: 넌 알고 있느냐? 네 안에서 큰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그 영혼이 지닌 많은 결점들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주 존경하는 사람을 말씀하신다.)* 나는 그 영혼을 매우 사랑하고 그 또한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명심하여라. 그는 자기 자신의 혈육과 나 사이에서 선택해야 했을 때 이에 대한 증거를 보여주었다. *(그 사람은 봉헌생활을 선택하기 위해 자신의 어머니께 대한 사랑을 포기했다.)*

다윗: 저는 그가 무엇보다 당신을 첫째 자리에 둬으로써 당신을 기쁘게 해드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실이죠?

예수님: 그렇다, 사실이란다. 나를 네 마음의 유일한 하느님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바로 그 이유 때문이란다. 나는 질투가 많은 신이라서 말이다. 오 다윗아! 누가 나처럼 너를 사랑할 수 있으며 너의 방어자인 동시에 너의 불벽이 되어 줄 수 있겠느냐?

다윗: 아무도... 아무도 없습니다. 나의 주님이신 당신뿐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더욱더 당신의 성심에 충실하고 싶습니다. 인내심이 없고 이해심이 없어서 당신을 거슬러 잘못하는 것에도 지쳤습니다.

예수님: 너는 그 어느 때보다 지금 나에게 더 많은 매력을 주는 이유를 알고 있느냐?

다윗: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 왜냐하면 네 영혼이 얼마나 간절히 나에게 충실하기를 원하는지, 네 안에 내가 커지도록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란다. 내 사랑아, 그 영혼처럼 되어라. *(자매회의 한 자매를 말씀하신다.)* 그녀는 이 쟁기, 곧 봉헌생활에 손을 대기 전에, 세상이 그에게 주는 것들을 거부했을 뿐 아니라 하늘나라를 위해 그의 감정, 모든 것을 묻어버렸단다. 이제 내 평화를 간직하여라.

1998년 1월 13일, 콜론

새벽에.

예수님: 애야, 네 휴식 시간을 나에게 좀 내어주겠느냐?

다윗: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무엇 때문에 그러십니까? 지금 새벽 1시 반인데.

예수님: 네가 너무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기쁨과 인내로 고통을 참아 받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왔단다. *(나는 극심한 위통을 느끼고 있었다.)*

다윗: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사실입니다. 저는 당신에게서 많은 것을 배워야하고, 특히 고통을 받아들이는 데서 더 많이 배워야 합니다. 저는 너무 편안하게 살아서, 괴로움을 겪는 것이 힘들고, 엄격히 말해서, 어떤 종류의 병으로든 괴로움을 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님: 하느님의 사랑아, 나는 은총이라고 여기는 그 순간들을 너는 두려워서 거부하는 것을 이해한단다. 그렇단다, 하느님께 대한 사랑으로 그 어떤 것보다도, 고통당하는 것은 은총이란다. 이것이 그들의 고통을 나의 수난에 일치시키지 않고 괴로움을 겪는 다른 사람과 너를 구분시켜주는 것이란다. 너는 내가 너를 위해 고난을 겪었던 때를 또는 나를 모욕하는 사람들의 멸시를 받아들였던 때를 기억하느냐? 나는 그 모든 것을 사랑, 너를 위한 사랑 때문에 했단다. 결과는 무엇이었느냐?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실패였지... 그러나 결국 죽음이라는 너의 최대의 적을 이겼고, 이 세상에 대해 승리를 거두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수난의 잔을 멀리했다면 너는 어디에 있겠느냐? 다윗아...

다윗: 말씀하십시오, 나의 하느님.

예수님: 이 영혼들이 너에게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여라. (예수님은 내가 당신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그 사람들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은총을 주셨다.)

<하느님을 위해 내 고통을 바칠 수 있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웠다.> (돈 보스코)

<나에게는 나의 잘못들을 고치는 가장 좋은 순간이었다.> (비오 신부님)

<만일 내가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나를 그토록 사랑하신 분께 대한 사랑으로, 그 세상에서 일상적으로 주어지는 상황들 안에서 괴로움을 겪는 것, 그것을 청할 것이다.> (성 프란치스코 드 살레스)

예수님: 내 사랑아,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

다윗: 예, 당신께 대한 사랑으로 이 괴로움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제 영혼의 회심과 온 세상의 회심을 위해 이 고통을 받으십시오.

예수님: 너의 그 말이 기쁘구나. 그것은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란다.

다윗: 그러나 나의 하느님, 저는 매우 약하고 이 점에서는 아주 문외한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 걱정하지 말아라. 네가 함께 하고 있는 분은 언제나 너에게 당신의 손을 내미시고, 고통의 무게가 너를 짓누르도록 놓아두지 않으시고, 더더구나 너를 불행하게 하지 않으실 것이다. 더구나, 나는 모든 점에서 완전하고 또 고통당한 경험에서 말을 한다면, 너는, 너를 도와줄 수 있고 그 점에서 완전한 전문가로 만들어 줄 수 있는 표지가 되는 분을 모시고 있음을 잊지 말아라. 이제 내 평화를 간직하여라.

다윗: 그러나, 예수님, 손은 다치지 마십시오.

예수님: 아니다, 애야, 걱정하지 말아라. 나는 어떤 가위로 네 가지를 쳐야하는지 알고 있단다. 이제 나를 믿고 의탁하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히 가거라.

1998년 1월 16일, 콜론

밤중에.

다윗: 예수님, 때때로 당신은 너무 딱딱하십니다. (나는 우리 기관에 있는 두 여자 어린이 때문에 이 말씀을 드렸는데, 자매였지만 한 아이가 입양됨으로써 헤어지게 되었다.)

예수님: 다윗아, 내 친구들도 내가 체험한 것과 같은 것을 겪어야하고, 더 나아가, 너는 너를 사랑하시고 또 네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선택하신 분은 사무원이 아닌 십자가에 못박힌 분이심을 잊지 말아라. 아마도 너에게 있어서는 십자가가 하나의 추문이고 미치광이 같은 것이 될 때가 많을 것이며, 네가 타당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를 믿고 의탁하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구원의 힘이며, 나를 있는 그대로 보게하는 데로 이끄는 유일하고 좁은 길이다. 다른 길은 없단다. 만일 너에게 다른 길을 알려주거나 설득한다면, 성경의 말씀대로 <저주> 받을 것이다.

다윗: 나의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십자가를 구원의 힘으로 보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그것이 당신을 사랑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라면, 당신을 많이 사랑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 네 마음이 느끼는 그대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으니 기쁘구나.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네가 해야 할 것은 네가 하여라, 나머지는 내가 맡을 것이다. 이제 내 평화를 간직하여라. 그리고 너에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은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선의를 위한 결과를 이룬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1998년 1월 19일, 콜론

다윗: 주님, 성체성사 안에서 당신을 받아 모실 때의 제 차가움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세상의 것들로 인해 가슴이 떨릴 때처럼 그 순간에도 가슴이 떨리기를 얼마나 원하는지!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의 예수님, 아직 제가 지니지 못한 것은 드릴 수가 없고 당신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직 그 가치를 잘 모르는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 다윗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사랑은 너의 모든 죄를 지워버린단다. 나는 네가 태어났을 때 성경에서 <하느님께 대한 열정이 나를 불사릅니다.> 라고 말하는 대로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너는 나에 대한 사랑으로 불타는 능력을 갖고 태어났다고 너에게 말했었다.

다윗: 예수님, 제 안에서 당신으로 인해 감동하고, 형제들과 함께 하는 공동기도 시간만 아니라 저 혼자서도 (개인기도를 바치려) 성당에 가는 그 태도가 제 안에서 자라도록 해 주십시오. 제가 어둠의 세계에 있을 때 그렇게 했던 것처럼, 당신때문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려는 그 소망을 증가시켜 주십시오. 도대체

어찌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좀 다른 사람이 되고 싶고, 진실로 당신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오 하느님,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나는 너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을 매우 잘 알고 있단다. 너는 갈증을 느끼는데, 꼭 맞는 샘을 찾았다. 내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샘물이란 다. 넌 알고 있느냐?

다윗: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 내가 말하는 이 모든 것 안에서 아름다운 것은 내가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물을 너에게 주고 싶어한다는 것이다. 내 작은 다윗아, 나는 너의 갈증을 풀어주고 싶고, 게다가, 나는 네가 등불을 켜놓고 *(믿음을 말씀하신다.)* 영광스럽게 나타날 나를 기다리고 있기를 원한다. 이제 내 평화를 받아라.

1998년 1월 24일, 콜론

다윗: 예수님,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 듣고 있다.

다윗: 저를 믿지 마십시오. 제가 당신을 거스르는데는 얼마나 빠른지 이미 보셨으니까요. 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 비천하고, 변덕스럽고, 나약하고 차가운 이 죄인을 믿지 마십시오.

예수님: 다윗아, 너 자신에 대해 말한 것은 모두 사실이다. 그러나 너는 하느님의 아들이고, 너의 참 모습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을 덧붙이는 것이 빠졌다. 분명히 말하거니와, 그 일이 이루어지면, 너는 나의 참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다윗: 맞습니다. 저는 가장 힘없는 도둑에게 은총을 도난당하고 있는 하느님의 아들입니다... 저는 너무 어리석습니다.

예수님: 내 사랑아, 너의 모든 잘못들에도 불구하고, 너를 위한 내 사랑은 하늘보다 더 넓고, 나의 충실함은 바다보다 더 깊단다. 나에게 너의 비참함이 어떤 것이지 아느냐?

다윗: 알고 싶습니다, 하느님!

예수님: 네 손에 든 먼지 같은데, 물론 덕을 담은 도자기를 만드는데 아주 적합한 것이라. 나에게 불가능이 없으니까 말이다. 나올 수 없는 상처는 아무 것도 없고, 내가 그에게 <일어나 네 침상을 들고 가거라.> 하고 말할 수 없는 중풍 환자는 *(육체적인 면보다, 당신의 은총에 충실하게 응답하지 못하는 인간의*

무능력을 말씀하신다.) 더더구나 없단다. 알고 싶으냐? 너는 매력이 있다는 것 말이다.

다윗: 오 예수님!

예수님: 그래, 너는 매력이 있어. 너는 내 기타인데, 비록 그 줄들은 엉뚱한 소리를 내지만, 내가 내 영의 손가락으로 새롭게 그 줄들을 맞추는 것이라는 확실한 보증이 있고, 몇 번을 그렇게 하든 나에게 그것은 중요한 일이 아니란다. 중요한 것은 너에게서 영원한 음악을 만들어내어 내 아버지께 <이 음악이 제 마음에 듭니다.> 하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 음악이 아버지의 다윗의 영혼입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가 될 때까지 은을 세공하듯 너를 세공하고 또 세공하는 것이란다.

다윗: 오늘 저는 시편작가처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를 위해 하신 모든 일들을 어떻게 갚아오리까?> 제 삶 안에서 당신께서 행하신 일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나는 감사하는 영혼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 다윗아?

다윗: 예, 주님. 그리고 아마도 저는 당신께 감사를 드려야 할 만큼 잘 드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너는 나를 기쁘게 한다. 그리고 조금 전에 네가 나에게 표현한 것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은 내가 당신께 나를 믿지 마시라고 청한 것을 말씀하신다.) 나는 너에게 나를 믿으라고 말하고 싶구나. 나는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했으니 말이다. 너의 영혼에 대한 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뿐, 곧 너의 구원이란다. 다윗아...

다윗: 말씀하십시오, 주님.

예수님: 나를 의지하여라, 나는 결코 너를 내치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고 의탁하고 있는 영혼일진데, 더더욱 내칠 수 없단다. 이제 평안히 쉬거라, 하느님의 기타야.

1998년 1월 28일, 콜론

다윗: 예수님! 예수님! 제 마음의 고통을 받아주십시오. 올해 저는 여기를 떠나고 (내가 속하는 형제회가 있는 곳인 예수와 마리아의 도움을 말한다.)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들을 볼 수 없다는 것이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주님,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고통을 기뻐합니다. 이것이 제 죄와 온 세상의 죄로 인해 상처받으신 당신의 성심을 위로함을 알고 있으니깐요. 나의 하느님, 이 고통을 받아주십시오. 당신을 거슬러 잘못하는 모든 영혼들을 위해 그리고 연옥의 영혼들을 위로하기 위해 이 고통을 당신께 바칩니다. 오 예수님!...

예수님: 다윗아, 너는 참 빨리도 배우는구나! (예수님께 바치는 고통이 얼마나 큰 유익이 되는지 설명해 주신 1월 13일과 16일의 메시지에 대한 열매를 언급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다.) 그것이 나를 즐겁게 하는구나. 나에게 대한 사랑때문에 네가 그 고통을 어떻게 바쳤는지 보는 것이 아주 기분 좋단다. 내 평화를 간직하여라, 네 곁에 내가 있으니, 내가 네 마음을 위로하고 너의 슬픔을 덜어주게 해다오.

다윗: 예수님... 아니요, 지금 제 슬픔을 감소시키지 마십시오. 제 잘못들과 온 세상의 잘못들에 대한 보상으로 이 슬픔이 주는 고통을 이용하게 해 주십시오. 당신과 함께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지만 당신 없이 저는 아무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당신께 의지하는 것만 원합니다. 제가 무엇을 깨달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예수님: 듣고 있다.

다윗: 저는 당신께 너무 애착하고 있고, 당신을 목말라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는 마치 목마른 암사슴이 시냇물을 찾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지금의 저입니다. 저는 당신을 목말라하고, 매일 더욱더 당신의 성심에 충실하고 싶어 애가 탑니다.

예수님: 다윗아, 알고 있느냐?

다윗: 나의 하느님, 말씀하십시오.

예수님: 나도 너를 목말라하고 있단다. 포도나무 가지가 그 나무에 붙어있듯이, 나도 네가 내 성심에 일치해 있기를 바란단다. 이제 내 평화를 간직하여라.

1998년 1월 31일, 콜론

1998 년 2 월, 콜론 / 콜롬비아

예수님: 다윗아...

다윗: 말씀하십시오, 주님.

예수님: 너는 아직 누구와 친교를 맺고 있는지도 모르고, 너 자신을 내 영에 더 많이 열고 내 계명을 지킨다면 네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도 아직 모르고 있다. 알고 있느냐, 내 사랑아? 나는 너의 존재로 놀라운 성화를 이루게 할 수 있는데, 내가 내 영을 통해서 이 일을 실현할 수 있도록 너는 내 영의 인도에 따라가는 것만으로 충분하단다.

다윗: 주님...

예수님: 말해 보아라, 애야.

다윗: 저를 받아주십시오. 저는 온전히 당신의 것이고, 당신께 속해 있습니다. 저를 인도하시고, 당신으로 저를 가득 채워주십시오. 저는 제 삶 안에서 활동하시는 당신의 영을 차단할 수 있다는 생각조차도 참을 수 없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아십니까? 저는 어중간하게 당신을 섬기기가 너무나 쉽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랍니다.

예수님: 다윗아, 내 친구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네가 너 자신을 이기는 정도에 따라, 또 같은 척도로 너는 네 영혼의 적들을 이기리라는 것을 명심하여라. 완덕을 향한 이 길에서 필요한 너의 협력은 나의 은총이 활동할 수 있게 하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것도 마음에 새겨라. 이에 대한 예는 성인전... 너와 똑 같은 결점들과 그보다 더 큰 다른 결점들을 지닌 일반적이고 단순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유일하고 참된 하느님인 나를 섬기려고 그들의 모든 바알들을 (우리의 삶 안에서 하느님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모든 우상들이나 사물들을 말씀하신다.) 버리려고 노력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을 때 발견할 수 있단다.

다윗: 예수님, 저는 성인이 되고 당신의 모든 계명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오 하느님! 부탁드립니다. 당신 없이 저는 아무 것도 아니니까 저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나는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다윗아, 항상 말이다. 그리고 너를 도와주는 일에서는, 지존하신 너의 하느님, 너를 위해 그토록 많은 일을 하신 하느님을 부르기만 하여라. 이제 평안히 가거라. 그리고 너의 하느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나도 너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힘과 의도를 갖고 있음을 기억하여라.

다윗: 예, 나의 하느님, 그 말씀을 항상 기억하겠습니다.

1998년 2월 3일, 콜론

예수님: 다윗아, 네가 내 이름을 부르기 전에 내가 이미 너의 이름을 먼저 불렀다. 네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이미 너의 하느님께서 너를 택하셨단다.

다윗: 주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당신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알고 싶으세요?

예수님: 듣고 있다.

다윗: 저는 당신을 사랑하고 싶은 갈증을 느끼고, 당신 성심에 한없이 빠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은 대항하지 않으니까요. 당신께 대항하는 것에도 지쳤고, 은혜를 모르고 무감각하기도 피곤합니다. 나의 왕이신 주님, 당신을 함당하게, 다시 말해, 성덕으로 당신을 섬기고 싶습니다.

예수님: 다윗아...

다윗: 주님, 말씀하십시오.

예수님: 네가 하는 말을 듣고 있으니 기분이 좋구나. 너는 왜 내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청하지 않느냐?

다윗: 하느님!

예수님: 왜 놀라느냐?

다윗: 사실은 무엇을 청할지 몰라서요. 무엇을 청하면 좋은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님: 내 아버지께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은총의 선물을 청하여라, 다시 말해, 너에게 내 영을 달라고 말씀드려라. 내 영은 너를 새로운 창조물로 만드시고, 새로 나게 하시며, 너의 모든 더러움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너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만일 사람들이, 다윗아, 찬탄받을만한 일을 한 사람들을 (건축가, 화가...등을 말씀하신다.) 탄복하며 바라본다면, 이 거룩한 도공께서는 당신의 손에 자신을 맡기는 그 모든 사람들을 얼마나 더 훌륭한 작품으로 만들지 않으시겠느냐? 이 인류는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지 않기로 결심한 사람들의 마음 안에서 내가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무엇인가를 아직 모르고 있다. 나를 사랑하여라, 내 사랑아, 어제보다 더욱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며 행복하여라. 이제 가서 평안히 쉬어라.

- 2월 8일, 나는 사제 양성을 계속 받기 위해 콜롬비아에 갔다.

1998년 2월 9일, 콜롬비아

예수님: 네가 나를 대하는 태도가 그와 꼭 닮았는데, (내가 신학교에 도착해서, 나를 아주 무관심하게 대하는 한 동료에게 다가가려고 애썼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셨다.) 왜 불평을 하느냐?

다윗: 예수님...

예수님: 그렇지 않느냐, 애야. 나는 네가 너를 극진히 사랑하신 그분을 더욱 정중하고 관심있게 대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잘 알고 있으니 이르게 말하는 것이 아니냐. 이제 평안히 가거라.

1998년 2월 12일, 콜롬비아

예수님: 다윗아, 언제나 너를 도와 줄 준비가 되어있는 누군가를 친구로 삼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 아니겠느냐?

다윗: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 나는 너의 하느님, 충실한 친구이다. 사람은 너에게 등을 돌리고, 가장 나쁜 적으로 돌아설 수도 있겠지만, 너의 하느님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실 것이다. 오 다윗아! 나는 오늘날의 사람들이 사랑하는 일 외에는 아무 것도 하지 않으신 그분 바로 곁에서 걸어가기를 얼마나 원하는지 모른다. 오, 만일 세상이 이 은총의 선물과 그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분이 누구인가를 알았더라면, 나는 이 세상에 영원한 생명이 샘솟는 물을 줄 수 있으련만. 내 사랑아...

다윗: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 물은 나의 영, 너희가 아직 모르고 있고, 사람을 내가 거룩한 것처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힘을 지닌 은총의 선물이다. 성화를 갈망하고 목말라 하여라. 너는 내 영에게 끊임없이 이 은총을 청하여라. 나는 목말라하는 사람에게 물을 주기를 좋아한다. 그리고 배고픈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겠느냐? 나는 생명의 빵이고, 내 몸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살고 나는 그 사람 안에 산다.

다윗: 예수님...

예수님: 듣고 있다.

다윗: 저를 떠나지 마십시오. 어제보다 오늘 더욱 당신 없이 저는 아무 것도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 전에 말했지, 다윗아,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말이다. 내가 인간을 떠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떠난다. 나는 너희에게 내 사랑을 주는데, 물을 담아두지도 못하는 깨진 물통에 담긴 물 마시기를 더 좋아하면서, 너희는 그 사랑을 무시하는 때가 많단다. 오 다윗아! 나에게 오너라, 너에게 생명을, 넘치는 생명을 주고 싶구나. 나는 말이다, 내 친구야, 네가 더 많이 내 영의 이끄심에 너를 맡기기를 간절히 원한단다. 네 영이 너를 평탄한 길로 인도하고, 네 영혼의 적들이 너를 비웃는 것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평안히 쉬어라.

1998년 2월 15일, 콜롬비아

예수님: 왜 떨고 있느냐? 왜 그리 놀랐느냐?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모르느냐? *(나는 시작한 공부가 잘 안 될까봐 걱정하고 있었다.)* 너의 적들이 너에게 전쟁을 선포하고 너보다 더 강해 보인다 하더라도, 내가 너와 함께 있는데 두려워 떨 이유가 없지 않느냐. 아니면, 나보다 더 강한 군대나 적이 존재하기라도 한단 말이더냐?

다윗: 아닙니다, 예수님. 당신은 저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알고 계시죠?

예수님: 나를 신뢰하여라, 애야.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불가능한 것은 없음을 나는 잘 알고 있으니 말이다.

다윗: 예수님, 알고 계십니까? 제가 체험하는 이 모든 것들이 저를 당신과 일치시켜 준다는 사실이요. 당신은 제가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고, 더구나, 제 마음이 당신께 의존해 있다는 것을 거의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다윗아, 네가 하는 말을 들으니 정말 기쁘구나. 그러나 이것은 네가 나에게 줄 수 있는 것에 비해서 아직 너무 적은 것이다. 나를 사랑하여라, 내 아이야, 네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의 잘못을 용서하고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 있는 사람처럼 그들을 도와주면서 나를 사랑하여라. 매일의 부름에 충실하면서 나를 사랑하여라. 다윗아, 내 계명을 지키면서 나를 사랑하여라. 너 피곤하지, 그렇지 않느냐?

다윗: 예, 주님. 그러나 아직 조금 더 이렇게 당신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예수님: 졸리는 건 상관 없느냐?

다윗: 팬찮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다윗아, 가서, 내 평화 안에 쉬어라. 나로서는 오늘 충분하단다.

다윗: 저하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당신도 졸립습니까?

예수님: 내 사랑아, 너의 보호자는 자지도 않고 쉬지도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서 보고 싶은 것은 이미 다 보았구나.

다윗: 제 안에서 무엇을 보셨습니까?

예수님: 나와 함께 있으려는 그 깊은 소망이다. 오늘의 피로를 느끼면서도 말이다.

다윗: 오 하느님, 당신은 저를 사로잡으십니다!

예수님: 가서 평안히 쉬어라.

1998년 2월 17일, 콜롬비아

아침에.

다윗: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

예수님: 듣고 있다.

다윗: 당신이 나의 하느님이시라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신학교에서 구세사 시간에 공부한 주제를 보고 이 말씀을 드렸다.)*

예수님: 다윗아, 나 또한 네가 내 아들이라는 것이 자랑스럽다.

다윗: 오 예수님! 저에게 힘을 주시려고 이 말씀을 하시는군요.

예수님: 내 사랑아, 곧 진리이신 분이 거짓말을 할 수 있느냐? 그 불완전한 영혼이 *(우리 어머니를 말씀하신다.)* 너를 자랑스러워 한다면, 대덕이신 분께서는 얼마나 더 그러하시겠느냐? 나는 네가 아주 어리고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너는 있는 그대로 나를 무척 기쁘게 한단다.

다윗: 당신께서도 저를 기쁘게 하십니다. 당신을 더욱더 사랑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제 간절한 바람입니다. 저는 가끔 당신을 전혀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껴집니다. 당신때문에 더 많은 감동을 받을 수만 있다면... 그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예수님: 다윗아, 저 잔을 보아라... 이제 다른 잔을 보아라. 어느 것이 더 높으냐? 두번째 잔이 더 크지 않느냐? 이것이 다른 잔보다 더 많은 물을 담지 못하겠느냐? 이처럼 너에게도 마찬가지란다. 네가 얼마나 더 많이 내 계명을 지키느냐에 따라, 너는 그 정도의 높이로 나를 사랑한다고 느낄 것이다. 규칙을 존중하면서 이곳에서 나를 사랑하기 시작하여라. 순종적인 젊은이는 사랑하는 영혼이고, 사랑하는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이란단다. 애야...

다윗: 말씀하십시오, 주님.

예수님: 나는 네가 매우 자랑스럽다.

다윗: 정말입니까?

예수님: 왜 의심을 하느냐?

다윗: 주님, 당신은 이렇게 크십니다. *(나는 두팔로 큰 원을 그렸다.)*

예수님: 의심하지 말아라.. 나는 너를 영원히 사랑할 진리(이신 분)이다. 오 다윗아!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을 *(당신의 영을 말씀하신다.)* 알았더라면, 분명히 말하거니와, 너는 사랑으로 죽을 것이다. 나를 사랑하여라. 이제 평안히 가거라.

1998년 2월 18일, 콜롬비아

아침에.

다윗: 예수님, 제가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 잘 안돼서요. 당신께서 더 잘 할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예수님: 네가 잘 했다. 그것이 내가 기대한 것이다. *(내가 완벽주의에 빠지지 않고 일 할 수 있게 하려고 이 말씀을 하셨다.)* 이제 내 평화를 간직하여라.

1998년 2월 26일, 콜롬비아

아침에.

다윗: 예수님, 시간 좀 내주시겠습니까?

예수님: 듣고 있는데, 왜 입을 다물고 있느냐?

다윗: 왜냐하면 더욱더 당신의 것이 되고 싶은 소망이 너무 커서요. 그렇게 좋으신 하느님, 내 영혼을 그렇게 자비로이 대하시는 하느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나를 사랑하여라, 나는 그것으로 족하다. 너 자신을 사랑하듯 너의 이웃을 사랑하여라. 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란다. 다윗아, 알고 있느냐?

다윗: 말씀하십시오, 주님.

예수님: 성체성사에 참여할 때, 분명히 말하거니와, 내 몸과 내 피가 너의 영혼에 얼마나 많은 선익이 되는가를 상상하지 못할 것이다. 이 생수가 솟는 샘은, 애야, 네가 지닌 덕들의 잎사귀를 더욱 푸르게 해준다. 게다가, 이 불은 나에게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너를 타게 할 것이며, 네 마음을 유순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해 줄 것이다.

다윗: 예수님, 당신을 영하기 위해 빨리 내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너와 내가 더욱더 일치되고 또 나의 은총으로 너를 가득 채우도록, 너는 나를 그렇게 영하고 싶으냐?

다윗: 예, 나의 하느님.

예수님: 나를 소유하거나 내 포도밭에 있기를 그렇게도 간절히 원하느냐?

다윗: 예, 수천 번도 더 그렇습니다.

예수님: 오 다윗아! 너의 포도밭은, 다시 말해, 너의 마음은 나만의 것이고 나만이 네 포도밭의 파수꾼이다.

다윗: 오 나의 왕이신 주님!

예수님: 다시 말해 보아라.

다윗: 오 나의 왕이신 주님!

예수님: 나는 너에게 누구이더냐?

다윗: 나의 왕...

예수님: 그의 하느님이 주님이신 나라는 복되어라. 분명히 말하거니와, 다윗아, 그의 비참함은 바람에 날리는 낙엽과 같고, 그의 어두움은 한낮의 빛보다 더 밝을 것이다. 이제 평화로이 함께 가자꾸나. (예수님은 그날 해야하는 내 공부에 함께 해 주셨다.)

1998년 2월 28일, 콜롬비아

1998 년 3 월, 콜롬비아

예수님: 다윗아, 이 나무들처럼 되는 것을 배워라. 그의 은유함, 그의 침묵을 본받아라. 그들의 밑둥을 잘라도 이유를 묻지 않고, 불평하지도 않고, 오히려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견딘다. 이와 같은 것이 사랑이고, 너의 사랑도 이와 같아야 한단다. 내 사랑아, 이해하고, 섬기고, 잘못들을 용서하고 잊어버릴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한단다. 이것이 네 마음 깊숙한 곳에 내가 새겨둔 법이다. 오 다윗아! 나를 더욱 본받고 마음이 은유하고 겸손한 나처럼 되라고 너를 부르신 그분과 더욱 닮아가거라.

다윗: 저한테는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 모든 피조물은, 다윗아, 하느님의 모상이 될 능력을 갖고 있단다. 그러면 일이 생기느냐? 사람들은 나머지도 거부하고 잊어버리고, 성화 곧 거룩한 사람이 되라는 하느님의 부르심마저도 하찮게 여길 정도로, 다른 것들에 흥미를 갖는다.

다윗: 이 사실이 당신을 무척 아프게 하죠, 안 그런가요?

예수님: 너는 느끼지 못하느냐? 나는 죄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고, 그를 미워하지도 않는다. 나는 죄는 싫어하지만, 그는 *(죄인을 말씀하신다.)* 사랑한단다. 오 다윗아! 내 느낌들을 너에게 표현할 때, 얼마나 큰 사랑으로 그렇게 하는지, 너는 상상하지 못할 것이다. 더구나 나는, 너희가 성체성사 안에 있는 것, 사랑의 기적, 사르는 불, 너희 하느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사람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아직도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단다. 애야, 잘 보아라, 살수기 아래 있으면 너는 물에 젖고, 목이 마르면 물을 찾고, 추우면 옷을 입고, 하루를 마칠 때는 너의 힘을 회복하면서 쉬다는 것을 말이다. 내가 틀렸느냐?

다윗: 아닙니다.

예수님: 성체성사는 목마름, 추위, 나에게 충실하려는 요구를 지닌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얼마나 더 많이 주겠느냐? 내 몸을 먹고, 내 사랑아,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나와 그리고 나는 그 사람과 일치하여 살고, 그는 다른 그리스도가 된단다. 이제 평안히 가거라, coquito de Dios, 그리고 내 아버지께서 너의 인격 안에서 내 인격, 다시 말해, 내가 지녔던 태도들을 볼 수 있어야 한단다.

1998 년 3 월 11 일, 콜롬비아

다윗: 예수님, 그 사목에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학생으로, 한 시골 공동체에 봉사자로 파견되었다.)

예수님: 다윗아,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오늘 한 것처럼, 나는 네 입을 통해 말하고, 네 마음 안에 나의 마음을 넣어 줄 것이다.

다윗: 오 나의 주님! 저는 너무나 비참합니다.

예수님: 오 다윗아! 잘 보아라. 흠으로 빚어진 인간인 네가 나에게 대해 그 영혼들에게 말을 할 때, 그들의 마음이 불길처럼 탄다면, 내가 네 마음의 절대적인 주인이 되기 시작할 때 하는 나의 말들은 얼마나 더 큰 불을 일으킬런지 상상할 수 있겠느냐? 분명히 말하거니와, 가장 완고한 마음에서도 생명의 샘이 솟아날 것이다. 내 사랑아...

다윗: 말씀하십시오, 예수님.

예수님: 내 말은 너의 발걸음을 비추는 등불이고, 평탄한 길을 건도록 이끌어주는 길이란다.

다윗: 그것이 제 간절한 바람입니다.

예수님: 그러면 그 이상을 위해 싸우고 내 영이 거하는 성전이 되기 위해 싸워라. 이제 내 평화를 간직하여라.

1998년 3월 13일, 콜롬비아

다윗: 예수님, 당신은 연민 때문에 저를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내 사랑아, 나는 그래서 너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란다. 오히려 수난,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소중히 여긴단다. 너에 대해 느끼는 내 사랑은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아무도 말이지, 잘 들어라, 내가 십자가와 성체성사 안에서 한 것처럼 그렇게 너를 사랑하는 사람도 없고, 그런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다윗: 예수님, 제가 당신을 얼마나 조금 밖에 사랑하지 않는지 알고나니 너무 슬프습니다.

예수님: 낙심하지 말아라, 내 영혼아. 마음을 진정하고 힘을 내어라. 나는 누구와 함께 가고 있는지 알고 있단다.

다윗: 그러나 예수님... (예수님께서 내 말을 막으셨다.)

예수님: 조용해라, 내 사랑아.. 너는 할 수 있으니까. 너는 나를 사랑하고 자애로운 행동으로 나에게 대한 사랑을 고백할 능력이 있음을 절대 잊지 말아라. 사랑은, 애야, 위대한 것을 요구하지도 않고, 그런 식으로 증거하지도 않고, 오히려 단순함 안에서 드러난다. 필요하다면 몇 번이고 용서하면서, 대신에 아무 것도 받을 생각하지 않고 내주면서, 그리고 너의 장상들이나 네 이웃들의 충고를 받아들이면서 말이다. 네가, 다윗아, 너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고 너를 친절히 대하는 사람들만 찾는다면, 무슨 공로가 있겠느냐? 사랑은 제외하는 사람 없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때 더욱 빛난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라. 내 작은 아이야...

다윗: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 나는 이것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확인해 볼 것이다. 이제 내 평화를 간직하여라.

1998년 3월 15일, 콜롬비아

다윗: 예수님, 저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너무 고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 내가 네 곁에 있단다.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의 하느님은 결코 너에게 등을 돌리지도 않고, 너를 결코 잊지도 않을 것이다. 나는 너의 것이고 너는 온전히 나의 것이고, 우리는 하나이란다. 넌 혹시 그것을 잊은 것은 아니더냐? 아니면, 네가 쪼개진 빵을 나누어 받아 먹을 때, 너는 내 안에 살고 나는 네 안에 산다는 것을 명심하지 않았다는 말이나? 오 다윗아! 나는 가장 깊숙한 네 마음 속에 있음을 느껴라. 나는 너의 모든 것이고, 사자의 입에서 너를 빼낸 분, 적들에 둘러싸인 너를 구해낸 분임을 알아라. 나는 어두운 죽음의 권세에서 너를 해방시켜 살려주었다. 너는 항상 너를 생각하고 있는 분이 너를 버리거나 너를 멀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느냐? 내 사랑아, 네 어머니의 태중에서 너를 빚으신 분은, 너의 생애 모든 날에 함께 하시리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다윗: 예수님, 제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당신께 드립니다. 저는 당신이 제 마음보다 훨씬 더 좋은 것들을 바치셨음을 알지만, 저는 제 마음을 온 사랑으로 당신께 드립니다.

예수님: 다윗, 하느님의 사랑아, 사람들이 내게 바친 그 모든 마음들은, 나에게 그 가치가 아주 크단다. 지금까지 네가 한 것처럼, 큰 사랑으로 그들도 그들의 마음을 나에게 주었기 때문이란다. 이제 내 평화를 간직하여라, 내 친구야.

예수님: 다윗아...

다윗: 말씀하십시오, 주님.

예수님: 너의 어머니께서 너에게, 너는 더 많은 점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수는 절대 받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느냐? (3 점을 말씀하시는데, 공립학교에서 한 과목이 통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점수였다.) 아니면, 평범한 학생이 아니고 훌륭한 학생이 되라고 힘을 북돋아 주시던 것을 기억하느냐? 나도 바로 그 말을 너에게 하지만, 그러나 이런 말들로 하겠다. 곧, 만일 소금이 자신의 맛을 잃어버린다면, 무엇에 쓰겠느냐, 내 사랑아? 무슨 일이든 적당하게 하는 습관을 들이지 말아라. 네가 정결하기를 바란다면, 생각도 깨끗하게 하여라. 네가 친절하기를 바란다면, 좋은 사람에게만 친절할 것이 아니라 나쁜 사람에게도 친절하여라. 네가 증거자가 되려고 한다면, 빛이 되어라. 그러나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만 아니라, 혼자 고독하게 있을 때에도 그렇게 하여라. 다윗아...

다윗: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 비록 네가 구덩이 아래로 내려가거나 또는 산꼭대기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나는 거기에 있을 것이다. 너는 결코 나에게서 너를 감추지 못할 것이다. 네가 밀림 속에 숨거나 이 세상 저 끝까지 간다해도, 내 손에서 먼 곳은 아무데도 없음을 명심하여라. 넌 알고 있느냐?

다윗: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래 전에 네가 그 영혼에게 (내 옛 약혼자를 말씀하신다.) 청했던 것을 나는 너에게 청할 것이다. 항상 나를 기억하여라, 바로 이것이다. 내 사랑아, 내 이름이 네 입술에서도 네 마음에서도 결코 사라지지 않도록 항상 나를 기억하여라. 내가 너의 완전한 너의 주인이 되고 싶은 갈망을, 다윗아, 부정할 수가 없구나. 왜 가만히 있느냐? 뭐든 말해 보아라.

다윗: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까지, 어중간하게라도, 당신을 제 마음의 주인으로 삼고 있었음을 당신도 잘 알고 계시는데요.

예수님: 그러나, 다윗아, 내가 너의 완전한 주인이 되는 것, 그것을 잊지 말아라. 잘 보아라, 네 방의 창문 커튼을 열어보아라.

다윗: 예수님, 태양이 아주 눈부십니다.

예수님: 나의 좋은 친구야, 나는 네가 이와 같기를 원한다. 어떻게냐고? 내 계명을 지키면서 말이다. 행복하고 싶으냐? 그러면 내 계명들을 실천에 옮겨라. 내 얼굴을 마주보고 싶으냐? 그러면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쉬는 그 순간까지 내 계명들을 실천하여라. 기쁘게 나와 함께 하고 싶으냐? 그러면 네 이웃에게 잘해주고 너자신에게 하듯 네 이웃을 사랑하여라.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

다윗: 없습니다.

예수님: 그러면 내 평화를 간직하여라, 내 친구야.

1998년 3월 27일, 콜롬비아

1998 년 4 월, 콜롬비아

아침에.

예수님: 다윗아,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자신의 악행을 뉘우치는 한 영혼의 잘못들은 잊어버린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나는 내 행동 방식때문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다윗: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가끔가다 저는 의지가 너무 약하고 당신께 무심한 것이 아주 가슴 아픕니다.

예수님: 내 사랑아, 인간의 그 본성상 언제나 나약함에 기울어지겠지만, 이것이 나쁜 것은 아니다. 나쁜 것은, 우리의 모습을 닮도록 만들어진 이 피조물이, 자신이 걸어가는 악한 길을 고집하면서 욕정에 따라 살려고 자신의 나약함을 핑계삼는 것이란다. 오 다윗아!

다윗: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 세대는 내 은총이 지닌 효과를 발견하지 못했다. 너희는 허무의 노예, 더더구나 욕정의 노예가 되려고 창조되지 않았다는 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했다. 너희는 자유로운 인간, 너희 하느님의 모상이자 광채가 되도록 창조되었다.

-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침묵을 지켰다.

예수님: 이 모든 것으로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나? 네가 시작한 이 길에는, 내가 이미 너에게 한번 말했던 것처럼, 너의 눈길을 끄는 꽃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주님은 나에게, 아무 것에도 아무에게도 애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이해시키시려고, 1993 년에 이 말씀을 하셨다.)* 바람직한 것은, 다윗아, 그 꽃들을 감상하려고 멈춰 서있지 않는 것이란다. 계속 전진하여라, 경기에 나서는 모든 선수처럼 너의 목표는 네 주변에서 보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분께 속하는 것이 되어야한다. 너의 최종 목표, 너의 동기, 너의 갈망은 사랑이신 하느님이 되어야 한다. 그분에게 있어 너는 한 주체, 한 마음, 그분을 소유하고 너의 삶 안에서 그분을 빛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한 영혼이다. 오 나의 집아!

다윗: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 내가 또 다른 하나의 그리스도가 됨으로써 너의 주님을 찬미하여라. 어떻게냐고? 오늘 네가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언자들, 사도들, 교회가 그들의 삶을 본받으라고 우리에게 제시하는 성인들을 말씀하신다.)* 가득 내린 영의 인도를 따라가거라. 나는 살아있으며, 너의 하느님은 무관심의 십자나무

위에서 <목마르다> 고 외친다는 것을 너의 행동으로 선포하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사랑아, 용기를 내어라,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하여 네가 오로지 너의 하느님의 것이 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멀리하여라. 항상 섬기고, 보상 받기를 전혀 기대하지 않으며 내어주는 것을 갈망하여라. 그리고 정의롭고 공정하게 판단하시는 그분의 손에 너를 맡겨라. 그분은, 다윗아,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저울에 다시고 그의 모든 행위를 아주 잘 아신단다. 그분은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지 않으시고, 당신 안에 피신하는 사람들을, 너는 생각도 못할 만큼, 중히 여기신단다. 너의 하느님 안에 몸을 숨겨라, 내 친구야.

다윗: 예수님, 왜 마지막에 저를 내 친구라고 부르셨습니까?

예수님: 그럼 너는 내 친구가 아니란 말이나?

다윗: 뭐, 좋습니다! 친구가 되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님: 다윗아, 나는 네가 우정을 얼마나 높이 평가하는지 알고 있고, 그 우정을 어느 정도로 소중히 여길 수 있는지 알고 있단다. 나는 너에게 내 우정을 주는데, 나에게 있어 너는 이미 종이 아니고 내 친구이며, 나는 너의 친구가 되고 싶단다.

다윗: 그러나, 예수님, 저는 입술로만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나쁜 행동으로 당신을 많이 부정합니다.

예수님: 다윗아, 네가 만일 베드로처럼 나를 부정하고 싶다면, (예수님의 영 안에서 어떤 일을 하는 대신에 우리의 욕에 따라 행동할 때, 우리는 우리의 행동으로 예수님을 부정한다.) 그러나 유다처럼 배반하지는 말아라. 나를 부정하는 각 사람의 마음 속에는 변화의 능력과 <주님, 주님은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말이다. 이제 내 평화를 간직하여라, 내 친구야.

1998년 4월 20일, 콜롬비아

아침에.

예수님: 다윗아, 넌 알고 있느냐?

다윗: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이루는데, 내가 왜 그렇게 하는 것을 좋아하는지 아느냐?

다윗: 모르겠습니다, 주님.

예수님: 나는 거룩하게 하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권능을 갖고 있다. 다윗아, 그것을 잊지 말아라, 너를 거룩하고 흠 없는 제물로 만들 수 있는 권능 말이다. 거룩함이 내 집의 장식이고 향기이다. 이미 너에게 말했듯이, 내 아버지께서 <누가 이 기분좋은 향기를 풍기는 거지?> 하고 고개를 갸웃거리시며 그 냄새에 취하신다. 너는, <아버지의 작은 다윗 아닙니까?> 하고 내 아버지께 말씀드리는 것이 아름답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다윗: 오 하느님!

예수님: 내 사랑아, 낙심하지 말아라. 너의 하느님께서는 불가능이 없음을 생각하고 믿어라. 그분께 의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더더욱 안 되는 것이 없다. 나는 내 오른팔로 너를 받치고 있다. 나의 용맹한 친구야, 그전보다 훨씬 더 너의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노력하여라, 너에게 당신의 은총을 주실 것이다. 네가 거룩하기를 바라시니까 말이다. 이제 내 평화를 간직하여라.

1998년 4월 23일, 콜롬비아.

예수님: 다윗아, 내 친구는 말이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악의 결과를 이루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 힘을 내어라, 용기를 내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이제 내 평화를 간직하여라. *(나는 시험 하나에 실패를 했다.)*

1998년 4월 24일, 콜롬비아

공부를 마친 후, 밤중에.

예수님: 다윗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나는 지혜이니까 너에게 이 과제를 공부하는데 필요한 빛 그리고 악과 선을 구분할 수 있도록 빛을 주겠다. 더구나, 내 사랑아, 너는 내가 좋아하지 않는 행동을 피하려고 두번 생각하지 말아라. 마찬가지로, 우리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을 멀리하고, 네 마음에서 길이며, 진리며, 생명(이신 분)을 멀리할 수 있는 모든 생각을 치워버려라. 할 말이 있느냐?

다윗: 없습니다.

예수님: 그러면 내 평화 안에 쉬러 가거라, 내 소중한 친구야. 그리고 너는 질그릇 안에 큰 보화를 담고 있음을 잊지 말아라.

1998년 4월 30일, 콜롬비아

1998 년 5 월, 콜롬비아

오후에.

다윗: 주님, 제가 혼자 이 모든 것을 다 살고난 다음에, 여기, 다시 당신 곁에 제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변화시켜야 할 것들이 많이 있는데 저 혼자서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와주십시오! 너무 신중하지 못하고, 말을 너무 마구하고, 너무 무책임하고, 너무 두려움이 많은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냉정하고 무관심할 때, 내 이웃에게 관대하지 못할 때, 용서해 주십시오. 오, 당신을 반사하는 거울이 되지 못함이 얼마나 슬픈 일인지요! 당신 사랑의 그늘, 하느님의 모상이 되지 못하는 것은,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알고 계세요? 저는 아주 나쁜 당신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노력하겠다고 약속을 드렸었는데... 저는 지금 제가 달려온 길을 보고 두발자국 앞으로 전진했으면 세발자국 뒤로 물러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한탄스럽습니다. 당신이 배반당했다고 느낄 수 있으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른 때 같으면, 다른 사람을 찾으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지 않는 것은 아직 당신께서 저와 함께 계시고, 저에게 기대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오 하느님!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변덕스러움의 모범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변하고 싶고, 당신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에게 말씀하고 싶지 않으시다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것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에게 꿈꾸셨던 그런 젊은이가 되려고 노력하리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님: 다윗아, 용기있는 내 친구야, 너에게 한가지만 말하겠는데, 나는 너를 잃고 싶지 않다. 이제 내 평화를 간직하여라.

1998 년 5 월 1 일, 콜롬비아

아침에.

다윗: 예수님, 아침을 잘 맞으셨습니까 아니면 잘 못맞으셨습니까?

예수님: 너의 말투가 나를 아주 웃기는구나.

다윗: 당신께서 저를 대하시는 것을 보십시오. 당신이 사랑에 열광한 분이시라는 것을 저는 한번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당신은 모든 종류의 영적 물질 재산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 인간들에게 미치셨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 듣고 있다.

다윗: 저는 당신께 대한 사랑으로 미치고 싶고, 제 마음의 돌판에 당신을 새기고 싶습니다.

예수님: 너 나를 무척 재미있게 하는구나.

다윗: 왜요, 그것이 사실인데요? 저는 너무 완고하구요, 적어도 이 완고함을 당신의 법을 거기에 새기는 데라도 써야겠습니다. 예수님... 종이 울렸는데, 아침식사 하러 가야겠습니다.

예수님: 평안히 가거라.

나중에.

예수님: 다윗아, 내가 너와 함께 있는데, 누가 너와 맞서겠느냐? 도달 불가능한 것이 있겠느냐? (나는 신학교에서 한 과목이 낙제할까봐 아주 걱정하고 있었다.)

다윗: 예수님, 그 과목은 거대한 산 같아 보입니다. 가끔가다 전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예수님: 다윗아, 아무리 큰 산이든 작은 산이든, 나에게 대한 믿음만 있다면 움직이지 못할 산은 없단다. 네가 할 일은 네가 하여라, 다시 말해, 공부하여라. 내가 할 것은 내가 하겠다.

다윗: 주님, 저에게 힘을 주시는군요.

예수님: 그 말을 들으니 기쁘구나, 이제 내 평화를 간직하여라.

1998년 5월 14일, 콜롬비아

예수님: 다윗아, 내가 너의 마음을 내 거처로 삼아도 되겠느냐?

다윗: 예... 그리고 동시에 저의 모든 더러움을 깨끗이 씻어주십시오.

예수님: 그렇게 해주마, 내 사랑아, 그렇게 하마.

다윗: 예수님, 오 나의 주님! 제가 길에서 보고 심한 혐오를 느꼈던 그것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 그럼, 기억하고 있단다.

다윗: 제가 그렇게 느껴지고, 꼭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 왜 너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느끼고 생각하느냐?

다윗: 왜냐하면 저는 변덕쟁이이고, 오늘은 당신의 계명을 지키다 내일은 당신이 싫어하시는 것을 행하면서 그 계명을 잊어버리는 미혹한 자라 그렇습니다.

- 예수님은 침묵을 지키셨다.

다윗: 왜 조용하십니까?

예수님: 너무 재미있어서 그렇단다. 너는 왜 저 꽃들이 아름답고 저 재배지가 비옥한지 알고 있느냐? (신학교 부지에 있는 밭을 말씀하신다.)

다윗: 물을 주고 햇빛이 비치니까 그럴 것입니다.

예수님: 그리고 또 저 퇴비를 뿌리니까 그렇단다. 이것으로 너에게 무슨 말을 할 것 같으냐? 너는 나에게 매우 유용하단다. 어느 날, 너는 네 자신이 어떻게 쓰일지 전혀 상상도 못하겠지만,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고 말했었는데, 오늘 너에게 그 말을 다시 한번 더 들려준다, 내 작은 은닉처야.

다윗: 예수님, 저에게 호의를 베풀어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수님: 듣고 있다.

다윗: 당신의 성심에 대한 사랑에 빠지게 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저는 당신을 열렬히 사랑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이 말을 들으니 얼마나 기쁘지 모르겠구나! 다윗아, 넌 알고 있느냐?

다윗: 말씀하십시오.

예수님: 지체하지 않고 그렇게 해주겠다. 나 또한 그것을 원하니까 말이다. 나는 이 인류가 온 마음을 다해 나에게 돌아오기를 바란단다. 나는, 내 작은 피난처야,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기를 원한다. 나는 얼마나 자비롭고 얼마나 연민이 많은지! 나는 각 사람을 살아계신 하느님, 하늘에 있는 아흔 아홉 명의 의인을 놔두고 땅에서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을 찾아다니시는 하느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만들 수 있단다. 그 한 마리 양은 너란다, 내 소중한 친구야.

다윗: 뭔가 말씀드리기를 바라십니까? 저는 당신의 가치를 드높이고 싶고, 당신께는 그럴만한 자격이 있으십니다. 당신께 충실하고 싶고, 또 그렇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당신께서 <너의 소중한 친구> 라고 말씀하시는 그대로 될 때까지, 우리의 관계를 노리는 사람들을 멀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아니다, 그들을 멀리하지 말아라. 그들은 고귀한 영혼들이니까, 오히려 너 자신이 아니라 내가 드러나게 하여라. (내게 훌륭한 증거를 하라고 초대하신다.) 그러면 나의 빛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은 떠나가고, 내 빛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남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윗아...

다윗: 말씀하십시오, 주님.

예수님: 살아있는 나의 복음이 되어라. 그렇게 하면 그들은 네가 흔히 사용하는 향기를 맡고, 모든 사람들이 네가 하는 행동을 보고 네 안에서 나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어떻게 하냐고? 내 진리의 영을 따라가면서 할 수 있단다. 이진 알고 있느냐? 나를 너의 향수로 사용하여라. 그러면 네 둘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네 안에서 너의 하느님의 향긋한 냄새를 맡을 것이다. 내 제안을 받아들이겠느냐?

다윗: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님: 듣고 있다.

다윗: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 좋다, 그럼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다윗: 저도 받아들이겠습니다.

예수님: 이제 느긋한 마음으로 공부하는 그만하거라. 그리고 다른 어떤 사람보다 나를 더욱 신뢰하여라. (신학교에서 미사때 성가대를 같이 지도해 줄 친구 하나를 청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셨다. 나는 다른 신학생 한 사람과 함께 하면 모든 것이 더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1998년 5월 18일, 콜롬비아

1998 년 6 월 - 7 월, 콜롬비아 / 콜론

아침에.

예수님: 다윗아, 내 작은 피난처야, 넌 알고 있느냐?

다윗: 말씀하십시오, 주님.

예수님: 나는 너를 존경한다. 너는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수 많은 은총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못한다고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낙심하고 있었다.) 너는 매력 있고, 사람들이 너에게 등을 돌리거나 어떤 악을 행한다 하더라도, 나, 너의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내 영이 항상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다윗아...

다윗: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 내가 한 영혼에게 눈길을 둘 때, 나는 그에게 내 영의 선물을 주는 것을 즐긴다. 이 은총의 선물은, 내 사랑아, 너에게 강한 힘을 주고, 너를 네 어머니의 태중에서 지으시고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도록 내 계명에 따라 살게 해 줄 것이다. 이것이 너에게는 하나의 정신나간 일처럼 보일 수도 있음을 알고 있단다. 나는 네 마음 속에서 그것을 읽을 수 있고, 네 생각이 맞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나는 너와 세상 사람들을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음을 깨달아다오. 왜 입을 다물고 있느냐?

다윗: 이렇게 있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입을 다물고 당신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나 미소하게 느껴집니다. 저는 오직 당신을 사랑하고 저 자신을 더욱더 포기하고, 제 주변의 사람들에게 당신은 살아계시며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선포할 이유가 얼마나 많은지, 그것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저는 단 한가지만 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어머니 (성모님) 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더욱더 당신을 닮는 것, 오로지 당신의 것이 되는 것... 그렇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당신의 것이 되는 것 말입니다.

예수님: 고맙고 기쁘구나, 나와 함께 해주어서. 네가 더군다나 사랑에 탈뿐 아니라, 비통하고 낮추인 마음으로 하는 말을 들으니 정말 기쁘단다. 이제 내가 주는 평화를 받아라.

1998 년 6 월 2 일, 콜롬비아

예수님: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느냐?

다윗: 제가 당신을 더욱더 닮기를 바라시는 것, 그것 아닙니까?

예수님: 알고 있구나, 그것이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다. 그것이 내 소원이고, 너에게 겹옷만 주지 말고 속옷까지 주라고 말하는 것도 그 이유 때문이란다. *(더욱 관대하고 이타적인 사람이 되라고 초대하셨다.)* 2킬로미터 (오리)만 가는 잘못에 빠지지 말고, 계속 가거라, 어물거리지 말고, 완덕은, 다윗아, 매일의 수고라서 하루 하루 더욱 여물어가야 한단다. 내 사랑아...

다윗: 말씀하십시오, 주님.

예수님: 내가 너를 소유하게 해다오, 너의 젊음 안에서 내가 더욱더 드러나게 해다오, 너의 온 마음을 나에게 다오. 너는 한가지 사실을 알고 있느냐? 네 마음에 간직한 소망들을 실현시키고, 너의 노력을 성공으로 이끌려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는 바로 나, 우주를 만드시고 무에서 너를 창조하신 너의 하느님이라는 사실 말이다. 내 작은 피난처야...

다윗: 말씀하십시오.

예수님: 네가 아주 좋아하는, 네가 입고 있는 외투가 어떻게 짜여져 있는지 보았느냐?

다윗: 예, 각 색의 실들을 아주 잘 어울리게 짜놓았습니다. 이 외투를 만든 사람은 솜씨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 생각 못하겠느냐?

다윗: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덕이 곧 그와 같단다, 덕들은 서로 어울려가고, 덕 하나 하나가 내 영이 하나의 아름다운 옷이 되도록 짜나가는 각각 다른 색의 실이란다. 내 영은 실로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분이고, 거룩하게 하는 일에 있어서, 그 일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아주 잘 아신단다. 다시 말해, 내 영이 하는 일들은 언제나 경탄스럽고 반복될 수 없는 일들이란다. 이제 내 평화를 간직하여라.

1998년 6월 6일, 콜롬비아

밤중에.

예수님: 왜 마음이 슬픔에 잠겨 있느냐, 다윗아?

다윗: 그 이유는 당신이 잘 알고 계십니다. *(나는 예수님께 조금 빈정거리는 투로 대답했다.)*

예수님: 다윗아, 너의 승리는 곧 나의 승리다. 네가 피로워할 때, 그것은 나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아니라면, 우리는 친구가 아니란 말이더냐? 네가 실패한 것은 내 잘못이 아니다... 그리고 내가 그 실패의 장본인은 더더구나 아니다.

다윗: 그러면,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시험 하나에 낙제했다.)* 다른 사람들은 어땠는지 보십시오. 반면에 <당신의 작은 피난처>는 엉망이었습니다. *(나는 아주 짜증스럽게 말했다.)*

예수님: 다윗아, 사람은 뿌린대로 거둔다. 너는 나보다는 너 자신의 책임에 달린 일을 나에게 항의하고, 왜 예수님이 이것을 성공하게 해주지 않았을까하고 자문하고 있다. 너는, 나의 사랑과 충실함의 열매를 기다리시는 그분의 축복을 받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하고, 너 스스로에게 물었어야 할 것이다. 너는 아직도 네 군대의 힘, 다시 말해, 나보다 너 자신을 더 믿기 때문에 너에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다. *(예수님은 나에게 아주 권위있게 말씀하셨다.)* 다윗아...

다윗: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 의로운 사람은 내 안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승리하고, 그에게는 악한 결과가 생기지 않는단다. 그는 오로지 생명과 죽음을 주시는 분, 가난한 이들을 일으켜 왕자들 가운데 앉게 하시는 하느님께 믿음과 신뢰를 두기 때문에 그렇단다. 나는 너에게 악한 결과가 생기기를 원하지 않고, 오히려 모든 것이 그 반대가 되기를 원한단다. *(예수님은 목소리의 톤을 바꾸셨다.)* 하느님의 친구야...

다윗: 주님, 말씀하십시오.

예수님: 누가 나를 너에게서 떼어놓겠느냐? 나를 사랑하여라, 그리고 더욱더 내 영의 인도에 따라가거라. 너는 당신의 손바닥에 너를 새겨두신 그분께는 불가능한 일이 아무 것도 없음을 더욱 깊게 깨달아야 하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 무슨 일이냐?

다윗: 용서해 주십시오. 맞습니다. 제 자신의 실패에 대한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당신의 영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지도 않고, 제가 해야 할 일에 무책임하고, 제 행실 안에서 당신을 드러내지도 못해 죄송합니다. 너무 자만하고, 당신께 대한 마음은 줄어들고, 인내롭지 못했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오 하느님! 제 마음이 당신의 거처가 되지 못하고, 제 몸이 당신 영의 성전이 되지 못할 때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 다윗아, 사랑은 모든 죄를 지워버리고, 너에 대한 나의 사랑은 그 모든 것을 용서한다. 용기를 내어 앞으로 전진하여라, 그러나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는 가지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을 잊지 말고 말이다. 너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라, 다시 말해, 네 하느님과 의 일치를 유지하여라.

다윗: 예수님...

예수님: 듣고 있다.

다윗: 사실은, 당신께 드릴 말씀이 아무 것도 없지만, 감사합니다... 나의 하느님이실 뿐만 아니라 제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당신의 기대를 저버리고 싶지 않고, 당신 어머니의 기대는 더더구나 저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제 부탁 하나 들어 주시겠습니까? 성모님을 보시면 제 대신 꼭 껴안아주시고, 필요하면 얼마든지 다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어머니 귀에 대고 말씀드려주십시오.

예수님: 오 다윗아!... 너는 나를 아주 즐겁게 만드는구나, 알고 있지? 이제 평안히 쉬어라.

- 나는 반년간의 방학으로 파나마에 돌아왔다.

1998년 6월 19일, 콜론

아침에.

예수님: 다윗아, 그에게 문을 닫지 말고, 그를 도와주어라. 네가 그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해주고, 두려워 말고 그를 도와주어라. (나는 나한테 인사하려고 다가온 한 마약 중독자에게 큰 거부감을 느꼈다.)

다윗: 오 예수님!

예수님: 너는 나를 닮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여라. 너는 얼마나 많은 잘못들을 범했으며, 나는 왜 아직도 계속 너를 신뢰하고 있느냐? 완전한 자인 내가 이렇게 할진대, 너는 얼마나 더 많이 그렇게 해야하겠느냐?

- 그 순간 나는 그 사람을 포옹했다.

예수님: 그렇게 하니 기쁘구나, 가장 비천한 죄인에게도 문을 닫지 말고, 항상 다른 기회를 주어라. 심판을 이길 자가 누구이더냐? 자비로운 사람들이 심판을 이긴단다. 다윗아, 넌 알고 있느냐?

다윗: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 너에게서 풍기는 향기가 기분 좋구나. 이 향기보다 더 상큼하고 즐거운 향기는 없단다. 자비, 내 사랑아, 무감각하고, 이웃에게 무관심한 이 사회에서 너를 구분시켜주는 것은 바로 그 자비란다.

다윗: 예수님, 저를 더욱 자비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예수님: 내 아이야, 그것이 바로 내가 원하는 것이다. 그것이 네가 성체성사를 참여할 때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란다.

다윗: 나의 주님, 미사에서 당신을 영할 수 있도록 빨리 내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너는 나를 아주 즐겁게 하는구나. 이제 내 평화를 받아라.

1998년 6월 21일, 콜론

다윗: 예수님, 책을 출판한 후에 많은 사람들이 당신께서 그들의 질문에 대답해 달라고 저를 찾아옵니다. 가끔가다 저는 우체부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예수님: 다윗아, 너는 나의 사신 (메신저), 나의 영사이다. 그 모든 사람들이 너를 찾아가도록 그들의 마음을 내가 움직였다면, 나는 너에게도 내 성심이 느끼는 것, 복음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고, 평화와 인간을 참으로 행복하게 하는 내 사랑을 알릴 수 있는 능력을 주었다. 이제 내 평화를 간직하여라.

1998년 6월 25일, 콜론

예수님: 다윗아, 너의 일들은 너만 아니라 나에게도 해당되는 일들이란다. 네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은 나의 것이고, 네가 사랑하는 영혼들 또한 나의 것이다.

다윗: 가끔가다 제 믿음이 흐려집니다, 그리고 당신에 대한 많은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나에 대한 너의 사랑도 충분하지 않고, 더구나 너의 운명은 내 손에 달려있음을 깨달을 만큼 아직도 너 자신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란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악한 결과를 이루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단다. 다윗아...

다윗: 말씀하십시오, 주님.

예수님: 너는 왜 나를 <내 친구>라고 부르지 않느냐?

다윗: 말씀하십시오, 내 친구님.

예수님: 산들이 허물어진 것을 보고, 외양간에는 이제 더 이상 소떼들이 없다고 들어도, 지존하신 하느님, 너를 위해 수많은 일을 하신 하느님을 끊임없이 믿고 신뢰하는 영혼을 나는 너무나 좋아한다.

다윗: 오 예수님! 우리 식구들을 도와주십시오. *(나는 우리 가족이 걱정되었다.)*

예수님: 그렇게 하마. 그것이 내가 하는 일이다. 네가 모든 것을 그와 정반대로 느끼거나 본다하더라도, 나의 길은 너의 길과 같지 않음을 잊지 말고, 내가 어떤 일을 완성시키는 방식은 너의 방식과 아주 다르다는 것을 명심하여라.

다윗: 내 친구님, 제 믿음을 증가시켜주십시오.

예수님: 그것은 너무 그렇게 청하지 말아라, 오히려 나의 영광 더불어 나에게 대한 사랑을 증가시켜달라고 청하여라. 애덕 없는 믿음은 소리만 울리는 징과 같으니까 말이다. 다윗아, 나를 사랑하여라.

다윗: 그것이 제가 바라고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러면 더욱 굳게 길을 가거라. 그런 의미에서 자신의 목표에 도달하려고, 너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것을 포기하고, <최고>가 되려고 얼마나 많은 훈련을 쌓았는지도 모르는 그 사람들을 *(운동선수들을 말씀하신다.)* 본받아라. 너도 그와 같이 하여라. 그러나 내 마음에 무척 드는 향기를 지니기 위하여, 다시 말해, 성덕의 향기를 지니기 위해 그렇게 하여라. 이제 내 평화를 받아라.

1998년 6월 28일, 콜론

아침에.

다윗: 예수님, 저는 당신께 내 이웃에 대해 이해심 있고, 헌신적이고, 관대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청하는데는 결코 지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 그리고 나는 너보다 더 안 지치고 너의 말을 듣고 나한테 기대하라고 말할 것이다. 이제 내 평화를 간직하여라.

1998년 7월 2일, 콜론

아침에, 성체 현시 중에.

예수님: 다윗아...

다윗: 말씀하십시오, 주님.

예수님: 내 안에 쉬어라. 네 하느님의 어깨에 기대어라.

다윗: 이 말씀은 무슨 의미로 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 나에게로 오라는 말이란다. 내 멍에는 편하니까 말이다.

다윗: 졸려 죽겠는데, 이렇게 당신 앞에 있는 것을 용서해주십시오. 당신께 합당한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산뜻하게 좀 깨어 있으면 얼마나 좋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깨어 있으려고 애쓰는 네 노력이 무척 마음에 드는구나. 걱정하지 말아라, 나는 각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줄 알고 네가 하는 모든 것 안에서 나를 기쁘게 하려는 네 소망이 얼마나 큰가도 알고 있으니 말이다.

다윗: 가끔가다 저는 제가 너무 나약하게 느껴집니다.

예수님: 너는 너의 약함 때문에 내 은총을, 너의 비참함 때문에 내 자비를 충분히 받았단다. 혹시라도 그것을 잊었다는 말이더냐? 너의 하느님은 누구와 친교를 맺고 있는지 잘 알고 계시고, 너를 떠받치고 계시는 그분 안에서 너는 승리하고 남으리라는 것도 알고 계신단다. 더구나, 다윗아, 너를 천사들보다는 조금 못하게 만드셨어도, 너의 하느님께서 네 인간 본성을 잃지 않고 천사들을 닮고, 더욱 나와 같아짐으로써, 다시 말해, 나의 모습을 지님으로써 천사들보다 더 나아질 수 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단다.

다윗: 오 하느님!

예수님: 왜 놀라느냐? 나는 모든 것의 머리가 되고 사람은 우리의 모상이 되고 우리를 닮게 만드는 것이 하느님의 뜻이 아니라는 말이더냐? 나는 죄를 제외하고, 모든 것에서 그들과 같아짐으로써, 인간에게 영광과 권능과 존귀의 관을 씌워주었다.

다윗: 그만하십시오, 제 마음이 사랑으로 타서 폭발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 그 정도라면, 나는 너에게 더욱 친밀하게 얘기해야겠구나. 너를 천사처럼 되라고 불렀을 뿐 아니라, 너의 하느님을 닮으라고 부르신 그분에 대한 사랑에 불타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니까 말이다. 그리고, 다윗아, 넌 알고 있느냐? 이것은 너처럼 나약하고 힘 없는 사람에게도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다.

다윗: 왜 그렇게 확신있게 그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님: 너는 내 은총을 충분히 받았으니까.

다윗: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저는 못 알아듣겠습니다.

예수님: 네 인간 본성의 한계가 거기에 있고, 그 아름다운 순간에 내 은총이 작용하기 시작한단다. 어느 정도로냐고?

나가는 말

사랑하는 독자 여러분, 우리는 이 책의 끝에서 이 작품, 곧 <나를 사랑하여라>가 아직 끝난 것이 아님을 여러분께서도 아시기를 바랍니다. 다빛 형제와 예수님의 대화는 오늘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모든 의미에서 참된 교리이며 가르침입니다. 다빛 형제가 속해있는 형제회인 예수 마리아 성심의 자비 형제회 (Fraternidad de la Divina Misericordia de los Sagrados Corazones de Jesus y Maria) 는 이 작품 안에서 그의 참된 영적 정체성을 발견합니다. 이 형제회는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여러 상황 안에서 버림받고 학대받는 아이들을 맞아들이고, 보호하고, 방어하는 일을 통해 하느님의 자비를 실천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늘나라에 가장 먼저 받아들여지는 영혼들입니다. (마르 9.37)

<나를 사랑하여라>를 통해, 우리는 우리 형제회의 카리스마(은사)가 우리 형제들과 협력자들이 사제들의 성화를 위해 바치는 지속적인 봉헌과 기도뿐만 아니라, 어려움에 처한 사제들을 맞아들이는데까지 확장됨을 발견했습니다.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해, 요한 바울로 2세 교황님의 사제서품 50주년 기념에 맞추어 로마와 마드리드에서 (1996년 11월 1일과 2일) 사제들의 사도직이 탄생했습니다.

<나를 사랑하여라> 안에서 주님은 당신의 사제들에게 매우 특별한 관심을 보이십니다. 주님은 1994년 2월 25일의 메시지에서 우리에게, <나는 네가 나의 모든 사제들, 이 작품 때문에 너를 적대시하는 사제들이라 할지라도 그들까지 포함하여, 그들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사랑하기를 원한다. 그들은 무엇보다 너의 사랑과 존경을 받을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란다. 애야, 내 어머니가 아홉달 동안 나를 잉태하고 계셨던 것을 눈여겨 보아라. 사제들은 빵과 포도주를 내 몸과 피, 곧 영원한 생명을 주는 계약으로 변화시킬 때, 단 몇 분만에 그 일을 행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여라>는 이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복음선포에 우리를 초대합니다. 우리는 한없는 이 은총의 보화를 어떻게 우리 형제회만을 위해 움켜쥐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작품과 더불어, 모든 사람을 통해 온 세상에 <사랑(이신 분)은 살아계시다!>, 그리고 그분은 사랑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외쳐야 할 시급함을 깨달았습니다.

<나를 사랑하여라>에서 소개하는 영성은 모든 사람이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 영성은 예수님의 성체 성심을 통한 하느님과의 만남입니다.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이 현존하시는 이 사랑의 신비 안에서, 인간 이성에는 감추어져 계신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께서 우리를 만나러 오십니다.

<나를 사랑하여라>는 하나의 사랑의 찬가로, <하느님은 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보내 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셨다.> (요한 3.16)는 것을 끊임없이 기억하라고 초대합니다.

이 작품이 여러분의 삶에 축복이 되었다면, 여러분이 받은 축복의 증거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더 많은 정보와 소식에 관심을 가지신다면, 지금 바로 편지나 전화를 주십시오.

예수 마리아 성심의 자비 형제회
Fraternidad de la Diviana Misericordia
De los Sagrados Corazones de Jesus y Maris

Apartado 4113
Cristobal, Colon
Republica de Panama

Tel: 442-0683
Fax: 442-2793

Correo electronico: cjym@sinfo.net